CONTEXTUAL PASTORAL TRAINING FOR MEETING MINISTERIAL NEEDS: LA Sa-Rang Community Church

현 목회 상황에 적합한 목회자 훈련에 대한 담론: LA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A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for th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by

Kisup Kim

May 2020

@ 2020
Kisup Kim
ALL RIGHTS RESERVED

Grace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Contextual Pastoral Training For Meeting Ministerial Needs:

LA Sa-Rang Community Church

Written by
Kisup Kim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Seminary

Approval

Dean Seminary,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Center for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dvi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ABSTRACT

Kisup Kim

2020 "Contextual Pastoral Training For Meeting Ministerial Needs: LA Sa-Rang Community Church"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202 pages

In this day and age, the church is losing its visibility and influence.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struggle with internal conflicts. With a pastor with right personality, character in faith and the best theological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e vitality of the Gospel in the church he is serving. Congregation wonder whether pastors are properly prepared and question the pastor's competence. After all, at the heart of the church's problems lies the pastoral leadership. This thesis was birthed out of these concerns.

As the church exists embedded within culture and society, it must preach the Gospel within that context. Ministry is like a dance in which different people come together who are striving after a same vision of the church. The spiritual health of the pastor will largely affect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different people. A community experiences the grace of heaven together when a pastor lives in the presence of God. However, to establish this healthy community, it is vital that the pastor understands the framework to organize a church and utilize healthy systems to build healthy communities. In other words, while personal faith and

character are essential, possessing the capacity to lead is indispensable to a pastor's success in shepherding a community.

In Biblical history, the characters who led God's people were consistently called by God, enjoyed deep spiritual fellowship with God, and possessed excellent character. More importantly, these characters were able to successfully lead the community to fulfill God's calling despite the difficult realities and obstacles they faced. In other words, they possessed excellent personal character and enjoyed deep fellowship with God,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eir capacity as a leader that allowed them to successfully lead their community.

Currently, pastoral training is mainly conducted by seminaries. This paper analyzes the curriculum of three American seminaries. It was difficult to find a curriculum that would aid pastoral candidates in understanding culture and society, that would help them to understand the field of ministry, that encouraged the personal inner work necessary to healthily lead. Curriculums that encouraged candidates to seek the presence of God and to understand ministry in light of the spiritual soil in which it is planted were few and far between. Nearly all curriculums singularly focused on academic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raining for pastoral candidates in which local churches can be, in a way that seminaries cannot, the context in which pastoral candidates are formed to be the leaders that this generation needs. The training presented in this paper includes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world, the skill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teach the entire Bible, the tools

to read effectively, and understanding the key elements that undergird the relationships between a pastor and the church. My hope is that this paper will constructively challenge the current model of pastoral training to bring about new, fruitful ways of training.

Mentor: Dr. Stephen S. Park

50,931 words

국문 초록

김기섭

2020 “현 목회 상황에 적합한 목회자 훈련에 대한 담론:LA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교회는 이 시대에서 존재감을 잃고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교회도 많다. 좋은 신앙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인데, 즉 개인적으로는 나무랄 것이 없는 목회자인데, 정작 섬기는 교회를 보면 복음의 생명력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과연 준비되었는지,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자신이 속한 시대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를 향해서 복음의 메세지를 주어야 한다. 목회는 또한 종합예술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의 소명을 향해서 함께 달려 가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의 내면이 건강해야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으며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공동체는 하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목회자가 교회 조직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시스템을 세워야 교회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다. 즉, 개인 신앙과 성품도 훌륭해야 하지만 목회자로서 시대 속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만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렸으며 탁월한 성품을 소유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섬긴 공동체가 수 많은 현실의 문제,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 드리도록 공동체를 이끌었다.

즉, 개인의 신앙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분에서도 탁월했지만 신앙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인도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었다.

현재 목회자 훈련은 주로 신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세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 시대를 이해하도록 돕는 커리큘럼, 교회 현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커리큘럼,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내면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커리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돕는 커리큘럼, 영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커리큘럼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거의 모든 커리큘럼은 학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현재 교회를 섬기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금 신학 교육은 목회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영성을 훈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린 시절 받은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결과 목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내면 치료를 시도하는 신학교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현 신학 교육은 지나치게 이론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준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와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교회가 함께 목회자 훈련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의 리더십, 그러나 신학교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지역 교회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적 훈련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훈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 세계 이해, 성경 전체 본문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 독서 훈련, 목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교회 내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배우는 것을 포함하였다. 부디 이 논문이 목회자 훈련에 대하여 또 하나의 도전이 되길 기대한다.

헌정 (DEDICATION)

이 논문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LA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

돌아보면 광야 같이 거칠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 온 여정이었습니다. 부족한 걸음을 붙잡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학위 공부는 할 여력도 되지 않았고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 박시경 교수님과 김정은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성경과 문화에 대한 깊은 혜안(慧眼)으로 효과적인 사역 전략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주신 Dr.Tom Stallter 주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Dr.Tom Stallter 교수님을 비롯하여 박사 과정 한 과목 한 과목을 헌신적으로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고 뒤늦게 시작한 학업이지만 매 시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남편을 묵묵히 인내하며 뒷바라지해 준 아내와 늘 목회에 바쁜 핑계로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음에도 잘 자라 준 혜원, 장원, 석원 사랑하는 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90 평생의 험난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 내셨고 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 어머니 김정기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외에서 살다 보니 자식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장인어른 (서남현)과 장모님(김순근)께도 마음을 담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지만 빼 놓을 수 없는 분들은 LA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부족한 담임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목회 중에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개척 이후 형제처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 온 LA 사랑의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마음을 담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떠난 지 벌써 32 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생애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준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이 논문이 목회자 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0 년 5 월

김기섭

표 목록 (LIST OF TABLES)

<표 1> M.Div Curriculum of Talbot School of Theology ……..… 36

<표 2> M.Div Curriculum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39

<표 3> M.Div Curriculum of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 40

<표 4> J.Robert Clinton 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1 단계 연구: 정지단계 …… ……..... 44

<표 5> J.Robert Clinton 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2 단계 연구:인성개발단계 …….…....46

<표 6> J.Robert Clinton 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3 단계 연구:사역성장 …….. 47

<표 7> J.Robert Clinton 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4 단계 연구:성숙단계 ……49

<표 8> J.Robert Clinton 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5 단계 연구:수렴과정 ……..…….. 52

<표 9> J.Robert Clinton 의 지도자 평생 개발론 6 단계 연구:회상 또는 축제단계 ….53

<표 10> MTS Key Learning Areas …….. 137

<표 11> MTS 후보생의 자기 성장 계획표 ……..…….. 138

<표 12> MTS Personal Workshop ……. ……..…… 142

<표 13> MTS Workshop Elective Syllabus …… 144

<표 14> MTS Monthly Diary Sample …….. 148

<표 15> 생터성경사역원의 전문강사스쿨 학사 일정표 샘플 (LA2 기) ……. 168

그림 목록 (LIST OF FIGURES)

<그림 1> 건강한 교회의 목회 시스템 샘플 183

<그림 2> 목회자 후보생의 영적 사고 훈련 목표 190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영문초록) iii
국문초록 vi
헌정(DEDICATION) viii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iv
표 목록(LIST OF TABLES) x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i
목차 (TABLE OF CONTENTS) xiii

제 1 장 서론(Introduction) 1

I. 연구 배경
II. 연구 목적
III. 논지
IV. 연구 질문
V. 가설
VI. 연구방법
VII. 연구의 한계
VIII. 용어해설
IX. 연구 절차

제 2 장 현재 목회 상황과 목회 리더십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Pastoral Leadership in the Current Ministry Context) 11

I. 상황화에 대한 이해 11

II. 현 목회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21**

1. 한국 교회의 상황

2. 이민 교회의 상황

3. 이민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III. 리더십의 중요성과 신학교육의 현주소 **30**

1. 리더십의 중요성

2. 성경 인물들의 리더십 특성

3. 신학교 교육의 현주소

IV. 리더십 개발의 이론 – 모세의 경우 **41**

1. 리더십 개발에 대한 정의

2. 모세의 리더십 개발

3. 클린턴의 지도력 개발 6 단계를 통한 모세의 리더십 개발 분석

제 3 장 성경적 모델 **(Biblical Models)** **55**

I. 모세의 개인 영성 및 현장 영성 **55**

II. 다윗의 개인 영성 및 현장 영성 **68**

III. 느헤미야의 개인 영성 및 현장 영성 **80**

제 4 장 연구의 설계 **(Research Design)** **98**

I. 설문조사의 의의 **98**

II. 연구 질문 검토 **98**

III. 연구 대상 견본 추출 **99**

IV. 자료 수집 절차 **99**

V. 연구 결과 및 해석 **100**

VI. 설문 결과에 대한 정리 **122**

제 5 장 **Case Studies …… 123**

I. 성령사관 아카데미**(George Christian University) ……. 123**

II. MTS(Ministry Training School, Sydney, Australia) …… 126

III. Deploy Program(Grace Theological Seminary) …… 151

제 6 장 목회자 훈련을 위한 대안 제시**(Suggestions) ……..… 155**

I. 예수전도단(**YWAM**)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 156**

II. 생터성경사역원의 전문강사스쿨 **…… 166**

III. 독서훈련 **…… 176**

IV. 목회 현장 경험: 목회 시스템 이해와 관계의 핵심요소 **…… 181**

1. 목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 **……. 181**

2. 목회 시스템의 한 예(例) **……. 182**

3. 목회자 후보생이 훈련해야 할 영적 사고(思考)의 목표 **…… 190**

4. 목회자가 인식해야 할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 **……. 195**

V. 목회자 훈련학교 커리큘럼 **…… 196**

제 7 장 결론과 제언 **(Conclusion) …… 200**

참고도서목록**(Bibliography) …….. 203**

제 1 장

서론

I. 연구 배경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위협에 대해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는 세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핵무기 등의 전쟁으로 인한 인류 전멸의 위협이고, 둘째는 세계적인 전염병과 생태계 파괴의 위협, 셋째는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이다."[1] 그에 따르면, 이 세가지 위협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리더십의 위기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정치권, 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바나 연구소 소장인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 미국 기업들, 미국 교회들을 오랜 동안 조사 연구한 결과, 미국 교회 리더십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전례가 없는 많은 기회들과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도력의 결핍, 즉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2] 말하자면, 미국 교회는 리더십의 문제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 버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겡글(Kenneth O. Gangel)은 "교회들과 선교단체, 대학들과 신학교들, 그리고 교회 밖의 여러 기관들, 그리고 수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리더십의 부족한 자질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3]

---

[1] Warren Bennis, *워렌 비니스의 리더십 원칙*, 양영철 역, (서울: 좋은 책 만들기, 2003), 26.
[2] George Barna,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9), 22.
[3] Kenneth O. Gangel, "Biblical Leadership: Developing Church Volunteers", 2006. George Barna,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최기운 역, 43 에서 재인용.

한국 교회도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로 동일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08 년 2 월 13 일자 기독연합신문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물은 결과 '신뢰 회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55.3%(668 명)로 2 위를 차지한 '교회개혁'(282 명, 23.3%)에 비해 2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4]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교회 개혁'의 요구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렇게 실추된 교회에 대한 신뢰 문제는 교회 전체(성도, 제도, 개혁 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60 차 복음주의 신학회 정기 논문 발표에서 이만열교수는 한국교회의 침체 요인과 극복방안을 전하면서 목회자의 자질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그는 '20 세 이상 성인남녀 1,5000 명을 상대로 '직업군별 윤리성'을 조사한 결과, 신뢰도에서 천주교 신부 52.7%, TV 기자 45%, 스님 38.2%, 신문기자 37.4%, 교사 31.2%, 목사 30.9%, 교수 30.1%순으로 나타났다'면서 '목사의 자질, 특히 정직과 윤리성이 다른 종교의 성직자보다 저조하다는 것은 교회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5]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 년간 성직자 등 종교인 성범죄는 모두 401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종류별로는 강간, 강제추행이 376 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13 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12 건이었다. 전문직 성범죄(강간, 강제 추행) 현황을 보면 성직자가 376 건, 의사가 311 건, 예술인이 162 건, 교수가 96 건, 언론인 47 건, 변호사 14 건이었다. [6]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첫번째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운 일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신적 기관이며 예수님의 지상명령[7]을 수행할 주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

[4] 기독연합신문, "창간 20 주년 설문조사" (2008, 02.13), 5.
[5] 크리스챤 투데이, "교회 무기력한 원인은 도덕적 탁월성 부재" (2012, 10.28) 8.
[6] 경향신문 "성직이야 성직자야" (2013. 10.23) 10.
[7] 마태복음 28:18-20.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교회의 지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움 받은 리더이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준비된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 내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킨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성장에서도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된다. 목회자가 교회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고 헤매게 된다. 이 경우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은 열매가 없는 헛된 섬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혼란을 겪으며, 나아가 목회자 자신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1988 년 초 호주 시드니에서 첫 신학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시작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을 볼 수 있었다. 설교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 소지하여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나무랄 데 없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과 영혼의 열매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되고 성도들은 고통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최소 3 년 이상 신학교에서 목회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학교들이 있으며 나름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 교육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현재 신학 교육이 목회 현장을 섬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성도들을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죄인들이 모인 지상교회의 약점을 파악하고 인간의 죄성이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조직, 시스템, 소그룹, 훈련, 사역, 예배 그리고 교회 정치,

더 나아가 인간 관계 면에서도 상당한 식견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즉, 세상의 조직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신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회 현장의 필요를 다루기 보다는 현장과 동 떨어진 이론적 학문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고, 양질의 신학 교육도 받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신학교의 교육만으로 목회자가 준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는가가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목회자 밑에서, 어떤 목회 현장을 보았으며,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 그 가슴에 하나님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교회는 목회자 한 개인의 자질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목회자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신학 교육의 내용으로는 목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즉, 목회자 훈련에 대한 생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신학교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목회현장에서는 필요한 훈련 내용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내면을 가진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사역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로 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II. 연구목적

이 논문에서는 사회에서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서조차 신뢰를 잃어가는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목회자의 자질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이를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적합한 세명의 모델을 찾아, 그들에게 어떤 자질이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삶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신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목회자의 자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를 정리했다. 바라기는 기존의 목회자 뿐 아니라 다음세대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어 이 세대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III. 논지

신학은 목회의 기초이다. 그러나 최고의 신학교에서 최고의 교수진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공적인 목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신학에 대한 지식만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 목회 현장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고,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도와야 할 훈련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목회는 목회 현장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

목회에 임하는 목회자는 내면이 건강해야 한다. 목회자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쓴 뿌리들이 남아 있다면 상한 내면은 목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면의 상처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자존심은 자신과 건강한 관계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수립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세울 수 없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도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목회자는 내적 치유를 통하여 내면의 아픔과 쓴 뿌리를 제거하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회복해야 한다.

목회자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세상의 일들은 그 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추면 감당할 수 있지만, 목회는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준비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준비만 갖춘다고 해서 목회 현장을 성공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모두가 신앙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초신자도 있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교인들도 있다. 초신자가 신앙이 더 빠른 속도로 자라는 반면 신앙 연조가 오래 되어서 오히려 신앙이 굳어진 성도들도 있다. 리더십의 결정에 잘 순종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까다로운 교인들도 있다.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도 필요하다.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만으로 이러한 목회 현장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목회자는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기관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야 한다.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 세상을 정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단지 주일 한번의 설교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예배, 체계적인 훈련,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몸으로 섬기는 사역,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 등 공동체의 삶 전반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이러한 목회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적 삶에서 이를 구현해 낼 실행력과 추진력 등을 갖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목회 현장은 전쟁터다. 목회자는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어야 할 사령관이다. 그러나 현재 신학교육은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자질들을 훈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교회 현장, 목회의 현장이다. 신학교의 교육이 놓치는,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교회가 현장에서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의 영역에서도 탁월한 식견을 갖추도록, 또한 목회 현장에서도 영광스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 보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 이상의 열매를 내는 목회자들을 볼 수 있다. 물론 같은 조건에서 같은 훈련을 받아도 개인의 마음 가짐에 따라 훈련의 성과에 있어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자질과 태도의 차이는 다루지 않는다. 평균적 자질과 태도를 전제하고, 어떤 목회자의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목회 현장을 경험했는가, 어떤 목회적 훈련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한 목회자의 자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다.

IV. 연구질문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신학 교육은 현장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적합한가?

둘째, 목회자가 자신이 자란 환경과 관계에 의해서 받은 내면의 상처와 그로 인해 왜곡된 성격은 교회라고 하는 목회 현장을 섬길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및 영적 소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등 목회자의 개인적 영성은 목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

넷째, 목회에 있어서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예배, 훈련, 소그룹과 사역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목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가?

다섯째, 목회자의 개인 영성과 현장을 섬기기 위한 목회적 역량을 훈련할 가장 적합한 환경은 무엇이며,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두가지 요소들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현재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즉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받기를 원하는 훈련은 무엇인가?

V. 가설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적 영성(건강한 내면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성품과 인격)과 현장 영성(조직과 목회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 갈등에 대한 해결 능력,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 가는 리더십, 공동체가 영적 본질에 서도록 하는 영적 감각)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훈련은 실제 목회 현장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VI.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Literature Research): 도서, 정기간행물, 저널, 논문, Grace Seminary 에서 행해졌던 강의 내용 등을 참고할 것이다.

2) 정성적 연구(Quantitive Research): 본 연구의 방법은 전통적 연구 방법으로 오랫동안 선호되었던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통한 '정성연구' (Quantitive Research)방법을 따른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서 이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다.

3) 본 논문은 Grace Theological Seminary 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4) 또한 필자 개인 목회의 경험 및 오랜 기간 목회를 해온 선배 목회자들의 관점과 통찰력들을 참고할 것이다.

VII.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5 년부터 2020 년 3 월까지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 성장하여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VIII. 용어해설

1. 리더십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자들마다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만 단 한 문장으로 누구나 납득할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리더십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볼 때 한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사용되는 리더의 영향력 행사이고, 그 영향력은 다스림과 인도함의 과정에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리더라는 단어는 목회자, 사역자 또는 지도자의 의미와 혼용(混用)하여 사용한다.

2. 영성: 자질, 역량, 성품,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의미로 사용한다.
3. 개인 영성 : 개인의 덕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임재의 경험, 소명의식, 건강한 내면, 인격, 성품 등을 포함한다.
4. 현장 영성 :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 비전 제시, 통찰력, 공동체를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역량, 인간관계 역량 등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생명력있게 이끌어 가는, 즉, 목회 현장을 잘 이끌어 가는 역량을 지칭한다. 현장 영성과 사역 영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5.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 : 없으면 안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를 본질적 요소로 칭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본질을 더 본질되게 하는 요소를 비본질적 요소라 칭한다. 가령,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고, 목회 시스템, 조직, 행정 등은 비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고, 행정능력, 조직능력, 비전제시 등은 비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6. 내적 치유: 한 개인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환경과 왜곡된 인간 관계 속에서 자라면서 내면에 쌓인 아픔, 상처, 쓴 뿌리 등을 치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면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활동을 칭한다.
7. 목회 시스템: 교회가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세우는 교회의 조직, 또한 성도들을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여러 신앙의 활동들을 칭한다. 예를 들어, 예배, 훈련, 소그룹, 사역 등이 목회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X. 연구절차

본 논문은 전체 7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연구의 서론으로서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배경, 목적, 가설, 그리고 연구의 방법을 담게 될 것이다.

제 2 장은 현재 목회 상황을 상황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목회상황에서 목회자는 개인 신앙과 성품만 뛰어나서는 안되고 주어진 공동체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몇 신학교의 커리큘럼 분석을 통해서 현 신학 교육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훈련하는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방법을 분석함으로서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 3 장은 모세와 다윗, 느헤미야는 개인적 성품과 신앙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동체가 받은 소명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부분을 조명함으로서 리더는 개인적 성품과 신앙의 탁월함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점을 조명하였다.

제 4 장은 사회조사방법론의 정성연구(Quantitive Research)를 통하여 현재 신학교육의 한계와 개인 영성 및 현장영성의 요소들이 목회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한 후에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들을 평가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제 5 장은 현 신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제 6 장은 신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목회자의 자질을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7 장은 전체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음과 동시에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그러나 더 깊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안을 담게 될 것이다.

제 2 장

현재 목회 상황과 목회 리더십의 중요성

I. 상황화에 대한 이해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하는 기본 동기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중요한 관심사로서 동일하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리라"(빌 1:18)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세대의 복음 전도자가 따라야 할 자세이다. 문제는 타문화권 선교에서 복음이 오해되거나 왜곡되는 점이다. 따라서 21 세기에도 여전히 복음과 문화, 신앙과 문화, 혹은 상황화로서의 선교는 당면한 문제로 대두된다. 복음이 어느 정도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타문화권에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이론이나 모델만 따라서는 불충분하다. 불변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문화는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고, 어제는 적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 복음을 가두어 버리는 감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화란 용어가 복음과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가장 대중적인 용어로 정착되고 있지만 이미 적응, 차용, 사회화, 토착화, 지역신학 등 여러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 용어들의 공통점은 복음이 전해질 때 토착 문화(상황)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며 토착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복음으로 들려지고 생활화되게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1. 상황화 이전 단계의 용어와 역사적 경험들

1.1. 적응(Accommodation/ Adaptation)

선교사가 사역현장에서 선교사와 현지 사람들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 말, 태도를 현지 주민들의 삶의 양식에 맞게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사도행전 15 장 1-29 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판결한 사건이다. 선교 현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유대 율법인 할례와 안식일 준수가 필수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결국 바울의 말과 같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할 것으로,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를 가르치도록 결론지었다 .

본격적인 영국 선교시기를 연 교황 대그레고리(Gregory the Great)는 "바울의 시대 이후로는 처음보는 주의 깊이 계획되고 계산된 선교 사업"[8]을 시도하였다. 590 년에 남영국에 도착한 선교사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은 교황에게 선교지의 옛 관습과 축제일과 예배 처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문의했다.[9] 이러한 시도들이 적응의 한 예(例)가 될 수 있다.

1.2. 사회(학습)화 (Enculturation)

사회화 혹은 사회학습화란 말은 주로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에서 쓰는 말이다. 한 개인이 동일 문화권 안에서 학습을 통하여 문화를 전수 받고 동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쇼터(Alyward Shorter)에 의하면 이것은 한 개인이 자기 문화에 적응하는 문화적 학습과정이다 (the cultural learning process of the individual, the process by which a person is inserted into his or her culture).[10]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란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세계관, 행동 양식을 자신의 주체적인 모델로서 수용하게 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을 말한다. 그래서 '엔컬쳐레이션(inculturation)'을 사회화 내지는 내향화로 번역한다. 이런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요소는 언어와 부모와 친척과 선생과 종교이다.[11]

1.3. 문화변용(Acculturation)

문화변용이란 주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에 의해 사용되는 말이다. 문화가 다른 개개인이나 집단간에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동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도 일어나기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며 혹은 강요에 의해서도

---

[8] Stephan Neill, *기독교 선교사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오만규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3), 79.
[9] Stephan Neill, *기독교 선교사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80.
[10] Aylward Shorter, *Toward a Theology of Inculturation,* (New York: Orbis Books, 1988), 5, 10-13.
[11] Aylward Shorter, *Toward a Theology of Inculturation*, 15.

일어날 수 있다. 한 문화 내에서도 일어나며 타문화와의 만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전도, 선교적 팽창과 문화간 대화, 종교간 대화 등은 사회, 문화적인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 변용의 한 형태이다. 다양한 문화간, 종교간 만남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순응(inculturation)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새롭고 포괄적인 패러다임의 일부분으로서의 다양한 지역 패러다임들이 생겨나게 된 패러다임 전이의 한 예로서 "교차문화"(intercultural theology)를 들 수 있다.[12] 교차문화 신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로, 신과 구원론을 한 주어진 문화의 틀에서, 물론 이 틀을 절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는 학문이다. 둘째로, 교차문화 신학은 사회 상황(context)에 좌우된다. 셋째로, 서구적인 신학 방법론과 교회모델은 대안 신학에 의하여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넷째로, 교차문화 신학은 서구에서 발전된 합리적-분석적 학문 방법론과 완전히 결별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교차문화 신학은 이와같은 비판적 입장이 문화간의, 교회간의, 종교간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전체 과정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 총체적인 과정에 서구 신학은 하나의 참여자에 지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13]

1.4. 지역 신학(Local Theology)

주로 로마 카톨릭과 소수의 개신교권에서 사용되는 영어에서 온 용어이다. 독일어의 로칼(Lokal)은 영어의 지역(local)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로버트 슈라이터(Robert Schwrieter)에 의하면 지역신학[14]이야말로 문화화 혹은 문화순응의 참된 형태이다. 그는 '지역 신학 건설하기'란 책에서 이 말을 선호하는 이유를 몇가지 제시한다. 첫째로, 이 지역 신학이란 말은 지역 교회란 말을 연상시킨다. 둘째로, 신학이 대체로 상황(맥락)에 민감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지역 신학이란 말은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신학이다. 셋째로, 이 말을 사용하면 지나친 신조어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슈라이터는 '토착 신학'(indigenous theology), '민족 신학'(ethnotheology), '문화화' 혹은

---

[12] Aylward Shorter, *Toward a Theology of Inculturation*, 181-182.
[13] Aylward Shorter, *Toward a Theology of Inculturation*, 183.
[14] Robert Schreiter, *신학의 토착화(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황애경 옮김, (서울: 카톨릭출판사, 1991), 20-23.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ecclesia particularis 를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쓰이는 말이 "지역교회"(local church)이기에 지역 신학과 혼돈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순응'(inculturation), '맥락 신학'(contextual theology) 등 많은 신조어를 피할 수 있는 '지역 신학'이란 용어를 선호한다.[15]

1.5. 토착화(Indigenization)

본래 토착화란 루푸스 앤드슨(Rufus Anderson)과 헨리 벤(Henry Venn)이 제창한 삼자원리 혹은 네비우스 방법을 말한다. 즉 자치(self-governing), 자립(self-supporting), 자전(self-propagating)을 하는 토착교회가 형성 되면 토착화가 된 것이다. 즉 토착 지도력, 토착 교회당, 토착 조직이 이루어지면 선교사나 선교기관에 의해 토착화가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indigenous"란 "in" (안에)라는 말과 라틴어 gigere (내재화하다, 혹은 특정 장소나 환경의 일부분이 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어떤 물건이나 행동이나 관념이나 가치를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한 예로, 햄버거가 식품으로서 미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토착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같다.[16]

2.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개념

19 세기 서구 선교 운동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선교 전략가인 Henry Venn 과 Rufus Anderson 등 많은 선교학자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자신들 스스로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토착화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토착화'는 기독교가 수입된 낯선 신앙으로서의 외국종교로 머무르지 않고 신생교회 자신의 정신문화와 전통에 뿌리내려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 표현되는 신앙고백과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후 그동안 사용되어온 토착화가 토착교회의 전통적인 문화를 통하여 복음에 응답하는 문제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면, 1972 년 세계교회협의회 신학교육 기금의 '상황안에서의 목회'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상황화'라는 말은 현 상황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

[15] Robert Schreiter, *신학의 토착화(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24-27.
[16] Alan Neely, *Christian Missions: A Case Study Approach* (New York: Orbis Books, 1995), 6, 42-50.

문제들과 더불어 생각한다. 즉, 토착화가 지역교회의 자립(self-supporting), 자치(self-governing), 자전(self-propagating)을 강조한다면, 상황화는 여기에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 안에서 '스스로 상황을 신학화 하는' 원리를 포함한다.[17]

이렇듯 상황화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과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세 인간들의 특별한 상황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서로 융화하여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복음화의 과정을 말한다. 상황화는 예배 방법,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관습의 수용 문제, 교회 건축 양식, 전도 방법, 성경번역, 교회 정치,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신학 등과 같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현지의 독특한 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상황화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선교란 현지의 문화에 긴밀한 뿌리를 둔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 상황화의 가장 좋은 모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정된 시간과 특별한 문화 속에, 즉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상황화의 최고 모델이었다.

상황화란 단순히 한 시대의 선교전략이거나 선택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 오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녹아 들어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즉 복음의 본질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1. 상황화라는 용어 사용의 기원

"상황화(Contexualization)"라는 단어는 70 년대 초 WCC 의 신학교육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20 세기 후반에 나타난 여러 신학적인 모델에 대한 총칭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8]20 세기 중반까지의 서구중심 선교가 서구문명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의 문화적 패키지로 전달된 것에 대한 반발과 반성에서 상황화가 시대의 흐름을 탔다. 즉 이전까지의 선교가 복음의 수용자

[17] http://blog.daum.net/pjdon8/3.

[18] http://blog.daum.net/pjdon8/3.

문화에 대한 무지, 무시, 편견으로 특징 된다면 – 몇몇 예외적인 경우로 마태오 리치, 로베르토 데 노빌리, 알렉산더 로드, 진젠도르프, 빌헬름 등을 들 수 있지만 – 결국 이전까지의 서구 중심 복음화란 기독교화와 문명화로 요약할 수 있다.[19]

상황화는 전통적인 서구 신학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제 3 세계 신학의 도전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전의 서구 문화중심주의적인 획일적인 기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선포하고 문화와 종교의 다원화현상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신학, 지역 신학의 도래를 의미한다.[20] 개신교에서 주로 쓰는 상황화의 정의는 "특정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기독교 진리의 빛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반성하고 숙고하는 것이다."[21]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재형성하고 변혁해야 하며, 문화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이도록 해야한다. 각각의 문화권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신의 사상과 문화적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성육신으로서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2. 문화와 상황화의 한계

문화와 상황화는 수학공식처럼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화는 선교의 방향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획일적 방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원리가 다양한 문화에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황화라는 말은 고정되고 확정된 개념에서 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보강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진행적 개념에서 보아야 하는 행위이다.[22] 그래서 어느 한 문화권 안에서 상황 신학이 태동하기 까지는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다.

---

[19] http://blog.daum.net/pjdon8/3.

[20] 이 인식 전환의 주된 동기는 '비서구 사회 신학자들 사이의 재인식'이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들은 주로 그들의 사회 정치적 상황 즉 군부 독재나 사회적 소외 혹은 경제적 빈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상황신학을 만들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전통에 대한 응답으로서 싱황신학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1963 년 웁살라 총회에서 상황화의 필요성은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21] Dean S. Gilliland, ed. *The Worl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Dallas: Word Publishing, 1989), 12.

[22] http://blog.daum.net/pjdon8/3.

시대와 문화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해 주지 못한다면 전달자와 수용자의 간격을 전혀 좁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화가 고정적인 개념이 없는 진행 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적인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복음 안에는 변할 수 없는 초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적 요소와 초문화적 요소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상황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23]

2.3. 상황화 진행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는 문화와 언어에 관련된 장벽이 늘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 복음의 요소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상황화 되어야 할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뿐 아니라 전통과 문화, 역사와 시대적 사고 형태, 자신이 겪은 역사적인 사건, 시대에 따라 쌓아온 지적인 경향, 문화적인 변화, 때로는 정치적인 변화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인권이 억압받는 자들, 신분과 계급의 차별로 인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도 선교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문화를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선교의 첫걸음부터 잘못 가게 된다.

복음은 결코 사람들의 삶과 분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탈피하여 전달자가 수용자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황화의 실패는 곧 효과적인 전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황화 과정에서 다른 문화적인 요소나 다른 종교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어서도 안되며 상황화라고 해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놓여 있는 올바른 판단과 평가 없이 그대로 넘어가서도 안된다.

[23] http://blog.daum.net/pjdon8/3.

2.4. 비판적 상황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 진공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지인들의 문화와 복음의 접맥을 시도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선교 역사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 선교에서는 복음과 현존하는 문화와 상충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 버리거나 아예 그런 곳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 대략 1850 년부터 1950 년까지 인도에 있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신앙과 행위를 무조건 이방적인 것이라고 배척하였다.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전통적인 비기독교적인 문화는 없애 버려야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신조를 실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토착민에게 복음이란 것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외국적인 것으로 보여 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 방식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24]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서구문화의 우월성에서 빚어진 문화 식민주의의 확산이었다. 서구 사람들은 서구 문명의 혜택을 세계에 전해 주는 것이 그들의 책무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그 자체에 우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교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서구 문명은 점차 확산되어 갔고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구 문물을 받아 들여 “현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문화에 대하여 연구를 해 볼 심각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전통문화를 연구하거나 지키려는 것이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25]

어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종교와 문화를 쉽사리 분리시킬 수 없다. 그들의 연대 관계는 사회제도와 문화와 역사 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비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24] http://blog.daum.net/pjdon8/3.
[25] http://blog.daum.net/pjdon8/3.

기존의 문화에서 쉽게 이탈할 수는 없다. 인류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인류학자들도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유기적인 실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수적 개념인 “문화”(culture)라고 하지 않고 복수적 개념으로서 “문화들”(cultures)이라고 표현하였다.[26] 즉 어떤 하나의 주된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획일적인 문화 발달이 아니라 각 사회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며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문화적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문화적 관점으로부터만 접근해 가는 ‘자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회도 제도적으로나 형식에서 서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자기 신학화’(self-theologizing)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비판적인 상황화의 수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복음 안에 들어 있는 분명한 절대성과 진리를 견지하지 못하고 현지 문화에만 적용하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 무비판적 상황화는 죄의 개념에 대해 약한 개념을 가지게 한다.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화의 과정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회의 구성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며 수용하게 된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로 개인적인 죄에 한정시킬 수 있다. 잘못된 사회제도나 문화는 죄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상황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27]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며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 들었다. 더구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독자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세상과 교회도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상황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의 문화적 관점에서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초문화적인 정체성은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6] http://blog.daum.net/pjdon8/3.
[27] http://blog.daum.net/pjdon8/3.

2.5. 상황화의 방향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불변의 분이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한다. 절대적인 것과 불변하다는 것은 초문화적이지만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들의 반응은 획일적이지 못하다. 각 사회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화를 위해서는 그들과 문화적 통합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초문화적 본질을 타협할 수는 없다.

복음은 민족, 언어, 문화,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복음을 알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의 독특한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고 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상황화의 과정은 단지 사회적 지식을 전해 주려는 것이 아니며 문화의 전달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된다. 구체적 복음의 실체를 전하고 죄인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상황화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시도해야 한다.

3. 정리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각각의 문화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의 상황화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선교란 기계, 외국어, 과학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이방인들을 문명화함으로서 기독교화 하는 과정도 아니다. 사실상 지난 20-30 년동안 한국의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특히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변혁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학 모두 이런 급진전하는 상황에 미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황화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상황화를 개념화하고 이행하려면 예컨데, 교회 정치, 리더십 훈련 방식, 예전(禮典), 차세대 교육, 소통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적절한 문화적 모델을 찾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도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적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들은

더더욱 상황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앞에 두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교회가 처한 사회 상황을 한국교회와 미주 이민 교회의 상황에서 살펴볼 것이다.

II. 현 목회 상황에 대한 이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 또한 교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이 속한 현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자신의 시대를 섬길 수 있다. 세계 교회의 상황은 차치해 두고라도 한국의 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교회는 지금 어떤 시대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가 섬겨야 할 다음 세대, 즉 우리 세대가 준비해야 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결국 어떤 목회자를 키울 것인가? 어떤 자질의 리더를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 시대에 대한 상황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현재 주일학교의 출석인원을 볼 때 한국교회는 곧 400 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요셉 시대 애굽이 7 년의 풍년 뒤에 7 년의 흉년이 찾아왔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풍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흉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필자는 '미래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면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 열려 있는 가능성의 세계다. 미래는 절망이 될수도 있고, 희망이 될수도 있다. 혹은 절망과 희망 사이 어느 지점이 될수도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인간 편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신비이자 은혜다.[28]"

[28]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23-24.

한국교회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우리 부모세대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헌신과 희생의 섬김이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부모세대의 신앙 덕분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 세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헌신은 줄어 들고, 목회자와 중직자마저 사명감과 열정이 줄어 들고 있다. 신학교들이 졸업생 배출을 늘리고 있어서 목회자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목회자는 늘어나고 사역지는 줄어들고, 농촌이나 오지에는 가지도 않고 갈수도 없고, 사역지를 찾지 못한 무임 목사의 수가 절반이 되어 간다. 목회 활동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73%가 넘는 교인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한다. 일주일에 한번 30 분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살아간다.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고 고백한 교인은 겨우 5.8%에 불과하다.[29]

최윤식은 한국교회의 현 문제를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시대적 소명에 둔감해진 것'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비례해서 거시적 사회, 문명, 시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시대가 변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한다."[30]

즉, 교회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외면 받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등한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최윤식은 앞으로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1. 일자리가 점점 줄어 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2. 노인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놓고 젊은이들과의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이미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일자리의 상당수가 은퇴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3. 고령화의 저주가 찾아올 것이다. 고령사회는 65 세 이상 인구가 14%인 사회를 말하는데, 한국은 2018 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 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화된

[29]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70.
[30]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80.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4.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많고 부양을 담당할 젊은 인구 감소로 퇴직연금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릿고개 시절보다 더 가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건축으로 인해 부채를 지고 있는 교회라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부도 위기를 극복할 묘책도 없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더는 헌금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31]

급변하는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본질적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최윤식은 아래 11 가지 미래 키워드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32]

1) 신세대, 신문화, 신사고의 시대
2) 혼합 문화의 영향을 받는 교배된 기독교
3) 개인주의 신앙
4) 한 특정한 건물이나 교회에 매이지 않는 신유목교인
5)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의 3 무 시대
6) 얕은 영성과 다신주의
7)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친절한 불가지론의 득세
8) 최고의 품질을 가장 저렴에 가격에 구입하는 시대 조류에 영향을 받는 코쿠닝 성도와 대형 교회의 이름을 빌린 브랜드교회의 정착
9) 교회를 위하여 더 이상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다운시프트(downshift)신앙
10)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넷트웍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트랜스챤(Trans-tian)의 등장
11) 감성신앙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이러한 예측대로 전개된다면 (아마 이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

[31]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35-165 요약.
[32] 이곳에서 언급된 미래 키워드 11 가지는 최윤식의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69-195 에서 각 제목을 가져왔다.

2. 이민 교회의 상황

이민교회의 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 오히려 한국의 교회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주 최초의 한인이민교회는 1903 년 11 월 10 일에 하와이 오하우섬에서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출범했다. 교인들은 모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온 이민자들이었다.

하와이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4 개월 뒤부터 미국 본토에도 한인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1905 년에 샌프란시스코에, 1906 년에 LA 에, 1914 년에 오클랜드에, 1919 년에 시카고에, 그리고 1921 년에 뉴욕에 한인 이민자 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미주 한인교회는 가족비자와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한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거나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민비자와 유학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유입되는 한인의 수가 급감하며 교회도 동반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 이민연구센터(CIS)가 2015 년 1 분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약 4,210 만명에 달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3%로써 미 이민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기 시작한지 105 년 만의 최고치였다. 그러나 한인 이민자들의 수는 2005 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33]

미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이민비자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5 년에 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한인은 모두 3,895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 년 이민비자를 취득한 한인이 6,078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불과 10 년 사이에 1/3 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미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따르면, 2017 년 5 월말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수는 모두 7 만 1,204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8 년의 한인 유학생 수 110, 083 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 년에 미 당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한인 수는

[33] NewsnM 2020 년 3 월 15 일자 인터넷.

2,993 명으로 이는 전년의 4,484 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33.2%가 줄어든 것으로 노동허가를 통한 한인 이민자들의 유입도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추정된다.[34]

더욱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이제껏 이민자들의 나라로 인식되어 온 미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최근 한인들의 이민 대상 국가 선호도 조사에서도 미국은 호주와 캐나다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탈출하는 역이민 행렬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이민정책의 여파로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민과 유학을 통한 한인들의 급감, 그리고 그로 인한 젊은 20~30 대의 소멸은 미주 한인교회의 고령화 가속화 현상과 더불어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솔직히 미주지역 한인교회의 성장은 한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꾸준한 유입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성장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민과 유학을 통한 한인들의 미주 내 유입이 과거에 비해 급감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충원되지 않은 상태로 한인 이민교회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옥성득은 LA 연합감리교회 창립 115 주년 기념 역사 포럼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미주 한인 교회에겐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이민이 다시 70~80 년대처럼 밀려 올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인구 변동이 이민교회 성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민의 물결이 다시 일어 난다 해도 이미 한국서 '종교난'을 거치면서 교회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과거처럼 쉽게 이민 교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35]

젊은 세대가 사라진 교회의 공동화 현상은 한국과 미주 지역에서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고령화는 비단 교회만의 이슈가 아니다. 세계적인 저출산율과 더불어 세계 인구 5 명 중 1 명이 60 세 이상인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고령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율이 전세계 224 개국 가운데 219 위에 기록될 만큼 초저출산 국가이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함께 한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급감과 다음 세대가 충원되지 않은 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을 무척 암울하게 한다.

이제껏 이민교계에서 다음 세대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신앙 세대 잇기 교육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한다면 과연 지나친

---

[34] NewsnM 2020 년 3 월 15 일자 인터넷.
[35] 옥성호, USAAmen.net 2019 년 8 월 22 일.

주장이겠는가? 이제껏 한인 이민 1 세대가 이루어놓은 신앙의 터전과 유산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인 이민교회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미래로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이상명은 이러한 이민 교회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이제껏 한인 이민교회는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꾸준한 유입과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물적 토대가 계속해서 도움이 되리라는 막연한 예상에 기대어 미래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준비하는 치열함은 너무나 부족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교계 전체가 연합하여 공동 준비와 대응을 해도 역부족일 수 있는데도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도 혜안도 조직도 태부족하다. 한인 이민교회가 처한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여러가지 위기지수가 감지되고 상승하고 있는 이때에 한인 이민교회가 임박하게 겪을 위기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위기라 예상되기에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36]

한인 이민교회는 다음 세대도 이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데 실패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여파로 경제적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나아가 진화생물학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는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 케케묵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명으로 과거 신적 영역이었던 초지능성, 초연결성, 미래 예측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제 4 차 산업혁명이 구축할 미래 사회와 그에 따른 깊고 광범위한 변화는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을 복음적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혼란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과연 이민 교회는 물리학과 생물학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가져올 미래 사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Sunday Journal 은 2007 년 9 월 30 일자에서 '미국이민교회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하여 특집기사를 실었다.[37] 목회자들의 고충은 1) 한국의 교인들보다 이민교회 교인들이 더 비판적 경향이 강하다. 설교, 교회 행정,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를 피고용인 다루듯 한다. 2) 목회자가 보기에 열심있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교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

[36] 이상명, 2017 년 6 월 11 일 미주장신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http://www.ptsa.edu/2017/06/11/특집-한인-이민교회의-미래-풍향계/

[37] "미국이민교회의 현실과 문제점" 특집 기사, Sunday Journal 2007 년 9 월 30 일자. https://sundayjournalusa.com/2007/09/30/미국-이민교회의-현실과-문제점-진단 2/

사람들이 별로 없으며, 이민 생활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60% 이상이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지만, 한인 교회의 경우 교인의 1/3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새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된 교인들이 많지 않다. 3) 또 하나의 고충은 떠돌이 교인들이 갑자기 교회의 적을 옮겨 버리는 것도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목회자의 배후에서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교회의 분위기를 흐려 놓는 일로 목회자의 고충이 가중된다. 4) 교인들이 숫적인 성장으로 목회자의 능력을 재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민 인구가 몰리는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숫적 부흥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아 목회자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반면 교인들도 교회나 목회자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교인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자질문제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뚜렷한 소명도 없이, 소정의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인격적 훈련도 없이 목회자가 된 사례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많은 비율의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불만과 아쉬움을 표시한다. 이것은 이민교회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대체로 높고 지적 수용 능력이 큰 것에 비해 목회자 편에서 같은 설교를 반복하거나 특정 교인을 공격하는 일 뿐 아니라 준비와 노력의 흔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목회자가 필요 이상으로 권위를 내세우는데 대해 불평을 호소한다. 이들은 공동체의 중요 결정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고 교인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길 바라며 교인들을 이해하고 함께 고통에 참여해 주는 상담가적 목회자상을 기대한다.[38]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비교하여 이민교회가 가진 여러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먼저 문화적 고립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이민교회는 크게는 미국 사회로부터, 좁게는 소속한 지역사회로부터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고립 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록 어떤 이민교회가 미국의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교단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상은 멤버이지만 심리적, 문화적으로는 남남이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교민을 돕는 일에는 활발해도, 미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 한인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흑인사회의 문제를 미국 역사나 정치경제적인 틀과 관련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38] Sunday Journal 2007 년 9 월 30 일자. https://sundayjournalusa.com/2007/09/30/미국-이민교회의-현실과-문제점-진단 2/

있는 이민교회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대도시의 교인들은 대부분 한국어 TV 와 방송, 신문 드라마를 통해서 조국의 상황에는 밝고 조국을 걱정하지만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39]

이민교회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세대와의 단절에 있다. 1 세 부모들과 2 세 자녀들간의 대화가 단절된 이슈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 세는 한국의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헌신이 장점인 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2 세들은 문제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희생하거나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약하다. 더 나아가 언어적인 갈등, 문화적인 습관의 갈등, 세계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은 더욱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1 세의 경우에도 미국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첫번째 유형은 미국적인 것보다는 한국적인 전통주의형, 둘째 유형은 아직 한국인지만 더 미국화되고자 하는 융화주의형, 세번째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고립주의형, 네번째는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인인 다문화주의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네 종류의 형태들이 2 세들과 연결되면 더 복잡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1 세끼리의 갈등도 문제지만 2 세들과의 갈등까지 더해서 이민 교회는 복합적 문제를 지닌 특수한 상황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40]

한국에서의 이민자와 유학생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한인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심각한 상황은 '소리 없는 탈출'[41]로 표현되는 2 세 자녀들의 교회 이탈이다. 통계적으로 한인 2 세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전후하여 70%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90%가 한인교회를 떠난다고 한다.[42] 실제로 이민교회의 교육부 상황을 보면 이러한 통계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부와

---

[39] Sunday Journal 2007 년 9 월 30 일자. https://sundayjournalusa.com/2007/09/30/미국-이민교회의-현실과-문제점-진단 2/

[40] Sunday Journal 2007 년 9 월 30 일자. https://sundayjournalusa.com/2007/09/30/미국-이민교회의-현실과-문제점-진단 2/

[41] '소리 없는 탈출'(silent exodus)라는 표현은 1996 년 <크리스챤 투데이>(Christian Today)에 헬렌 리(Helen Lee)가 "Silent Exodus, Can the East Asian Church in America Reverse the Flight of Its Next Generation?"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이 표현은 한인 2 세들이 미국 내 한인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보편적 표현이 되었다.

[42] "소리없는 탈출"(silent exodus)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설들이 있다. 한인 2 세 10 명 중 9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며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그들 모두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한인교회를 떠나지만 미국교회나 다민족교회를 출석하는 숫자도 고려해야 한다.

유년부를 거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교회에 잘 나오던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 둘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내에서도 중,고등부 출석 숫자와 대학부 출석 숫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나마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교회에 나오던 2 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는 아예 교회에 들이던 발길을 끊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아울러 요즘 한인교회에서 2 세 사역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2 세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찾기 힘든 현실인데 그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리 없는 탈출"의 현상이야 말로 오늘 이민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43]

지난 100 여년의 미국 이민 역사 가운데 한인이민교회는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대형 한인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도 "소리 없는 탈출"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으면 이민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다.

3. 이민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민 교회의 상황에 대한 진단 기사를 읽다 보면 두가지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민 교회의 현 상황과 미래는 미국내 한인 이민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으로 이민이 늘어나지 않는 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 교회는 이러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44]

또 하나는, 이민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기사들마다 목회자의 자질부족을 최우선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Sunday Journal 2005 년 8 월 18 일 (Vol.516)는 크리스챤 투데이가 실시한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설문

---

[43] 권상길, "'소리 없는 탈출' 그 원인과 대안", (오상철, 이민신학논단 제 02 호, Fullerton, CA: 이민신학연구소 2010 년), 169-199.

[44] 미 연방 인구 센서스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은 지난 2010 년 110 만명이었으나 2015 년에는 106 만명으로 4 만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이민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1 세 한인 중 2000 년 이전 입국자는 63 이며, 2010 년 이후 입국자는 14%이다. 이에 한인들의 미국이민, 영주권 취득이 줄고 있어 감소세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아야 한다. NewsNnet 2019 년 4 월 8 일.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4

조사는 전국의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28 개주 81 명이 설문에 응했다. 미주한인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앙과 삶의 불일치'(17.1%), '목회자 자질부족'(15.8%), '교회 갈등, 분열'과 '떠돌이 교인'(10%), '성장 지상주의'와 '2 세 교인과 단절'(9.2%), '2 세 목회자 부족'(7.1%)'으로 나타났다.

사실 '목회자의 자질부족'이 15.8%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 '교회갈등, 분열', '성장 지상주의', '2 세 교인과의 단절', '2 세 목회자 부족' 등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목회자의 안목과 목회 자원 배분, 교회의 중요도 등과 연결되기에 '목회자의 자질 부족'이 이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교회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모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회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목회자 교육은 주로 신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학교는 목회자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훈련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몇몇 신학교의 교육 내용을 살펴 보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다.

III. 리더십의 중요성과 신학교 교육의 현주소

1. 리더십의 중요성

리더십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2003 년 4 월 초 이라크전에서 연합군과 마지막 교전 중에 있던 이라크의 특수 병력 10 만 명이 리더십 문제로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라졌다. 결국 그들의 리더는 미군에 의해 잡혔고, 곧 이라크 새 정부가 구성되면 재판을 받아야 했다. 즉, 사담 후세인의 리더십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미주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 "미 민간군사연구소 글로벌 시큐러티에 따르면 이라크의 공화국 수비대(Republican Guard>는 메디나, 함무라비, 네부카드네자르, 아드난, 바그다드, 알니다 등 모두 6 개 사단 병력 7 만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수도 바그다드를 경비하는 특수 공화국 수비대 2 만 7 천여 명까지 합치면 10 만명이 넘는다. <뉴욕 타임즈>는 미 정보 관리를 인용해 연합군 공군이 20 여 일에 걸쳐 이라크군 지휘통제시스템(C2)을 집중 공습한

결과, 공화국 수비대는 물론 특수 공화국 수비대의 지휘 체계는 사실 궤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비대원들은 지휘부를 잃고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45]

이라크군 최고 사령관인 후세인을 비롯한 각 군 지휘부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10 만 정예군이 순식간에 오합지졸로 전락했다. 이를 통해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교회나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영적 지도력이 전체 성도들과 선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나연구소의 대표인 조지 바나는 영적 리더십이 미치는 변화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비전을 제시한 사람의 사상과 노력으로 오늘날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46]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J. 로버트 클린턴(J.Robert Clinton)도 영향을 끼치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분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47]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 남침례회 북미 선교부의 책임자이며 국제 선교부의 컨설턴트인 헨리 T 블랙커비(Henry T. Blackaby)도 이렇게 말한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48] 블랙커비는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는 곧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가리킨다. 결국 이 세 사람이 강조하는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영적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들이 세상을 변화 시킨다'에 있다.

현재 지구촌 133 개국에 흩어져 있는 약 700 만 명의 한국인 중 북미주 교포의 수는 약 200 만 명이다. 특별히 북미 한인교회의 수는 4,182 개,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는 4,968 개로 나타난다.[49]

미국에는 한인 교포 1.5 세와 2 세 대학생 약 15 만명과 한국 유학생 약 7 만명이 공부하고 있다. 지구촌에 있는 한인 교회와 미국 전역의 대학에 있는 한인 학생들

---

[45] 미주 한국일보, 2003 년 4 월 16 일자
[46] George Barna, *Turning Vision into Action*, (Ventura, CA: Regal Books, 1996), 18.
[47] Clinton, J. Robert, *영적 지도자 만들기(The Making of a Leader: Recogniting the Lessons and Stages of Leadership Development),*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14.
[48] Henry Blackaby, *영적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8.
[49] 크리스챤 투데이, 2007 년 12 월 통계.

22 만명이 결집한다면 미 주류 사회에 실로 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후버는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 유럽과 아메리카의 크리스챤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 "1900 년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전체 기독교인들의 85.5%가 살았다. 2003 년경에는 그 비율이 41.5%로 낮아졌다. 1900 년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전체 기독교인들의 14.5%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가 차지했다. 1965 년에는 그 비율이 36.7%로 늘었고, 2003 년경에는 58.5%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50]

이러한 숫자는 선교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 서구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는 대단한 것이다. 교회사는 더 이상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역사와 동일시될 수 없다. 이제는 위상이 달라진 아시아 기독교의 현실을 직시하는 새로운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의 수가 결코 적지 않으며,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영적 지도력을 준비한다면 전 세계에 큰 영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급변하는 지구촌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를 위한 리더십을 준비해야 한다. 고르돈 헬머 델피의 예견에 의하면 21 세기의 세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 "세계의 인구는 61 억에 육박할 것이고,[51] 합성 단백질의 제작은 새로운 식량 자원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통제된 고온에서 시행될 원자핵 융합 반응력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무한대로 마련해 줄 것이며, 새로운 광물질이 바다로부터 추출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생명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며, 자동 조작이 수동적 로봇의 서비스로부터 IQ 높은 기계에 이르기까지 진보할 것이다.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만능 언어가 자동화된 통신을 통해서 발전될 것이고, 상업 탄도의 수송이 제도화될 것이고, 군사 목적을 위한 기후 조작이 가능해질 것이다.[52]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전통적인 영적 리더십으로는 변화된 21 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문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또한 세상에 주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리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오늘날 이민

---

[50] Wolfgang Hoover, *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82-183.
[51] 2020 년 3 월 현재 세계인구는 약 78 억이다. https://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
[52] 이원설, 문영식, *21 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6 에서 재인용.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여 성도들을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아직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망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 "기술의 영향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은 점차 비인간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는 전자적 파동을 이용해 의사를 교환하며 원격 조종장치로 전쟁을 치르고 직접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이 없어도 많은 필요들을 충족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주라는 환상, 즉 가정이나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가치 기준의 양성은 체계적인 종교적 믿음과 함께 했다."[53]

종교가 보다 큰 사회적 필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자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오용되기도 했다. 이것은 특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국가는 경험적 합리적 세계관에 지적으로 구속되며 종교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종합적 세속주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종교는 아직 개인과 국제 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요소로서 살아 남아 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종교가 지배적인 세력이며, 공산주의 붕괴 이후 동유럽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힘이 되고 있다.

> "세속주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한 손을 성경 위에 얹고 취임선서를 하며, 성직자들을 초대하여 기도를 올린다. 또한 미국인의 65% 정도가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다."[54].

이 얼마나 희망적인 글인가? 다시 말하면, 과학화, 정보화, 세속화 물결에 있는 세상 속에서도 '강력한 영적 리더십'은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부단히 개발하여 세상과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이민 교회, 이민 사회와 지구촌의 상황 속에서 필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적 리더십의 모델들을 살펴 보고 특별히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

[53] Klaus Schwab, *세계 석학 103 명이 제시한 21 세기 예측*, (서울:매일 경제 신문사, 1995), 56.
[54] Klaus Schwab, *세계 석학 103 명이 제시한 21 세기 예측*, 57.

2. 성경 인물들의 리더십 특성

영적 리더십을 훈련하고 개발한 대표적인 구약의 리더들은 요셉과 모세, 다윗과 느헤미야이다. 우선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영적 리더십은 비전을 소유하고 (창 37:6-11),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창 39:4-5),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창 39:9-10), 영적인 해석력을 가지며(창 41:25-41),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창 45:5-8)로서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믿은 사람(창 50:24-25)으로 나타난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믿음의 소유자(히 11:24), 성실한 사람(히 11:25), 통찰력을 지닌 사람 (히 11:26), 결단력을 겸비한 사람 (히 11:27),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히 11:28), 책임감을 가진 사람(히 11:29)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윗은 현명한 외교관 (삼하 5:11),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 (삼하 5:12),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한 사람 (삼하 6:12-15),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한 사람 (대상 15:26),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끈 사람 (삼하 6:15), 회개와 눈물이 있는 사람 (삼하 12:16-17), 기도와 사랑의 사람 (삼상 24:4-7; 삼하 16:11-12) 이었다.

또한 존 화이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느 1:5), 조직력이 있는 사람 (느 2:1-18), 일을 나누어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느 3:14), 땀 흘리는 사람(느 4:21-23), 외부 반대 세력에 대해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느 5:7-9), 금전적으로 깨끗한 사람 (느 5:14-15), 인신 공격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느 6:14),, 갱신하는 지도자 (느 8:7-9), 노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 사람 (느 13:30-31)이었다.[55]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 그들에게서 공통적인 리더의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적 리더십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의 리더십이 가능했던 영성과 자질들이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모두 후천적인 삶의 환경 안에서 훈련되었고 개발되었다. 각각의 환경들은 때론 잔인하고 냉혹했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들 때문에 리더십의 자질들이 개발될 수 있었다. 둘째,

[55]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Reaching Goals with Prayer, Courage & Determination),* 이석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35.

그들의 리더십이 오늘날까지 존경 받는 이유는 그들이 설득력있는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했거나 책을 저술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질과 영성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현실의 난제를 풀어내었다. 모세는 장정만 60 만명, 총 200 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 년간 생존하도록 이끌었다. 다윗은 사울 이후 분열되었던 남과 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국가를 세웠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패배의식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안팍의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고 짧은 52 일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내었다. 모세, 다윗과 느헤미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현실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즉,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끄는 역량, 이것이 바로 현장(사역) 영성이다. 개인적으로 탁월한 인격과 신앙, 그리고 성품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앙공동체의 현실을 풀어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리더는 자신의 인격, 신앙, 성품과 더불어 수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최윤식은 이순신이 칭송받는 세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에게는 위기의 시대가 있었다. 만약 임진왜란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이순신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 미래의 위기는 언제나 징후를 가지고 온다. 그 징후를 알아채고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다. 셋째, 그에게는 전략이 있었다. 즉, 이기는 전략이다. 그는 자신의 역량을 잘 알고 적을 잘 분석했다. 적의 무서운 면이 무엇인지, 내부의 무서운 면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지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상황에 맞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이기는 전략'만을 구사했다.[56]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역량, 이것이 바로 현장 영성이다.

리더는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 역량은 개인의 영성(하나님에 대한 믿음, 친밀한 교제, 성실, 책임감, 끈기)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반드시 현실을 문제를 풀어낼 역량으로 연결되어야

[56]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05.

한다. 역사 속에서 쓰임 받은 모든 리더들에게는 이러한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을 함께 볼 수 있다.

3. 신학교 교육의 현주소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 신학교라면 과연 현재의 신학교육으로 이러한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을 갖춘 목회자들이 준비될 수 있겠는가?

필자는 현 신학교의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확인해 보았다. **Talbot School of Theology(La Mirada, CA)** 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Escondido, CA),** 그리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Deerfield, IL)**이다. 세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어떠한지를 살펴 본다.

3.1. **Talbot School of Theology, La Mirada, CA(**이하 **'Talbot** 신학교**')**[57]

Talbot 신학교의 경우 7 개 분야별로 **M.Div.**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Christian Education**
2) **Evangelism and Discipleship**
3) **Messianic Jewish Studies**
4) **Missions and intercultural Studies**
5) **Pastoral and General Ministries**
6)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7) **Spiritual Formation**

7 개의 **M.Div.** 프로그램 중 지역 교회의 섬김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M.Div. for Pastoral and General Ministries'**와 **'M.Div.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의 커리큘럼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표 1> M.Div. Curriculum of Talbot School of Theology

M.Div. for Pastoral and General Ministries	**M.Div.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57] Talbot 신학교 M.Div. 커리큘럼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www.biola.edu/talbot

Greek • **Beginning Greek I** • **Beginning Greek II** • **Introduction to Exegesis** • **Exegesis in the Gospels** • **Exegesis in the Epistles**	**Greek** • **Beginning Greek I** • **Beginning Greek II** • **Introduction to Exegesis** • **Exegesis in the Gospels** • **Exegesis in the Epistles**
Hebrew • **Elements of Hebrew I** • **Elements of Hebrew II** • **Introduction to Hebrew Exegesis** • **Hebrew Exegesis**	**Hebrew** • **Elements of Hebrew I** • **Elements of Hebrew II** • **Introduction to Hebrew Exegesis** • **Hebrew Exegesis**
Prerequisite Course • **Old Testament Survey** • **New Testament Survey**	**Prerequisite Course** • **Old Testament Survey** • **New Testament Survey**
Program Course • **Hermeneutics and Bible Study Methods** • **Patristic and Medieval Theology or Reformation and Modern Theology or Historical Theology Survey** • **Beginning Greek I** • **Beginning Greek II** • **Introduction to Exegesis** • **Exegesis in the Gospels and the Epistles** • **Elements of Hebrew I** • **Elements of Hebrew II** • **Introduction to Hebrew Exegesis** • **Hebrew Exegesis** • **Introduction to Field Education** • **Expository Preaching** • **Foundation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Introduction to Spiritual Theology and Formation** • **Personal foundations for Spiritual Formation** • **Spiritual formation, Vocation and the Disciplines** • **Talbot Spiritual Direction I** • **Talbot Spiritual Direction II**	**Program Course** • **Hermeneutics and Bible Study Methods** • **Patristic and Medieval Theology or Reformation and Modern Theology or Historical Theology Survey** • **Beginning Greek I** • **Beginning Greek II** • **Introduction to Exegesis** • **Exegesis in the Gospels and the Epistles** • **Elements of Hebrew I** • **Elements of Hebrew II** • **Introduction to Hebrew Exegesis** • **Hebrew Exegesis** • **Introduction to Field Education** • **Expository Preaching** • **Foundation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Introduction to Spiritual Theology and Formation** • **Personal foundations for Spiritual Formation** • **Spiritual formation, Vocation and the Disciplines** • **Talbot Spiritual Direction I** • **Talbot Spiritual Direction II**

• **Theology I: God, Scripture, Creation** • **Theology II: Christ, Humanity, Sin, Salvation** • **Theology III: Spirit, Church, Last. Things**	• **Theology I: God, Scripture, Creation** • **Theology II: Christ, Humanity, Sin, Salvation** • **Theology III: Spirit, Church, Last. Things**
Pastoral and General Ministries Specialization Courses • **Field Education II** • **Pastoral Ministry** • **Contemporary Biblical Preaching** • **Field Education III** • **Field Education IV** • **The Church and Society** • **Biblical Leadership and Management** • **Field Internship**	**Evangelism and Discipleship Specialization Course** • **Evangelism and Follow-Up *** • **Field Education II** • **Pastoral Ministry** • **Contemporary Biblical Preaching** • **Biblical Church Growth *** • **Church Planting *** • **Field Education III** • **Field Education IV** • **Small Group Ministries *** • **Biblical Leadership and Management** • **Field Internship**
Selective Course • **Introduction to World Missions** • **Evangelism and Follow-Up** • **Developing Strategic Church Ministries** • **Apologetics**	**Selective Course** • **Introduction to World Missions** • **Developing Strategic Church Ministries** • **The Church and Society** • **Apologetics**

M.Div. for Pastoral and General Ministry 와 **M.Div.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95% 이상 동일한 과목을 배운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M.Div.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의 경우 **Evangelism** 과 **Small Group,** 그리고 **Church Planting** 과목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다(참고, *로 표시해 두었다).

3.2.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Escondido, CA(**이하, **Westminster** 신학교)[58]

[58] **Westminster** 신학교 **M.Div.** 커리큘럼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www.wts.edu**

Westminster 의 **M.Div.** 프로그램은 3 년에 걸쳐 매년 3 학기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Westminster** 의 **M.Div.**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2> **M.Div. Curriculum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Junior Year	**Middle Year**	**Senior Year**
• **Ancient Church** • **Greek II** • **Hebrew I** • **Graduate. Theological Writing** • **Practicum: Oral Communication** • **Ministry of the Word** • **Theological Bibliography** • **Christian Mind**	• **Gospels & Acts** • **Hebrew IV** • **Pentateuch** • **Preaching Narratives** • **Doctrine of God** • **Doctrine of Man** • **Elective**	• **Church in the Modern Age** • **General Epistles & Revelation** • **Psalms & Wisdom** • **Pastoral Ministry** • **Preaching and Audience Analysis** • **Doctrine of the Holy Spirit**
• **Greek III** • **Hebrew II** • **Intro to Pastoral Counseling**	• **Ministry of Witness** • **Elective**	• **Elective**
• **Medieval Church & Reformation** • **Pastoral Internship** • **Greek IV** • **NT Interpretation** • **Hebrew III** • **Biblical Theology & Canon** • **Sermon Preparation**	• **Modern Mind** • **Pauline Epistles** • **Historical Books** • **Ministry of Discipleship** • **Preaching doctrinal & Ethical Texts** • **Doctrine of Christ**	• **Reformed Confession & Catechisms** • **Prophetical Books** • **Preaching & Congregational Life** • **Christina Life** • **Doctrine of the Church** • **Elective**

커리큘럼을 검토해 보면 이 시대를 이해하거나 이 시대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철저하게 학문 위주의 교육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3.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의 **M.Div.**과정은 아래와 같다.

Trinity School의 경우 **M.Div.**과정을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표 3> **M.Div. Curriculum of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 **Biblical Theology and Interpretation** • **Greek Exegesis I** • **Greek Exegesis II** • **Exegesis for Preaching** • **Interpreting the Synoptics and Acts** • **Interpreting Paul and General Epistles** • **Interpreting Johannine Literature** • **Elementary Hebrew I** • **Elementary Hebrew II** • **Hebrew Exegesis** • **Interpreting the Pentateuch and Former Prophets** • **Interpreting the Latter Prophets** • **Interpreting the Writings**
Theology and Tradition • **History of Christianity I** • **History of Christianity II (or) American Church History** • **Theology I: The God of the Gospel** • **Theology II: The Gospel of God** • **Theological Ethics** • **Advanced Theological Course**
Worldview and Culture • **Foundations of Christian Mission** • **Foundations of Evangelism** • **Christian Faith & Contemporary Challenges** • **Understanding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Ministry**
Ministries and Practices • **Spiritual Formation for Ministry** • **Intro to Counseling Ministries** • **Issues in Counseling Ministry** • **Leadership and Educational Ministry** • **Theology and Methodology of Biblical Preaching/ Lab** • **Christian Worship and Pastoral Practices** • **Preaching the Old Testament** • **Internship I**
Degree Tracks

- **Church and Parachurch Ministry**
- **Academic Ministry**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 세 곳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처한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내적 치유의 과정들도 거의 없다. 더구나 변화 무쌍한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수 많은 장애물들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비전, 통찰력,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은 더더구나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시대에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 부름 받아 시대적 소명을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영성, 어떠한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 보게 된다.

IV. 리더십 개발의 이론 – 모세의 경우

1.리더십 개발에 대한 정의

초기 리더십 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리더는 남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리더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이 특성이론이다.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연구자들은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지 못하여 성공적인 리더십과 리더의 특성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59]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유물로 버려야 할 때다.

리더십은 개인의 성장과정, 교육과 훈련,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천적 능력이다. 칭기즈칸과 링컨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인류 최고의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된 것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알렉산더, 처칠,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은 비록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이들 역시 선천적인 리더는 아니었다. 알렉산더 대왕만 하더라도 아버지 필립 2 세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59]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명경사,1998), 264.

명문 가문의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준 것은 아니었다. 이들 역시 리더십을 갖춘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게 된 가장 큰 힘은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모세의 경우도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 만들어 진 예(例)이다. 바로의 궁중에서, 광야의 도망자로서, 히브리민족을 인도하는 광야에서 섬기는 마음, 통찰력, 소통 등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습득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리더십을 적용하고 개발시키려고 할 때, 좋은 성품은 어떤 것이며, 남의 말을 잘 듣는 자세와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스킬(skill)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리더십 개발은 스킬(skill)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배우더라도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2.모세의 리더십 개발

리더십의 개발은 스킬(skill)이 아니라 리더가 먼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된 리더의 삶은 자연스럽게 조직에 영향을 주고 조직까지 변화 시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 자신이 먼저 변했던 리더였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이 곧 리더십이 개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바로 궁중에서 40 년, 광야 목자 생활 40 년,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 히브리민족을 인도하던 광야에서 40 년이다. 그는 40 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 80 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한 모세는 리더가 된 이후 40 년의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는 훈련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었고 리더십이 개발되었다. 이 훈련과정을 통해 그의 불같은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고 비전, 통찰력, 신뢰, 소통, 권한이양, 섬김, 추진력과 끈기 라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되고 습득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 개발을 분석함에 있어 풀러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가르쳤던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 교수의 “지도자평생개발론”을 참고하고자 한다.

3. 클린턴의 지도력 개발 6 단계[60]를 통한 모세의 리더십 개발 분석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Leadership Emergence Theory)이 형성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클린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도자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간섭(intervention) 하심으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신다는 전제 아래 7 년 동안 약 400 명의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 40 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연구 하였다. 이때 과거의 역사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 (historical leaders),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도자들 (biblical leaders), 이 시대에 활동하는 지도자들 (contemporary leaders)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잠재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리더십을 개발했는가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지도자 개인의 지도력 발전은 물론,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의 지도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유익한 체계를 제시한다. 나아가서 새로운 지도자들의 발전 과정을 예상할 수 있는 안목을 보여 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개발은 6 단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 모세를 예로 들어 6 단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1 단계 정지 단계 - 주권적 토대(Sovereign Foundations)

모세의 출생과 40 년간 바로의 궁중 생활:

하나님께서 장차 영적 지도자로 쓸 사람을 위해 기초적인 요소들을 마련해 놓으신다. 아직 어떤 건물이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지만 건물을 지을 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험(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이나 시대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주로 개성이나 성품이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환경,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단계에서 본인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단계는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 이때에 경험하는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 단계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즉, 나중 단계에 와서 돌이켜보면서

[60] 이 장 전체는 Clinton 박사의 아래 책에서 요약했음.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개발론 (Leadership Emergence Theory)*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하늘기획, 2012), 231~430.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과 사랑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

B.C.1527 년경,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이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은 히브리민족의 강성함으로 인해 내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된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막고자 가장 먼저 고역을 통해 (출 1:13,14) 인구를 제한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만다. 1 차 억압 정책이 무위로 끝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를 시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2 차 정책을 편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 2 차 억압 정책도 실패로 끝나게 되자(출 1:16) 애굽 왕은 히브리민족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 3 차 억압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 두지만, 아들이면 나일 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었다(출 1:2). 그 무렵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다(출 6:20). 모세는 석 달 동안 숨겨 길러지다 더 이상 숨겨 지낼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에 띄워지게 된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 가에 띄워진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모세는 바로 왕의 궁중에서 자라게 된다. 모세의 바로의 궁중에서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 단계 연구-정지단계

<표 4>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 개발론 1 단계 연구 정지단계

중요사건	모세의 출생	애굽공주의 양자	애굽인 살해	미디안광야도망
성경	출 2:1~4	출 2:5~10	출 2:11~14	출 2:15
연대	B.C.1527 년	B.C .1527 년	B.C .1487 년	B.C .1487 년
나이	1		40	
장소	애굽왕국			
모세의 역할	애굽 왕자로써 생활			
경험한 일	죽음의 위험 숨김, 가족과 헤어짐, 살인, 광야로 도망			
리더십 개발	히브리민족에 대한 사랑 능력, 실력(애굽의 모든 학술,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배경이 됨)			

강물에 버려진 아기 모세는 강가에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구출된다. 이후, 강변에서 떠 내려가는 동생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중재로 모세의 모친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 모세는 장성하여

40 세가 된다. 그 때 고난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 애굽인을 쳐 죽인다. 애굽인으로 자란 모세가 히브리사람을 자신의 형제라 말하고 애굽인을 오히려 죽인 것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과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는 애굽인을 죽인 일이 들통이 나자 광야로 도망을 해야 했다.

모세는 첫 40 년간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 왕궁에서 성장하며 애굽인들의 지혜와 궁중 예의, 예술 등을 배운다.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가 모든 일에 능했다고 증거한다(행 7:2).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 예술 등 전 분야에서 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 년간 유모였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 아래에서 양육 받으며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학대받는 히브리 사람을 보며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 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출 2:11). 이 시기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의 시기로서 모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리더의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신뢰를 받을 만한 리더십을 개발 시켰던 기간이었다.

3.2. 2 단계 인성 개발 단계 -성장 단계 (Inner-Life Growth)

이 시기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 년 생활이다. 이 단계는 개인의 신앙 성숙 단계로서 하나님을 보다 개인적으로 사모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단계이다. 이 때에 경건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는 근본적인 교훈들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만일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같은 분야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사역이 확장되거나 더 큰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 발전하게 된다. 이 단계는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을 익힐 때까지 훈련 받도록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시는 과정을 말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지도자에게 보다 큰 과업을 주신다. 즉,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로, 회심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운명의 장난에 이끌리는 대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 성품이 자라나는 리더와 달리 성령이 없는 리더는 자신의 과거에 끌려 다닐 소지가 크다.

2 단계 연구-인성개발단계

<표 5>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 개발론 2 단계 연구 인성개발단계

중요사건	이드로의 집에 거주함	결혼과 목자생활	두 아들을 낳음	호렙산의 소명	애굽으로 돌아감
성경	출 2:16-21	출 2:21	출 2:22;18:3	출 3:1-4:17	출 4:18-26
연대	B.C.1487 년			B.C .1447 년	B.C .1447 년
나이	40 세			80 세	
장소	미디안 광야				
모세의역할	도망자와 목자 생활				
경험한일	-죽음의 위험과 도망, -약한자들 도움, -40 년 목자생활, -하나님을 만남				
리더십개발	-자신보다 약한 자를 생각함, -목자 생활, -비전의 사람, -단점을 인정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다 목자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돕는다(출 2:16).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곳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약한 자들을 도왔다. 이것을 볼 때 모세는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고 40 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산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 년의 목자 생활은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되기 위해 그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 과정을 훌륭하게 마치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히브리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고 더 큰 과업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주신다(출 3:8). 하루는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꽃이 타오르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기 위한 것이었다.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소명을 받게 된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며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 비전, 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 목자의 마음 등의 리더십을 소유하게 된다.

3.3. 3 단계 사역 성장(Ministry Maturing)

이 단계에서의 주안점은 사역이다. 사역의 현장에서 효과적인 사역에 관심을 갖는 단계로서 개인의 계획이나 기능, 훈련, 세미나 등 비정규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성장시키기를 힘쓰며, 그에 필요한 특별한 기능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도자를 개발 하시는데,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파악하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신다. 동시에 여러 종류의 상호 관계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상호관계의 경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는 이런 저런 시도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훈련 받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 단계의 초점은 리더로서 무엇을 하기 보다는 리더로서의 존재 자체에 있다. 향후 리더십 능력의 발전 양상은 이 초기 경험에서 리더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 단계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40 년간의 미디안 광야생활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후 가나안 이라는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애굽은 여전히 죽음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화술의 약점을 아시고 히브리민족을 설득하고 바로 왕 앞에서 대언하도록 아론을 세우신다. 모세는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민족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공유한다. 또 바로 왕 앞에서도 아론과 동행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학대와 고역을 가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며 괴로워한다. 그런 후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묻는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바로에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라는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히브리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 시키신다.

3 단계 사역 성장(Ministry Maturing)

<표 6>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 개발론 3 단계 사역성장

중요사건	모세와 바로의 대결	열가지 재앙

성경	출 4:18-7:7	출 7:8-12:36
연대	B.C1447.년	B.C 1447.년
나이	80	
장소	애굽	
모세의역할	히브리민족의 해방자	
경험한일	-죽음으로 들어감, -단점을 극복(말 못함),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	
리더십개발	-비전공유, -소통(말못함 극복), -용기(두려움제거), -초자연적역사	

모세는 자신의 형제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죽음의 위험을 피해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이유는 고통 당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굽을 도망했던 도망자가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전과는 완전히 변한 모습이다. 모세는 자신의 말 못하는 소통의 문제를 아론을 통해 해결한다.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함께 공유하고 출애굽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또한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한다. 초자연적인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드디어 히브리민족을 출애굽 시키는데 성공한다. 그의 모습에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모세는 이 단계에서 비전 공유의 기법, 담대한 자세, 안정감, 소통의 능력, 추진력과 끈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리더십을 개발시켜 간다.

3.4. 4 단계 성숙 단계(Life Maturing)

이 단계에서 사역은 그 인간 됨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 단계에서 지도자는 사역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이해한다.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자질들과 은사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된다. 이런 일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모델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히 13:7-8). 다른 사람의 은사들이나 그의 삶의 영향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파악하게 하고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강조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숙한 사역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다(Ministry flows out of being). 성숙한 인격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고난에 압도된 나머지 자신이 통과하는 그 고난의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사역 전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인격을 형성해 가신다. 이 발전은 사역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순수한 사랑, 긍휼, 동정심, 통찰력 등 여러 방면에서 깊이를 갖게 하신다. 즉 영적 리더가 자신의 장점에 주력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 동안은 하나님이 주로 리더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점점 리더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깊어지고 인생과 인간관계도 새롭게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위기와 인정, 배신과 의리 등 통상적 경험을 통해 훈련하신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고난의 과정에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많은 것을 좌우한다. 주어진 삶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리더는 보다 성숙한 리더십을 소유하게 된다.

모세는 출애굽한 히브리민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의 행군을 시작한다.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지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열리고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 모세를 원망 하기 시작한다.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분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결국 마라의 쓴 물이 단 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4 단계 성숙 단계(Life Maturing)

<표 7>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 개발론 4 단계 성숙 단계

중요사건	출애굽시작	시내광야에 도착
성경	출 12:37-18:27	출 19:1-2
연대	B.C1446.년	B.C 1446.년
나이	80	81
장소	광야	

모세의역할	광야에서 인도자
경험한일	홍해를 건넘,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옴, 아말렉과의 전투, 백성의 지도자를 세움
리더십개발	영적능력, 권한이양

출애굽 한 둘째 달 십오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도 히브리민족은 이 모든 고생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며 원망한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 년 동안 만나로 먹여 주셨다(출 16 장).

그 후 히브리민족의 광야 행군은 계속되었다.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 지역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다투기 시작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그 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 전투에 참여하도록 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히브리 민족이 이기게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함께 들어 올리게 되고, 히브리 민족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 뿐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까지 수행해야만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재판에 모세는 지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지켜 본 장인 이드로는 왜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느냐 말하며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 부장, 십 부장을 삼아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조언한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백성들 중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그들에게 재판의 권한을 이양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 삼개월이 되던 날 시내광야에 이르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된다.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 영적인 능력과 권한 이양이라는 리더십을 개발시켰다. 홍해 바다의 사건, 마라의 쓴 물,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지만 모세 개인으로 볼 때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사건들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소유하게 되었다. 히브리 민족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에게 있던 권한을 하부 조직에 나누어 줌으로 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만들었다.

3.5. 5 단계-수렴 과정(Convergence)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적합한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하게 하셔서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단계이다. 그간 성장해 온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현재의 성숙한 지도력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게 된다. 동시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은사와 경험 및 기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은 성숙한 인격과 영적 권위가 성공적인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역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분별하여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사역에 활용하는 때요, 그의 재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때이기도 하다. 지도자는 자기에게 은사가 없는데도 사역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스러울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를 향상시켜 최선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인격적인 성숙과 사역의 성장이 함께 만나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다. 지도자의 잠재력은 최대한 드러난다. 현실적인 면에서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이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드러낼 수 있는 직책과 역할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심령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자질들을 구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다.

수렴 단계가 되면 사람과 사역의 경험이 구체적인 직무나 책임으로 수렴되면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곧 전문분야, 즉 최고의 성공을 맛볼 직무나 역할이 된다. 이렇듯 삶과 사역의 경험이 하나의 리더십 역할로 수렴되어, 배우고 빚어진 모든 것이 주어진 역할 안에 훌륭히 녹아 드는 현상은 영적 리더와 세상 리더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역사상 뛰어난 리더들 중에는 인생 후반이 돼서야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 윈스턴 처질은 노년에 비로소 수상이 되었다.

5 단계 수렴 과정(Convergence)

<표 8>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 개발론 5 단계 수렴 과정

중요사건	십계명을 받음	성막의 건축	광야에서의 38 년
성경	출 19:7-34:28	출 36:1-레 8:36	민 10-21
연대	B.C1446.년	B.C 1445.년	B.C1445-1406 년
나이	81	82	82 세-120 세
장소	광야		
모세의역할	광야에서 인도자		
경험한일	십계명을 받음, 성막을 건축함, 장로 70 인을 세움, 메추라기 가나안 정탐과 백성의 원망, 백성을 위한 기도		
리더십개발	원칙의 발견, 전문성을 통한 직무와 역할의 배정, 조직화, 섬기는 마음		

모세는 시내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그런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건축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조직화하게 된다. 12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게 하고 각 지파 별로 임무를 부여한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70 명의 장로도 세우게 된다.

모세는 각 지파의 수령들로 구성된 12 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 40 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열 사람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해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그 땅을 취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이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따라 직무를 배치하고 지파 별로 더욱 세밀하게 책임과 임무를 부여한다. 자신의 권한도 더욱 세밀하게 배분하며 조직화한다. 불순종과 원망으로 진멸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는 리더로서 책임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6. 6 단계 회상 또는 축제의 단계(Afterglow)

전 생애를 통한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하나로 융화되고 인정을 받는 시기다. 긴 생애 동안 맺은 관계들로 인해 광범위한 영역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다. 생애 전반에 걸쳐서 얻은 지혜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고 모범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과업은 없지만,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생에 걸쳐 발전을 허락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삶은 상당 기간 훌륭히 리더 역할을 수행한 리더들에게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또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축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이다. 클린턴은 극소수 사람들만이 여기에 도달한다고 보았는데, 자신의 삶과 조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자신을 드린 열매를 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선 리더들은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와 살아온 삶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게 된다. 이 단계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참된 리더의 주변에는 그가 살아온 삶 만으로도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이 단계에 들어선 리더들에게는 평생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한 증거들이 보여진다.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이 눈에 띌 때 그 주변에 모여들어 그의 신앙 순례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 단계 회상 또는 축제의 단계

<표 9> J. Robert Clinton 지도자 평생 개발론 6 단계 회상 또는 축제의 단계

중요사건	모압 고별 설교
성경	신 1-신 34:8
연대	B.C1406
나이	120
장소	모압, 요단, 느보산
모세의역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경험한일	출애굽부터 가나안땅 까지 과거의 회상
리더십개발	섬김의 삶, 존경

모세의 말년에 모세가 쓴 3 편의 설교가 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방황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었다. 간단한 서론후에 첫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호렙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 시키고, 헤스본과 바산의 정복,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분할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우상숭배를 금지할 것을 강조한다. 이어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한다.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 대한 재 선언과 설명, 그리고 특별한 규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모압 평야에서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는 것으로 마친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율법을 신실하게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백성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설명으로 마감하고 있다.

모세가 히브리민족의 리더가 된 것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의 사명을 완수해 낸 성공적인 리더였다. 아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히브리민족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의 리더십은 삶의 현장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모세의 리더십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계속 변화되었으며 성장했다. 끝없는 변화와 혁신이 모세가 리더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 3 장

성경적 모델

들어가는 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밟고 숨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상황들을 고찰해 보면 대부분 위기의 시기였고 수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 장에서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느헤미야를 살펴볼 것이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 이 세 사람을 이 논문 논지의 모델로 선택한 것은 이들 모두 개인 및 현장 영성 두 면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 내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실재(實在)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으며, 성품과 헌신의 면에서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세 인물은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개인의 삶에서 신앙을 따라 살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맡겨진 신앙 공동체를 수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었다. 즉, 그 시대 속에서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공동체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느헤미야의 순서로 이들의 개인 영성과 더불어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들의 자질을 살펴 볼 것이다.

I. 모세의 개인 및 현장 영성

왜 모세인가? 이 시대가 문화와 문명은 발달했지만 모세가 거하던 광야와 유사한 점들이 매우 많다. 광야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기후를 비롯한 환경, 외부의 적들, 내부의 어려움들 등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곳이다. 2010 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21 세기를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a.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
b.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예기치 않은 일의 발생- 새로운 세상에서는 과거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c. Teamwork & Communication 팀웍크와 소통: 새로운 생활방식과 의무, 규칙 등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세상에 살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d.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 그래서 항상 Re-think, Re-design, Re-build 를 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광야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던 여정이었다.

리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요소로서 말씀과 기도, 순종을 언급했다.[61]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의 특징 여덟 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첫 일곱 특성은 출애굽기를 근거로 하였고, 모세의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인 결단하는 리더십은 히브리서 11 장 말씀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러한 여덟 가지 영적 리더십이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광야라는 현장에서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탁월한 리더십은 이론으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특히 광야 같은 불확실성과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야 비로소 그 리더의 자질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결단의 리더십

먼저 모세의 현장 영성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단이다. 모세의 결단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은

[61] LeRoy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네비게이토출판부 역, 33.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과정을 묘사한 히브리서 11 장 말씀에 기초하여 살펴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 장 24-27 절은 모세의 결단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 "히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출애굽기 2 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읽으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바로의 노여움을 샀기에,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애굽을 떠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사건을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그것도 모세가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듯이 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일과 델리취(C. F. Keil & F. Delitzsch)는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 자체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비겁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남으로써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 모세는 그냥 애굽에 남아서 왕의 진노를 무마시키고, 오히려 왕자라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을 도와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의 그의 지위를 포기해 버린데서 바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가 이런 인간적인 소망 때문에 그대로 애굽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또 그가 도망함으로써 왕의 진노를 더욱 가중시킬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해서, 모세는 자기 뿐 아니라, 억압 중에 있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을 마치 보기나 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 보였다.[6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세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

[62] C. F. Keil & F. Delitzsch, C. F. Keil & F. Delitzsch,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s(v.2))*, 김득중 역, 34.

아들', 이는 곧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바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안락과 화려함, 쾌락을 모두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그것을 모두 '죄악의 낙'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기서 '좋아했다'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즐거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장차 올 메시야,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다. 즉 이 고난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이라 생각했으며, 이 능욕은 비록 고난일지라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 다시 말해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모세의 영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그의 영적 가치관이 결국 그를 결단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믿음의 결단은 바로 영적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케 된다. 그리고 리더에게 이 영적 가치관과 그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보게 된다.

2. 신적 소명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에 기초해야 한다. 모세 또한 그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택하셨다.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셨으며,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애굽 왕궁에서 40 년, 미디안 광야에서 40 년을 훈련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로 믿음의 결단까지 했는데, 무슨 소명이 또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과정이 끝난 80 살이 된 모세를 기이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가 내면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부름 받은 자이다', 즉,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확신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한다.

모세의 소명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아더 핑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끄집어 내고 있다. 즉 모세는 그의 중대한 사역을 받아 보냄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도 열납 되기에 합당하게 섬기려면 먼저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섬김을 위한 본질적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63]

그의 이 말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내적 확신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이 목회자로 세움 받을 수는 없다. 목회자로 부르심에는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소명에 대한 확신이 영적 리더십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또한 영적 리더십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바로 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야 거기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스윈돌의 지적처럼 보내심을 받기 전에 달려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64]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할 필요가 있다.

3. 능력

모세의 영성에 있어서 두드러진 부분은 바로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자기 확신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도 전에 달려 나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모세는 쓰라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움추러 들고 뒤로 물러가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겸손히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63] Arthur W. Pink, *출애굽기 상(Gleanings in Exodus)*, 지상우 역, 42.
[64] Charles R. Swindoll,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사람 모세(Moses: A Man of Selfless Dedication)*, 곽철호 역, 155.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모세가 80 년이라는 시간 뒤에 드디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밖에 없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부르심과 함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확신을 주시고, 지금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의 표적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을 열 가지의 재앙으로 차례차례 징계하셨다.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애굽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이 표적들을 통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에 그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시고자 하셨다.[65]

이처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모든 표적들 뿐 아니라, 200 만 정도로 추정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와 시내 광야 40 년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았던 것이다.

4.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공동체에 대한 방향제시

목회자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 개인적 욕망이나 공동체의 이익에 기초한 목표와는 구별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모세는 그 뜻을

---

[65] C. F. Keil & F. Delitzsch, C. F. Keil & F. Delitzsch,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s(v.2))*, 김득중 역, 55.

섬기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으며, 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하게 지도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를 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뜻과 소원은 출애굽기 19 장 5-6 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Segulla)로서, 본래 '감추어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 의미에서 좀 더 발전하여 은이나 금과 같은 값진 보물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66] 즉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국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값진 보배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놀라운 소망을 품으셨다.

하나님의 이 비전은 먼저 모세의 것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했다. 오브리 맬퍼스는 사역의 리더는 비전이 분명해야 하며, 또 그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 공동체도 함께 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67]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고, 백성들에게 이를 선포하였다(출 4:29-31).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어렵고 험난한 40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 비전을 붙들었으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하게 도전했다.

비전은 어려움이나 난관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는 바로 이러한 비전을 소유해야 한다.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굳게 붙들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리더십은 비전의 리더십이었으며,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었다.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도록 한 것이다. 비록 출애굽 1 세대는 불신으로 인해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가 품었던 비전은 여호수아와

---

[66] C. F. Keil & F. Delitzsch, C. F. Keil & F. Delitzsch,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s(v.2))*, 김득중 역, 217.
[67] Aubrey Malphurs, *리더가 된다는 것은(Being Leaders),* 248.

갈렙 장군, 그리고 광야시대 2 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 비전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긴다.

5.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상(image)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출애굽기 33 장 11 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또 민수기 12 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모세를 위해 친히 변명하신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민 12:8)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자신과 대면하여 대화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34 장 10 절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그의 삶을 총결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동시에, 또한 모세의 간절한 영적 소원 때문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33 장 18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온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원했다.[68] 이에 하나님은 전부를 다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영광의 작은 부분을 그에게 보여 주신다(출 33:19-23).[69]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더 깊고 풍요로워지게 된다. 그리고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 이처럼

[68] 이동원, *모세 : 주께서 친히 아신 사람*(서울: 나침반사, 1988), 240.
[69] 이동원, *모세 : 주께서 친히 아신 사람*, 241.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렘 29:13).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로 감싸주시며,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체험하도록 하신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시간에 힘써야 한다. 바로 거기에서 목회자의 영성이 나오며, 또한 바른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6. 말씀의 리더십

모세는 또한 말씀의 리더였다. 그는 이스라엘 율법의 선포자로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섬겼다. 영적 리더십은 바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석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라는 말씀, 즉 자기 자신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백성들의 편에서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한 실제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70] 다시 말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친히 주셨다.

출애굽기 24 장 12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잘 명시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면에 찌들어 있는 노예근성을 모두 제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운 자들로 빚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코자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출 19:5)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

[70] C. F. Keil & F. Delitzsch, C. F. Keil & F. Delitzsch,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s(v.2))*, 김득중 역, 236.

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리더십은 바로 말씀의 리더십이라 하겠다.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성경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책으로서 영적 리더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야만 한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회중에게나 각 개인에게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다면 진리를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71] 이처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때, 그에게서 영적 리더십이 나온다. 다시 말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 바로 여기에 영적 리더가 먼저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7. 중보기도

리더로서 모세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결국 기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모세의 중보기도(출 32 장)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다. 출애굽기 32 장 7 절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모세에게 알리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출 32:11)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네 백성' 이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

---

[71] LeRoy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146.

간접적으로 반박한다. 모세의 말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는 '네 백성'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암에카'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 모세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암에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다시 그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암에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단어인 '암에카'를 써서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상대방의 백성이라고 미루고 있다.[72]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원수들의 조롱만 사게 될 뿐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될 것이라면서(출 32:12),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며(출 32:13), 그 약속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모세의 지혜가 또 돋보이는데,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현재의 민족 이스라엘을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즉 야곱이 가진 약속과 결부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변개치 못할 약속임을 강조하였다.[73]

무엇보다 출애굽기 32 장 31-32 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절정을 이룬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기에서 '책에서 이름을 지워 버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교로부터,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나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에로 넘겨지는 것을 의미한다.[74] 모세는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한 참된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만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

[72] 박철현, "황금 송아지 이야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 출애굽기(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3), p.185.
[73] 박철현, *"황금 송아지 이야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86.
[74] C. F. Keil & F. Delitzsch, C. F. Keil & F. Delitzsch,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s(v.2))*, 김득중 역, 372.

않으신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75] 이러한 모세에게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모세는 기초 없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그 백성들과 생명이 결탁되어 있었다. 그랬기에 그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으며, 진멸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76] 따라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나타난다. 맡기신 자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 리더십만의 탁월함이다.

8. 섬김

모세의 또 하나의 탁월함은 바로 섬김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동시에, 그들의 목자였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맡아 섬긴 목자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430 년의 종살이로 인해 내면이 천박하고, 때마다 노예근성을 드러내는 기초 없는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을 통해 출애굽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 기뻐하며, 온 백성이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곧 이어 수르 광야에 이르러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는 형편없는 백성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에,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 만나를 갑절로 거두었다가 다음 날 다 썩어 버리게 하며,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등, 불순종과 탐욕, 게으름으로 찌들어 있던 힘든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노예근성과 불신앙 등은 열거하기가 힘들만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

[75] C. F. Keil & F. Delitzsch, C. F. Keil & F. Delitzsch, *카일 델리치 구약 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s(v.2))*, 김득중 역, 372.
[76] 이동원, *모세 : 주께서 친히 아신 사람*, 239.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초 없는 노예 백성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겸손으로 그들을 섬겼다. 모세는 그들을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들을 참아내며 인내로 그들을 섬겼다. 이런 모세의 섬김의 내면은 바로 40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며 형성된 것이다.

겸손과 온유함은 섬김의 리더십의 근본적 요소이다. 바른 섬김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품고, 목자와 같이 그들을 섬겼다. 그리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그 죄성으로 인해 여러 번 은혜를 번복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평, 원망으로 범죄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기고자 힘썼다. 백성들을 낮아져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 가도록 돕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무엇보다 모세의 섬김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내면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섬김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도 섬김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리더십에서의 섬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영적 리더십에서의 섬김이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섬기는 것이요, 죄를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섬김은 무조건 낮아져서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겸손과 사랑으로 그 내면을 감당할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면의 죄에 도전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러한 섬김에서 참된 영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나가는 말

이상으로 모세의 리더로서의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을 여덟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영적 리더십의 성경적 원리와 요소에 기초해서 볼 때, 모세의 리더십은 리더십의 원형이라고 할 만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른 리더십인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적 가치관에 기초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내적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의지하는, 또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뜻과 목적을 섬기고자 하는 영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에 힘쓰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세의 영성은 모두 가장 급박한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였다는 사실이다. 영성은 현장에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량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인간적 욕심 가운데 세상이 제시하는 인기 있는 세속적 리더십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리더십에 관심 갖고, 성경에 기초한 참된 리더십을 정립,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II. 다윗의 개인 및 현장 영성

들어가는 말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은 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우선적인 자질로 영성(spirituality), 겸손 (modesty), 그리고 진실함(integrity)과 성실성을 말하고 있다.[77] 스윈돌의 지적처럼 다윗의 리더십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살았던 다윗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영성의 핵심 요소로서 세상의 CEO 와 목회자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요소이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모욕을 당할 때 표출된 그의 분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77] Charles R. Swindoll,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II (찰스 성경연구 11)*, 이종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138.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친 고백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는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에게까지 간접 살인죄를 짓게 되었으나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피조물인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용서와 관용의 성품을 가졌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울왕을 두번이나 살려 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다윗의 믿음인 동시에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찬양의 사람이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은 그가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인생의 밑 바닥에서도,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한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보여 주고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는 왕의 신분도 체면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다(삼하 6:14).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건져 낼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철저한 청지기적 책임감을 보셨고 그를 자신의 백성을 맡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의 이러한 깊은 영성은 왕으로 훈련되는 과정에서, 또 왕이 된 후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마다 여러 상황의 갈등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곤 하였다. 개인으로서는 개인 영성만 탁월하면 좋은 믿음과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리더, 한 국가의 왕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세워나갈 역량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비록 시작은 목동으로서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로 세운, 즉 탁월한 현장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후에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윗이 갈등을 해결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탁월한 현장 영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지역 갈등을 위한 포용의 리더십 (삼하 19:8~43; 삼하 20:1~22)

1.1. 문제제기

다윗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거대한 제국과 같은 국가를 이룩하였다. 동쪽으로는 동부 요르단의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을 합병하였고, 서쪽으로는 시돈과 두로를 제외한 전 해안 지역이며, 남쪽으로는 아카바만으로부터 이집트 강(Wadi el-'Arsh) 하구의 지중해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단 지역까지 확장되었다.[78]

이러한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하나의 국가 속에 묶여지면서 다윗 왕국은 불안정한 정치 구조를 이루었고, 또한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들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알베르츠 (R. Albertz)[79]는 이스라엘 초기 왕권에 대하여 세 집단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였다고 주장한다:

(1) 왕권을 선전하는 집단(관리, 군인, 제사장, 직업적 예언자)
(2) 왕권을 옹호하며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전하려는 중간집단
(3) 왕권을 거역하고 투쟁하는 집단

사무엘하 15-19 장은 압살롬의 반란을 기록하고 있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보도의 끝 부분(삼하 19: 8-43)에 다윗과 그 일행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을 묘사하며, 동시에 압살롬 반란 이후에 다윗이 취한 사후 조치를 설명한다. 그리고 사무엘하 20 장 1-22 절에서는 세바의 반란을 보도한다.

이 두 반란은 단지 정치 지도자들의 야심에서만 발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기에 일어났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별감을 느낀 북 지파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반란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차별감은 유다 지파의 주민들에게도 있었다. 다윗은 반란의 뒷

[78] 한동구, *고대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7.
[79] R. Albertz, *Religiongeschichte Israel in alttestamentlicher zeit* 1(ATDE Bd. 8/1), Göttingen: Vandenhoeck & Reprecht 1992, 171f. 한동구, *고대이스라엘의 사회사,* 47 에서 재인용.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갈등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1.2. 지역분열 극복을 위한 다윗의 포용의 리더십

압살롬 반란(삼하 19: 8-43)과 세바의 반란(삼하 20: 1-22)은 다윗왕국 내에 있었던 서로 합칠 수 없었던 인구 집단들과 내적 긴장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적 긴장들은 유다 지파 내에서의 갈등, 유다지파와 북지파들과의 갈등 그리고 북지파들의 반란 등이다. 이런 갈등들을 다윗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 된 후에, 이스라엘 부족들 사이에는 압살롬의 아들과 아마사를 압살롬의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봉합하고,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한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압살롬을 지지하였던 옛 헤브론 시절부터의 동료들과 유다의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골육'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유다지파에게 자신의 재추대를 호소하였다.

또한 다윗은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삼하 17: 25) 아마사를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협상도 한다. 다윗은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매"(삼하 19: 14)라고 기록한 것처럼,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 세력을 대표하는 3 명의 사람을 만난다. 시므이와 므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래이다.

시므이는 다윗을 만나러 가는 길에 시바를 포함한 영향력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한 무리를 데리고 간다(삼하 19: 17). 시므이는 이전에 다윗을 적대했던 그만큼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다윗을 지원하는 첫 번째라는 점을 암시하였다(삼하 19: 19-20). 시므이와의 첫 만남에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아비새는 이전처럼 행동한다(삼하 19: 21). 예전에 그의 행동을 제지하였던 다윗은 다시금 제지하면서, 더 실천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삼하 19: 22)이므로 시므이는 이제 다윗의 적대세력이 아니라 신하이므로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무엘하 16 장 1-4 절에서 시바는 므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을 사울의 왕좌를 복권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였다고 보고 했었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토지를 취하여 시바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므비보셋은 다윗을 위한 깊은 애곡 가운데 보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삼하 19: 24). 므비보셋은 자신과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의 너그러움으로 살아갈 뿐 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절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또 므비보셋의 대답은 섬세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언어는 충성과 순종과 복종과 존경의 언어로서, 반복적으로 다윗을 '내 주 왕' 이라고 호칭하였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자료만으로는 명쾌한 결론을 끌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므비보셋은 정직하고, 속임수를 편 사람은 시바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만남은 바르실래와의 만남이었다. 바르실래는 길르앗의 부유한 지주로서, 북동쪽의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공동체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르실래는 일찍이 다윗의 전투부대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보급한 일이 있었다(삼하 17: 27-29). 다윗이 복귀하는 길에, 바르실래는 다윗에 대한 지원을 공공연히 나타냈다(삼하 19: 31). 다윗은 바르실래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였지만(삼하 19: 33), 바르실래는 거절한다 (삼하 19: 34-35). 바르실래는 자기 대신에 아들 김함을 추천한다. 김함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서 다윗과 굳게 동맹한 강력한 정치적 힘의 상징이 되었다. 다윗이 그의 통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바르실래를 은혜와 감사로 기억하였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왕상 2: 7).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오래된 그리고 골이 깊은 부족적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북쪽 사람들은 사무엘하 19 장 14- 15 절에서 남쪽 사람들이 주도권을 쥔 데 대해 분개하였다(삼하 19: 41). 남쪽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네들의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혜택은 당연하다고 여겼다(삼하 19: 42). 북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왕국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하며, 또한 다윗이 복권하도록 첫 번째로 압력을 넣은 것은 자기들이라고 주장하였다(삼하 19: 43).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었다. 분열의 조짐은 항상 있었으나, 다윗은 이러한 갈등을 포용의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아벨시를 장악하고 있었다(삼하 20: 14-15). 먼저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 의무를 부여하였으나(삼하 20: 4), 아마사는 지체시킨다(삼하 20: 5).

다윗은 아비새와 요압의 지휘 아래 가장 용맹스러운 용병을 파송한다 (삼하 20: 7). 아비새의 임무의 목표는 세바와 베냐민 지파의 도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요압은 이 세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포위하였는데, 현명한 여인이 끼어들었다(삼하 20: 16). 그 여인은 요압에게 아벨은 오래되고 존경받는 도시임을 주지시켰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같은 성으로서, 사람들이 인도와 안녕과 생명을 기원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삼하 20: 18-19).

요압은 도시에 대한 적대감이나 파괴시키려는 욕망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다만 반역자 세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를 원하였다. 여인은 세바를 넘겨줌으로써 도시를 구하기로 동의하였다(삼하 20: 22). 반란은 종결되었으며, 요압은 예루살렘의 왕에게로 돌아왔다. 성경은 다윗과 아벨 성과의 갈등이 아니라 세바와 다윗간의 갈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윗의 부하인 요압은 아벨 성을 포용하였다. 이것은 다윗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경제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공평한 분배의 리더십 (삼상 22:1~2; 30:1~30)

2.1. 문제제기

사무엘상 22 장 1-2 절은 다윗 시대에 이미 경제적 양극화의 현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사회로 전환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겪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구별이 뚜렷하여 양극화 현상이 점차 대두되게 되었다. 사무엘상 22 장 1-2 절은 다윗 시대에 이미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나타난 무리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사 시대와 사울 왕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경제적 약자가 되었고 또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다. 이들은 '환난 당한 자'(삼상 22: 2)와 '마음이 원통한 자'(삼상 22: 2) 그리고 '빚진 자'(삼상 22: 2)로 묘사된다.

또한 다윗 주위에는 위에 언급된 경제적인 약자들이 모여 들었고, 다윗은 추종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사무엘상 30 장 1-30 절에는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족이 부녀자와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과 함께 600 명이 추적하다가 200 명이 기진 맥진하여 뒤에 남겨 놓고, 400 명만 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되찾은 가족과 재물 뿐 아니라 아말렉에게서

전리품으로 빼앗은 물건을 배분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즉 경제적 분배의 문제로 인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을 지키고 있던 200 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배분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다윗은 군사적인 힘과 위치로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세워서 다스린다. 경제적 분배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다윗은 공평한 분배를 제도화하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한다.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 하는 다윗의 리더십을 사무엘상 30 장 1-30 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2. 경제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다윗의 분배 정신

다윗이 전투에 참여한 자나 뒤에 남아 있던 자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신학적 논거이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었고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전선에서 싸운 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러므로 전리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관습은 성경에서 몇 차례의 예가 등장하지만 사무엘상 30 장의 전례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분명한 관습'으로 만든 것이며, 왕 같은 지도력을 보여주고, 왕의 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는 클레인(R. W. Klein)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이다.[80] 그러나 클레인은 '해설자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의 왕이 된 시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 양쪽을 통합하려는 다윗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헤르쯔베르그(H. W. Hertz- berg)가 주장하듯이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5 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반면에 다윗은 성공하였다'로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아말렉은 왕들의 역사 시작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81]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남과 북의 왕이 된 이후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초기의 남과 북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80]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0*,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478.

[81] Hertzberg, H.W., *I & II Samuel*. A Commentary (Tr. J.S.Bowden), (London: SCM Press Ltd., 1964), 226.

3. 고대 사회 성적 차별에 대한 지혜의 리더십(삼상 25:1-35)

3.1. 문제제기

사무엘상 25 장 1-35 절에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한다. 역사가는 다윗의 성공의 요인을 군사적 요인과 함께 다윗의 지혜로운 리더십에서 찾고 있다. 다윗은 경황없이 도망가는 중에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82] 다윗은 무수한 역경들을 극복하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왕으로 칭송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군사적 성공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그는 삶의 고비 고비마다 지혜신학의 가르침을 따라 가면서 동시에 군사적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다.[83]

구약성서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은 법적으로 남성의 지배를 받았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 의해, 결혼 후에는 남편에 의해 그리고 과부가 되었을 때는 자녀가 없는 여성은 남편의 형제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여성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증서를 받아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받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민 27: 1-11)[84]

3.2. 상황전개

사무엘상 25 장은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을 찾아가 양식을 청하자, 나발이 모욕적으로 거절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로써 갈등이 전개되었다.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하여 다윗의 분노를 가라 앉히고자 하였다.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고, 아비가일의 호소를 다윗이 받아 들임으로서 다윗은 복수로 인해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복수를 여호와께 맡기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므로 갈등이 해소되고 이야기는 종결된다.

3.3. 성적 편견을 극복하는 다윗의 지혜

---

[82]한동구,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나타난 지혜사상"* 바른신학과 교회갱신, 이종윤목사 고희기념논문집, (서울: 필그림출판사, 2010), 2.
[83] 한동구,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나타난 지혜사상(삼상 25 장),"* 3.
[84] S. 니디치, *"히브리인의 성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초상화,"* 장춘식 역, 한국여성신학 41 호 (2000 년 봄), 106-107.

본문이 보여 주는 다윗은 당시 고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있다. 당시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충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 남성 중심의 사고 구조에서 여성의 충고를 수용하는 것 또한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다. 편견을 깨고 열린 사고로 듣는 마음이 아니라면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성적 편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나발은 매우 감정적 인물로 다른 사람을 쉽게 노하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자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이름에서 보듯 그는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여성으로, 필요할 때 신속하게 마땅한 조치를 취할 줄 아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분노한 다윗에게 신속하게 풍성한 예물을 보내어 일단 분노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하여 분노의 칼부림을 피하게 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아비가일의 충고를 받아들여, 모든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였다. 그는 피를 흘리는 복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 준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비가일에게 감사한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을 수용함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킨 것이다.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과 나발의 갈등 그리고 다윗과 사울편에 서 있는 갈멜 가문과의 갈등을 극복하게 된 것이다. 다윗은 당시 당연시 여겨지던 여성 천대의 문화와 성적 차별의 문화를 극복하고, 여성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인 지혜로운 리더자였다.

4. 사회 통합을 위한 형제애 리더십 (삼하 23:13-17)

4.1. 문제 제기

다윗의 군사적 성공은 군대 조직의 개편을 가져왔을 것이다. 다윗 이전에는 주로 징집부대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다윗은 옛 징집 부대와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로 개편하였다(삼하 15: 18 절이하; 23: 13 절이하; 15: 19 절이하). 다윗은 이런 군대 조직의 개편을 통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삼았다.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만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되었기에, 점점 조직이 확대되었고,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85] 행정관리 조직도 확대되어(삼하 8: 15-18, 대상 18: 14-17, 삼하 20: 23-26,

[85] 한동구, *고대이스라엘의 사회사*, 49 쪽.

왕상 4: 1-6, 7 이하, 왕하 18: 18), 가족이나 가문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충복의 관계만 성립된다.[86]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브루지만(W. Bruegemann)은 이렇게 요약한다.

"다윗 이전의 자료에서는 하나님 중심이었으나 다윗 자료에서는 제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 바뀌었다."[87] 다윗은 주위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윗은 추종자들 위에 군림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였다. 그 예를 사무엘하 23 장 13-17 절에서 볼 수 있다. 다윗은 다른 열방의 왕처럼 자신의 부하 군사들 위에 군림하기를 거부하였다. 자기 자신의 요구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들의 인간성을 대치하지 않았다. 사무엘하 23 장 13-17 절은 다윗의 용사들(삼하 23: 8-39)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는 한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윗의 초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생각을 알고, 3 인의 용사들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은 용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4.2. 상황 발생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블레셋 군이 침입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삼하 23: 13). 용사 삼십인 중에서 삼인의 용사가 다윗에게 나아갔다(삼하 23: 13). 이 때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마시고 싶어 하였다 (삼하 23: 15). 이 말을 들은 삼인의 용사들이 블레셋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 와서 다윗에게 가져왔으나(삼하 23: 16), 다윗은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삼하 23: 16). 삼인의 용사들이 떠온 물은 그들의 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삼하 23: 17).

4.3. 형제애 리더십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지만 다윗은 감사 이상의 표현으로 '그 물을 땅에 붓는다'. 이것을 브루거만(W. Brueggemann)은 '성례전적인 상상력'이라고 표현한다. 다윗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자신과 부하들의 결속을 더럽히는 것으로 받아

---

[86] 한동구, *고대이스라엘의 사회사*, 50 쪽.
[87] W. Bruegemann, *지혜전승연구*, 장일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40 쪽.

들였다. 그래서 다윗은 물을 땅에 쏟음으로서 부하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이룩하였다. 이 이야기는 '짐 지우지' 않는 힘과 권위를 반영하며, 성경 저자는, 신뢰할만한 순진성을 가진 다윗, 평등주의적인 예민성을 가진 다윗, 연대감을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더 높이 평가하는 다윗을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윗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고,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매우 다른 맥락에서 다윗은 우리보다 만 배나 더 값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윗은 여기에서 부하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본인이 높임을 받고 축하 받지는 않는다.[88] 군신간의 관계이지만, 부하를 사랑하는 다윗의 위대함 즉 형제애를 볼 수 있다. 이런 형제애를 통해서, 군신간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해 나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제애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시킨 다윗의 위대한 리더십을 볼 수 있다.

5. 신의 통치를 수용하고 낮아짐을 추구한 리더십(삼하 6:1-23)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권력 앞에서 강요된 복종이나 이기적 욕망으로는 사회통합이 어렵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인간적 권력의 절대화를 배제하고 모든 정치적 권력을 하나님의 통치 하에 두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시킬 때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 시대의 사회통합이 오늘날의 행정적 통합 만을 추구하는 사회통합에 의미 있는 자극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윗은 항상 그의 정치적 권력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고자 했다. 이점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하 6 장 1-23 절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법궤 이야기는 다윗의 합법화와 다윗 제국의 정치적 통합의 목적을 추구하였다는 주장도 있다.[89] 즉 고대 근동의 왕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임으로서 다윗 왕국의 신학자들은 법궤운송을 통하여 왕국통치의 종교적인 합법성을 찾고자 하였다는 주장이다.[90] 그러나 고대 근동의 왕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

[88] W. Brueggemann, *사무엘상하,* 512-513.
[89] 이희학, *"구약성서의 법궤신학,"* 신학과 현장 제 9 집, (목원대학교 부설 신학연구소, 1999), 275-302.
[90] 이희학, *"구약성서의 법궤신학,"* 275-302.

받아들여 왕국 통치의 합법성을 찾고자 했다면, 법궤운송 과정에서 웃사가 죽고 오벧에돔의 집에 3 개월간 머물게 된 실패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의 실패한 부분까지 기록했다면, 다윗을 미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궤 운송이야기의 강조점이 다윗에게 없다면, 무엇을 강조하고자 기록하였을까?

또 다윗이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91] 그러나 사무엘하 6 장 9-10 절에서는 옮겨오지 못하였는데, 사무엘하 6 장 15 절에서는 옮겨 왔다. 법궤를 옮길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언제 얻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법궤 운송 과정에서 죽은 웃사와 저주받은 미갈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로서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다윗은 신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한다. 이것은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옴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며, 신의 통치 앞에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을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과 동등하게 놓고 나라를 섬긴, 낮아짐을 추구한 리더십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나가는 말

다윗이 왕으로 부름 받은 현실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길고 긴 세월을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생사를 넘나 드는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다.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은 잘 교육받고 좋은 성품으로 닦여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삼상 22:2)가 말해 주듯이 험하고 거칠고 상처가 많은 밑바닥 인생들이었다. 다윗은 이러한 무리들의 마음을 통합하여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였다. 왕국 건설의

[91] 이희학, *"구약성서의 법궤신학,"* 275-302.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 종류의 갈등 요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 수 있었다.

목회자 또한 주어진 공동체를 섬길 때 많은 장애물과 예기치 않았던 갈등들을 만나게 된다. 이 때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의 갈등을 풀어야 공동체는 전진할 수 있다. 목회자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광야와 같은 험하고 거친 목회 현장이지만 리더의 현장 영성 여부에 의해 역사상 가장 쓰임 받는 일도 가능하다. 따라서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 역량을 함양(涵養)하는 일에 힘 써야 한다.

III. 느헤미야의 개인 및 현장 영성

들어가는 말

느헤미야는 B.C.586 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태어난 유대인이었다.[92]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이며, 그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이다(느 1:1). 느헤미야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 모두 '야'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가문이 유대의 정통적 신앙을 충실히 지켰던 집안임을 가리킨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93]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B.C.425-465)의 술관원이었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약간 천박한 직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술관원 직책은 황제 또는 왕이 정적에 의해 독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부터 생겨난 직책이었는데, 술관원은 술을 돌보고 그것이 왕에게 드려지기 전에 안전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맛을 보도록 지정된 자로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야 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처음부터 왕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군주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 사이에서도

---

[92] James Montgomery Boice,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Nehemiah: Learning to Lead)*, 이건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8.
[93] '느헤미야',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3 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p747.

누구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94] 게다가 왕과 술관원 사이에는 친밀감이 형성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상호 신뢰에 의해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왕후 다음으로 군주와 가장 친밀한 접촉을 하였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로 부상하였는데, 이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운 시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C.586 년 바벨론 제국의 느브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멸망시켰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로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의 포로수용소에서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말 그대로 유대 땅은 소위 "Killing Fields"가 되었다. 역대하 36:17-20 은이 참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 대하 36: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 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B.C.538 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페르시아)제국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B.C.536 년에는 바사 왕 고레스의 호의 아래 다윗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일단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 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였다. 성전 재건에는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지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한 후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바람에 순탄히 진행되어 25 년만인 B.C.515 년에 완성되어 하나님의 예배 장소인 새로운 성전이 봉헌되었다. 유대인들은 왕정 복구의 희망을 가지고 귀환하였을지 몰라도,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인 유대의 왕정 복구를 허용할 수는 없었다. 결국 다윗 왕조의 부활이 무산되면서 페르시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공동체 재건 사업에 관심을 잃게 되었으며 포로 생활의 현실에 만족해야 했다. 그 후 에스라가 귀환할때까지의 60 년은 유대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더 무력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95] 이 시대 영적 모습은 성경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94] James Montgomery Boice,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Nehemiah: Learning to Lead),* 이건일 역, 18-19.

[95]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에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579.

자기 직무에 싫증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병들과 흠있는 짐승들을 바치면서도 잘못으로 생각지 않았다(말 1:6-14). 더욱이 율법을 집행할 때 편파적인 처신을 함으로서 성직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말 2:1-9). 일반 사람들도 안식일을 무시하고 버젓이 장사를 하였다(느 13:15-22). 평신도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들은 생계 마련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버려야 했다(느 13:10 이하).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약화는 사회의 윤리와 개인의 도덕적 문란을 초래하였다. 이혼이 성행하였으며(말 2:13-16), 가난한 이들은 흉년으로 인하여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때 자기 전답을 저당 잡혔다가 강매당하며 자녀들은 노예로 전락하였다 (느 5:1ff). 더욱이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유대 공동체의 순수성 보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느 13:23-27).[96]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에 등장한 개혁가 에스라는 B.C.458 년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제 2 차 포로귀환) 성벽 재건을 시도하였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패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좌절 상태에 있었다. 에스라의 성벽 재건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는 재건한 성벽을 왕의 지시로 다시 헐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성벽과 성문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느헤미야가 맞딱드린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의 극심한 공격과 내부의 여러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52 일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였으며,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일에 크게 기여 하였다.

느헤미야서는 낙심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안팎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국을 성벽 재건을 이루어 낸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 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신앙,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역사의식, 안팎의 어려움들을 돌파한 지혜와 통찰력, 낙심한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던

[96]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몰가까지: 구약 역사서에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580.

탁월한 조직력과 추진력, 또한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되었던 솔선수범 등 느헤미야의 탁월한 내적 외적 역량들을 살펴 볼 수 있다.

1.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동질감

느헤미야서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전해 준 비보로 시작된다(느 1:2, 7:2).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퍼"(느 1:4)했다. 이것은 백성들의 아픔에 대한 마음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 그 이름이 경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기도 하다.

2.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지

느헤미야서에는 열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느 1:5-10; 2:4; 4:4, 9; 5:19; 6:9, 14; 9:5 이하; 13:14, 22, 29, 31).

2.1. 1:4-11 의 느헤미야의 기도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난 후 올려 드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성경의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다.[97] 그의 기도는 자기가 다가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98]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집중하는 기도였다.[99] 둘째,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도 있음을 자백하였다.[100] 제임스 보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이러한 죄들을 시인할 때 자신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요, 그들의

---

[97] 이동원,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사람-느헤미야*, (서울: 나침반, 1997, 18 판), 17.
[98]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이석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23.
[99] J. Stuart Avery,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참 지도자론(Nehemiah: An Effective Leader)*, 김태복, 권태헌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5), 41.
[100] J. Stuart Avery,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참 지도자론(Nehemiah: An Effective Leader)*, 김태복 외 역, 43.

>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이요, 나의 죄 때문에 내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다."[101]

즉, 그는 다른 이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다. 셋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느 1:8-9).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다. 넷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102]

2.1. 느 2:4 의 기도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4 절) 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은 매사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결정했음을 보여 준다.

2.2. 느 4:4-5 의 기도

암몬사람 도비야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느 4:4)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건축하는 자신들에 대한 모욕은 자신들에게 건축공사를 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런 기도의 형태는 구약성서에서 결코 드문 것이 아니다.[103]

2.3. 느 5:19 의 기도

느헤미야는 사욕이 없었다. 자기 동포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형제들이 누릴 특권을 포기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을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복 주심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2.4. 느 6:9 의 기도

---

[101] James Montgomery Boice,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Nehemiah: Learning to Lead),* 이건일 역, 27.
[102] J. Stuart Avery,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참 지도자론(Nehemiah: An Effective Leader),* 김태복 외 역, 45.
[103] 참고 예레미야 11:20.

산발랏과 그 동무들은 거듭거듭 느헤미야를 겁주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마다 주변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2.5. 느 6:14 의 기도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댜와 그 남은 선지자의 악한 소행(所行)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이행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기도와 계획의 균형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면 왕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획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즉 그는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중건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존 화이트(John White)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왕의 물음에 대한 그의 응답은 사전에 미리 생각해 놓은 것들이었다. 그는 이미 생각해 놓은 것들을 거기에서 꺼내 놓았다. 그는 모든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 놓았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 즉 일정 기간 자신의 직무를 쉬고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 받는 일, 안전한 여로를 보장받기 위해 그가 지나가게 될 지역의 지방 관리들에게 내 보일 봉인된 왕의 편지("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 느 2:7"), 그리고 예루살렘의 문들과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징발하기 위해서 왕실의 산림지기 아삽에게 보내는 편지("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느 2:8") 등에 대해서 생각했으며, 그는 마치 쇠가 달구어졌을 때 내려치듯이 왕에게 즉시 자기의 청원 사항들을 아뢴다.[104]

느헤미야는 이미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알고자 할 때 즉시 대답할 수 있었다.

4. 윗 사람과의 관계

---

[104]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이석철 역,

느헤미야의 경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평소에 못 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운동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스 4 장).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격노하게 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 오히려 '자기 열조의 성읍의 곤경'이라고 말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왕의 마음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은 조상의 묘를 극진히 아꼈기 때문이다.[105]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대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표현한 것은 왕의 허락을 받는 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똑 같은 장소이지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느냐가 왕의 마음이 거부감이 없이 허락하도록 했던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이 좌우한다. '한 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말 속담이 있듯이, 목회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늘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중함과 지혜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된 것이다.

5. 리더의 역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

느헤미야서 2 장 17-18 절은 느헤미야가 유다백성들에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다. 앤디 스탠리는 이 짧은 인용 구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였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였다(느 2:17). 둘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앤디 스탠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

[105] Paul E. Engle, *당신의 지도력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The Governor Drove Us up the Wall: A Guide to Nehemiah),* 황성수 역, (서울: 나침반사, 1993), 27.

>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실체를 넘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전은 언제나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 비전 제시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그림을 말로서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106]

셋째, 느헤미야는 "자, 예루살렘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 2:17)라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앤디 스탠리는 성공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일이며,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비전에서 '무엇을' 이라는 의미 뒤에 숨은 '왜'라는 의미를 발견하라. 그러면 '해야 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또 일단 '왜'라는 의미에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의 말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107]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타이밍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느 2:18).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지금이 바로 성벽을 지금 재건해야 하는 이유였던 것이다.

6. 시스템 수립, 목표를 위해 공동체를 조직화

6.1. 목표의 설정

느헤미야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그 곳 거민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6.2. 상황 파악 및 전략 수립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즉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들어 가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고,

---

[106] *Andy Stanley, 비저니어링: 느헤미야와 함께 하는 비전 이루기(Visioneering: God's Blueprint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for Vision),* 121.
[107] *Andy Stanley, 비저니어링: 느헤미야와 함께 하는 비전 이루기(Visioneering: God's Blueprint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for Vision),* 131.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는 그 곳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108]

6.3. 동기유발

존 화이트(John White)는 느헤미야의 동기유발에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 있다고 말한다.[109] 첫째는, 연설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의 동료 의식이다. 그의 연설 중에 우리라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110]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둘째는, 느헤미야가 그들이 처한 곤경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참 지도자가 취하는 행동은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사실과 현재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목회자는 사실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11] 셋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호소를 하며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시켰다.[112]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였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다. 그는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그들의 자존심과 자신감, 독립심을 불러 일으켜서 자발적 헌신으로 이끌었다.

6.4. 동역과 분업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지도자는 위대하다. 그것은 지도자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의 능력 때문이다. 계승자 없는 성공은 실패다. 노동자의 주된 책임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주된 책임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계발시켜 주는 것이다.[113]

---

[108] J. Stuart Avery,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참 지도자론(Nehemiah: An Effective Leader)*, 김태복 외 역, 51.
[109]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43.
[110]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느 2:17).
[111]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53.
[112]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느 2:17- 18).
[113] John Maxwell, *리더십의 법칙(Laws of Leadership 2.0)*, 정성묵 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4), 36.

느헤미야서 3 장을 보면, 성벽 건축과 건축자의 명단이 나온다. 성벽 건축 공사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일을 맡겼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각 분야마다 중간 리더를 세워 각자에게 일을 맡겨서 성벽을 중수하게 하였다. 각 단락마다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방 얼마를 다스리는 자가 어디까지를 중수하였다'는 기사이다. 이 사실은 분야마다 적합한 인물을 세웠다는 증거이다.

빌 하이벨스도 예수님의 리더십 계발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가능성이 있는 리더들을 키우기 위하여 앞의 세 단계를 진행하셨다. 그 분은 단순히 "자, 여기 결승선에 들어오는 선착순 열두 명을 제자로 택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주 신중하게 제자들을 고르셨다. 그들을 선택하기 전에 시간을 투자 하셨고 뜨겁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신약시대 전체의 교회의 리더십이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분은 책임감이라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했다.
>
>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을 확인하신 후, 재빨리 그들의 삶에 투자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으셨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그들을 양육하셨다. 그분은 그들과 맞서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훈계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열정을 불어 넣어 주셨다. 몇 달이 지나고 이제 당신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옴을 아시고, 예수님은 리더십 계발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셨다. 사역의 책임을 그들에게 위탁하시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셨다.[114]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의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했고, 또한 현장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존의 백성들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첫째, 주거지 중심으로 노동력을 배치했다 (느 3:23, 28, 30).

둘째, 은사 중심으로 노동력을 배치했다 (느 3:1, 8, 12, 31).

셋째, 소명 중심으로 노동력을 배치했다 (느 3:1).

빌 하이벨스는 책임을 위임하는 일이야말로 차세대에게 가장 좋은 촉매제임을 말하고 있다. 리더십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촉매가 무엇이냐고 리더십 계발 전문가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끌게 하라. 실제적으로 지도해 볼 수 있는 현장 경험에 대한 도전 없이는 아무도 리더로 성장 할 수 없다.[115]

---

[114] Bill Hybels, *리더십(Leadership),* (서울: 두란노, 2006), 139-140.
[115] 빌 하이빌스, *리더십(Leadership),* 148.

7. 외부 적대 세력의 공격에 대응

7.1. 비웃음과 조롱에 대하여(느 2:19; 4:1-5)

대적자들은 먼저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 한다(느 4:1-3). 이들의 목적은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외부의 적대 세력의 공격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느 4:4-5)? 느헤미야는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염려 속에 빠져서 좌절하고만 있지도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느 4:4-5).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 기도 드리는 일과 참고 견디어 내는 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의 잘 조화된 균형을 느헤미야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 반대를 당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알았기에 자신을 감정에 맡기지 않았고, 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7.2. 폭력에 대하여(느 4:7-9)

건축이 잘 진척되고 있음을 알아챈 산발랏은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을 규합하여 무력 공격을 하고자 한다(느 4:7-8).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방안(느 4:9)은 어떠했는가?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다.[116] 동시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대자들의 위협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반대자들을 다루는 우주의 섭리인 것이다. 성공의 공식은 계속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계속 일해 나가는 것이다.

7.3. 적이 위장하여 타협을 요청할 때 (느 6:1-4)

비웃음과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실패한 대적자들은 이제 그들의 작전을 바꾸어 평화적 타협이라는 가면을 쓰고 느헤미야를 해치려 한다(느 6:1-2).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첫째로, 느헤미야는 분별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게셈이 자신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실상은 자기를 해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느 6:2). 지도자는 분별하는 능력이

116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 4:9).

있어야 한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복수하지 않았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느 6:3).

8. 중상모략에 대하여(느 6:5-9)

느헤미야를 고립시키고 암살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며 만나자고 협박한다(느 6:4-7).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였는가? 첫째로, 느헤미야는 조용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난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느 6:8). 둘째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느 6:9). 셋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을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즉 자기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궁지에 빠진 자기 자신의 안위(安危)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9. 스마야를 통한 유혹에 대하여(느 6:10- 16)

대적자들의 최후의 공격은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느헤미야는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방문한다(느 6:10). 스마야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두문불출 하는데, 이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그것은 느헤미야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이었다. 일단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오자 스마야는 암살 기도가 임박하니 함께 성전에 가서 피하자고 제안한다(느 6:10).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첫째로, 나 같은 자(총독)가 어찌 도망하겠는가?(느 6:11)라고 느헤미야는 묻는다. 그는 자기가 비겁함을 보여 주면 유대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 6:11)라고 말한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 안의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 성전에 숨는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종의 신성 모독의 행위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믿음을 가진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숨는 대신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느 6:14) 계속해서 성문 완성의 역사를 감독한다.

10. 공동체가 낙심할 때 (느 4:10-23)

우리는 낙심의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피로가 낙심의 원인이었다(느 4:10). 둘째로, 그들은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했다(느 4:10). 셋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비관론에 빠지게 되었다. 넷째로, 대적들의 갑작스런 침입에 대한 불안정한 삶이 그들을 낙심케 했다(느 4:11-12).

백성들의 이러한 낙심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느 4:13-23) 첫째로, 느헤미야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게 하였다(느 4:14). 느헤미야는 위협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들, 크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건설과 방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느 4:16-17).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건축을 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방어에 투입하였으며 이것을 교대로 함으로서 체력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느 4:18-2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해 주며,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11.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 생겼던 갈등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식량이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다(느 5:2-3). 둘째,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메대 바사 정부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가축들을

저당 잡혀야 했고(느 5:4)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다. 셋째는, 이런 와중에도 귀족들은 가난한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착취하는 행태를 보였다(느 5:5).

그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첫째로, 느헤미야는 중심에 계획을 세웠다(느 5:6-7). 그는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제하고 중심에 계획을 하였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는 먼저 잘못에 대해 책임 소재가 있는 귀인과 민장들을 찾아가 그들을 꾸짖고(느 5:7) 공적인 대회를 열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 율법은 히브리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출 22:25). 또한 같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다(레 25:35-40). 그런데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까닭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은 단호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느 5:9). 셋째로, 느헤미야는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죄는 차차 끊을 수 없다. 죄는 단번에 끊어야 하며 분명히 돌아서야 한다. 느헤미야의 책망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다(느 5:12-13). 넷째로,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선 수범하였던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한다. 솔선 수범이 없는 리더십은 처음부터 세워 질 수 없다. 느헤미야도 자신이 먼저 정직했기에 그렇게 단호하게 백성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

먼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느 5:14).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느 5:18).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과거의 잘못된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다(느 5:15).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느 5:15). 느헤미야가 이같이 청렴결백(淸廉潔白)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행하였다(느 5:1). 느헤미야는 솔선 수범하여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자신의 힘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늘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 5:19)라고 기도한다.

13. 지도자의 섬김의 삶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역시 섬김이라 할 수 있다. 섬김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데, 섬기는 마음은 분명히 원래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다. '멘토링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에서는 섬기는 리더십의 특성에 대해 주장하기를,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인식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가능하다라고 분석하였다.

>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 마음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한 채울 수 없는 근본적 열망 즉 공허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이란 곧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어떤 지상의 성공이나 인정도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채울 수 있을 뿐 입니다. 진정한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가 지닌 변화시키는 능력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듯이 예배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열망이 바로 변화된 섬기는 마음의 출발점이며 힘입니다.[117]

느헤미야야 말로 원점으로 돌아온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으로부터 신뢰받으며, 또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았던 생활을 떨쳐버리고 유다인과 운명을 같이하며 비전에 따라 그의 생애를 던진 것은 분명히 원점으로 돌아와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다.

14. 지도자와 권한 위임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부하를 잘 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훌륭한 지도자란 해야 할 일을 안심하고 맡길 만큼 유능한 인재를 골라내는 눈이 있고, 또 그들이 일하는 동안 그들에게 참견하지 않을 만큼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118]라고 말했다.

---

[117] Ken Blanchard, Bill Hybels, Rick Warren, *멘토링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Lead Like Jesus),* (서울: 두란노, 2000), 77.
[118] 홍사중, *리더와 보스,* 194.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자 적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느 7 장).

느헤미야의 권한 위임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 준다. 첫째, 느헤미야는 지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임명하였다(느 7:1-2).[119] 둘째, 느헤미야는 행정 업무의 최고직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느 7:3-4).[120] 셋째, 지도자는 권한 위임을 한 후에는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느헤미야의 권한 위임은 8 장에서도 나타난다. 느헤미야서 1 장-7 장까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였으나 8 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주인공이 바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스라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필요로 했고 에스라가 그 임무에 적임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옆으로 비껴서고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15.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움

목회자는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이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유다사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대로 성벽 재건을 통한 개혁이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선민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유다사회는 계속 든든하게 서 갈 수가 없었다. 성벽재건은 선민으로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지 이것 자체가 선민으로서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 8 장에서는 내적인 자질을 더욱 키워갈 종교지도자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로 다시 돌아가 있는 동안, 유다백성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게 되자, 귀환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영적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체류한 기간은 12 년간 지속되었다 (느 5:14). 후에 그는 몇 년간인지는 모르지만 수산성으로 되돌아갔다가 총독으로의 두 번째

---

[119] Paul E. Engle, *당신의 지도력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The Governor Drove Us up the Wall: A Guide to Nehemiah),* 황성수 역, 83.
[120] Paul E. Engle, *당신의 지도력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The Governor Drove Us up the Wall: A Guide to Nehemiah),* 황성수 역, 84.

임기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느 13:6-7).[121] 이때 느헤미야는 유다백성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영적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3 장의 기록이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영적 개혁도 신앙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토록 시작이 훌륭했던 개혁 운동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다. 과거에 엄숙하게 약속했던 서약들(느 10:28-39)이 잊혀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과거 다음의 여섯 가지에 대해 견고한 약속을 세우고 인을 친 적이 있었다.

첫째, 백성들은 그 주위 족속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둘째,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날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날로 보전하기로 약속했다. 셋째, 백성들은 출애굽기 30 장 11 절부터 16 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에게 요구된 세를 매년 바치기로 서약하였다. 넷째,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나무와 자신들의 곡식과 과실의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리기로 약속했다. 다섯째, 백성들은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여섯째, 백성들은 십일조를 드리기로 서약했다.[122]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제사장 엘리아십에 대한 도비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성전 모독 행위 사태가 발생하였고(느 13:4-5),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이 고갈됨에 따라 성전 예배도 타락하였고 (느 13:10), 상행위는 안식일 엄수에 지장을 초래하였고(느 13:15), 이방인과의 혼인은 이제 히브리 고유 문화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느 13:23).[123]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영적 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제사장 엘리아십을 파면하고 사마리아 사람 도비야를 공동체에서 축출하였다 (느 13:4-9). 둘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헌물을 바치게 함으로서 성전의 재정을 충당함으로서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하였다(느 13:14). 셋째, 안식일에는 성 안 뿐 아니라 성 밖에서의 일체의 상거래를

---

[121]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이석철 역, 136.
[122] James Montgomery Boice,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Nehemiah: Learning to Lead),* 이건일 역, 251.
[123] John White,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이석철 역, 137.

금함으로서 안식일을 회복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서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였다.

나가는 말

느헤미야는 개인의 영성과 현장 영성이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모델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낙심한 백성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 등 보여지는 현실은 성벽 재건이 불가능한 조건들 뿐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감으로서 공동체가 도달해야 할 성벽 재건의 사명을 무난히 달성하였다. 목회자는 주어진 목회 현장,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임재의 누림, 그리고 선한 성품등의 개인 영성도 탁월해야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목회 현장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잘 헤치고 맡겨진 공동체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연구설계

I. 설문 조사의 의의

필자는 신학을 시작한 이래 지난 30 여년동안 현장 목회를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하여 늘 생각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목회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목회에 한계를 느끼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한 분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주변을 돌아보면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친 그 다음 학위 과정의 학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들이었다. 그렇다면 신학교의 수업은 현장 목회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고 있을까? 특히 목회 현장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신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의 현재의 목회에 유용한 학습을 했다고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신학교 교육이 현장과는 동떨어져 학문 자체에 치우친 내용이었다고 생각할까? 본 논문은 신학교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목회자 훈련 과정에 대하여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으려고 시도했다.

II. 연구 질문 검토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에 아래의 질문으로 목회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먼저, 목회자들의 연령, 그리고 사역의 내용, 사역 기간, 그리고 현재 사역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다.

둘째, 현재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신학 교육이 현장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훈련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셋째, 목회자가 어린시절부터 쌓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목회 현장을 섬길 때 목회자의 이러한 내면은 실제 목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했다.

넷째, 목회 현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더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하는 훈련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다섯째, 현재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목회 현장을 섬길 목회자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를 질문했다.

여섯째, 목회자 훈련에 적합한 환경은 무엇인가, 신학교인가 아니면 목회 현장인가를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만약 목회 후보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훈련을 꼭 받기를 원하는지를 주관식으로 질문했다.

본 설문의 질문은 위의 일곱가지 항목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항목당 3 가지 또는 4 가지로 질문을 세분화하여 좀 더 정확한 데이타를 얻고자 하였다.

III. 연구 대상 견본 추출

본 논문은 Los Angeles 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되 미주에서 이민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포함, 총 80 여명에게 설문을 요청, 그 중에서 55 명이 보내준 응답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극소수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체 목회자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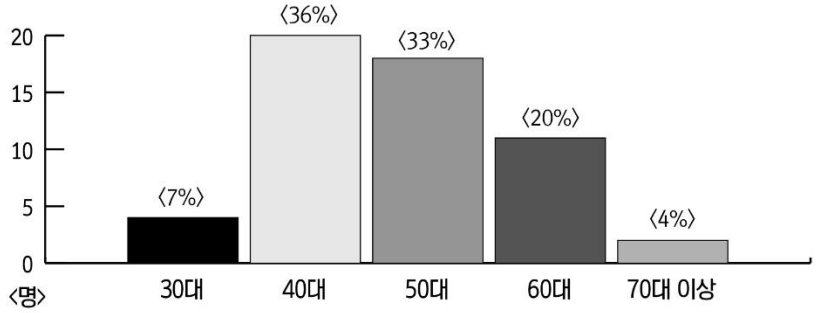
IV. 자료 수집 절차

설문 자료 수집은 2020 년 1 월 27 일부터 2 월 15 일까지 3 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댁으로 우송 후 다시 우편으로 받기도 하였으나 소수의 목회자들은 시간 상 이메일로 설문을 보내고 다시 이메일로 응답을 받기도 하였다.

V. 연구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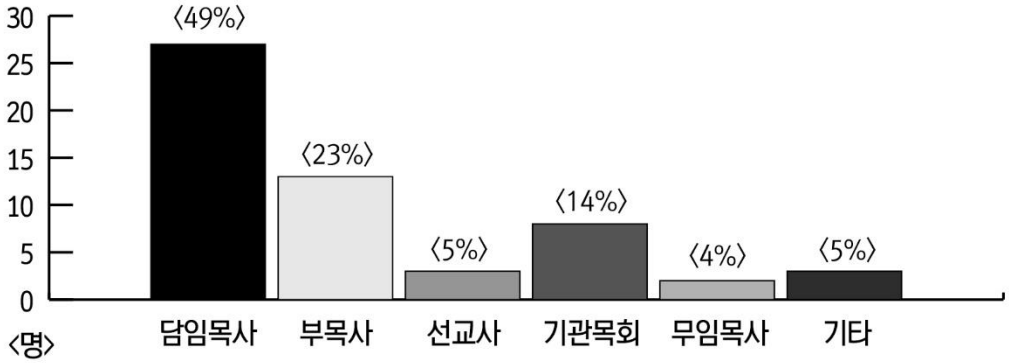
첫째,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를 해 주세요.

1) 목사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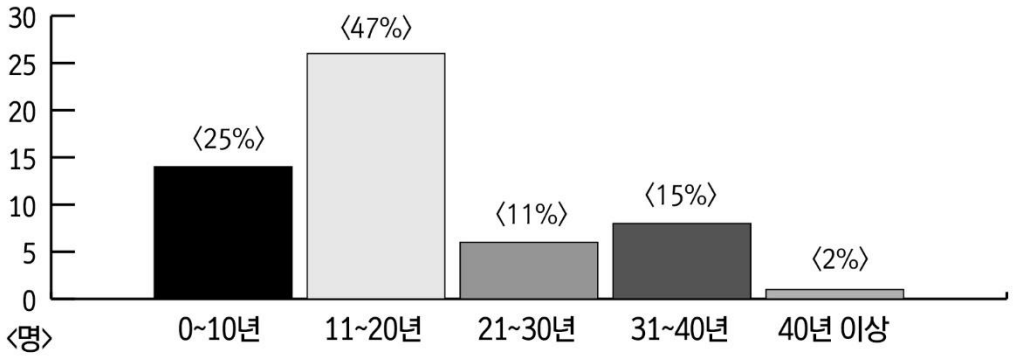
본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들의 연령은 30 대(7%)와 70 대 이상(4%)의 소수를 제외하면 40 대 36%, 50 대 33%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60 대도 20%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응답한 목회자의 주축은 40 대(36%)와 50 대(33%)라 할 수 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69%로서 사실상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목회 중인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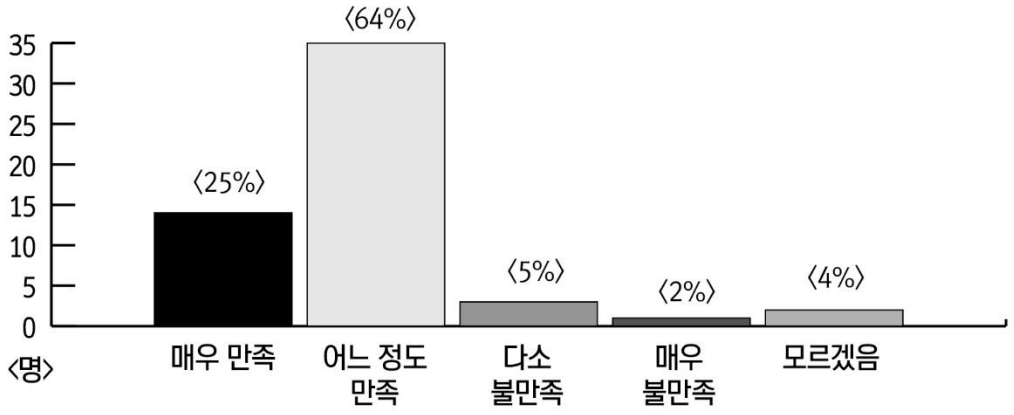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사역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담임목사로 섬기는 분들이 4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부목사 23%와 기관목회자 14%가 뒤를 잇고 있다. 즉, 응답자의 목회 형태를 보면, 담임목사와 부목사로서 현재 현장에서 활발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3)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회를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 온 지 21 년이 넘은 목회자들이 총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30 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17%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47%는 11 년에서 20 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10 년차 미만도 25%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을 목회 연차를 고려해 볼 때 이미 충분히 목회 경험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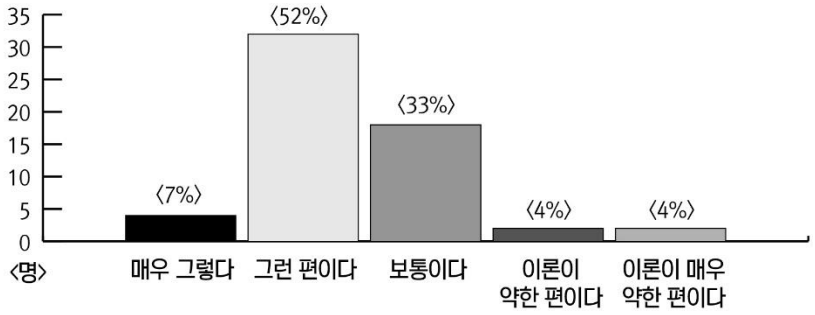
4) 현재의 목회에 만족하십니까?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한 목회자들 가운데 현재 목회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64% 여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무려 69%였다. 즉, 거의 2/3 가 넘는 목회자가 현재 자신의 목회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목회에 만족한다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목회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거의 2/3 의 응답자들이 주어진 자신의 목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목회자들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신학교육은 현장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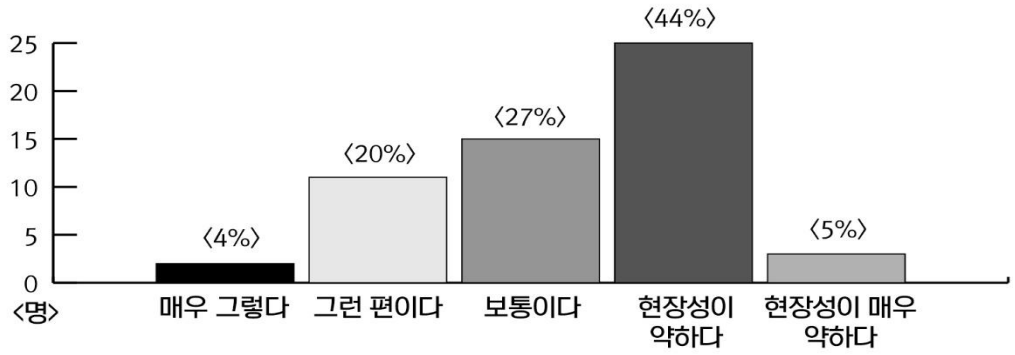
5) 당신은 현재 주류 신학교 교과 과목이 목회 현장과 동떨어져서 너무 신학이론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현재 주류 신학교의 교육 내용이 목회 현장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즉, 신학교육과 현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59%(매우 그렇다 7%, 그런 편이다 52%)의 목회자들이 현재 신학교 교육이 목회 현장과 괴리(乖離)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그리고 11 년 이상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75%인데, 이러한 목회자들의 거의 60%가 현 신학교 교육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져서 신학 이론에 치우쳐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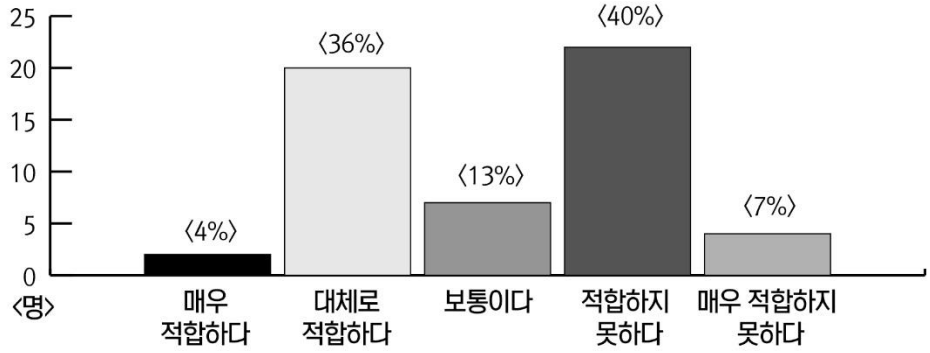
반면 현 신학교의 교육 내용이 이론에 약하다고 느끼는 목회자는 약한 편이다가 4%, 매우 약한 편이다가 4%, 함 8%로서 목회자 중에 신학 교육이 이론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소수이다. 다시 말해서 92%의 목회자가 현재 신학교의 교육 내용이 이론(理論)면에서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6) 현재 신학교 커리큘럼은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고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번 질문과 연결하여 현 신학교 커리큘럼이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고 편성되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단 24%(매우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20%) 밖에 없다는 것은 현장 목회자들은 신학교의 교육 내용이 현장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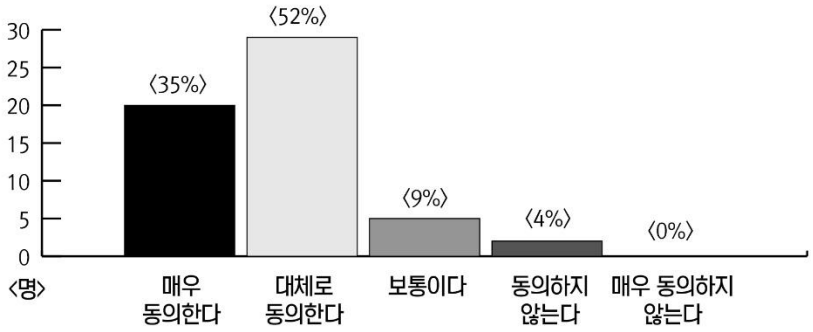
7) "신학 이론은 신학교에서, 목회 훈련은 현장 사역지에서"라는 슬로건은 우리시대에 어느 정도 적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신학교는 신학 이론을 배우는 곳이고 목회 훈련은 신학교 이후 목회 현장에서 받는 것이다' 라는 사항에 대한 목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다. 매우 적합하다(4%) 매우 적합하다(36%)란 응답이 전체 40%가 나왔다는 사실은 40%의 목회자는 신학교에서는 신학 이론을 배우고 목회 훈련은 목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합하지 못하다 40%와 매우 적합하지 못하다 7%, 도합 47%, 즉 거의 과반수의 목회자들은 신학교의 수업이 신학 이론에 치우쳐 있으며, 신학교 또한 목회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목회자가 어린시절부터 쌓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목회 현장을 섬길 때, 목회자의 이러한 내면은 목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성장기 때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한 인간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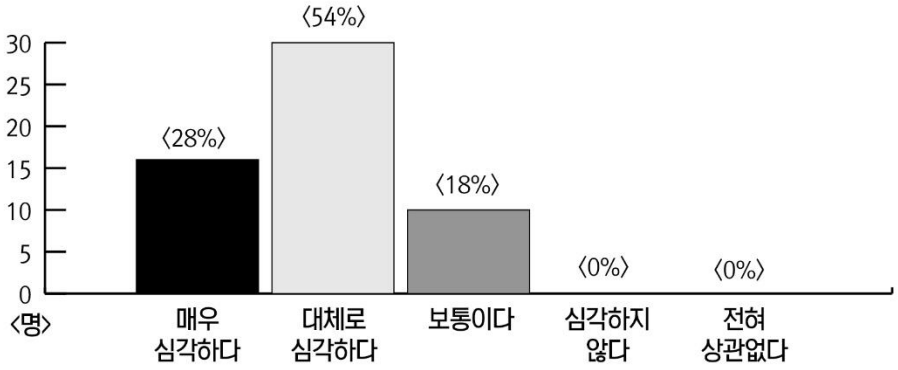
이 질문은 성장기의 환경과 사람의 영향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과연 사람은 어린 시절의 환경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영향을 받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35%, 대체로 동의한다가 52%로 응답하였다.

즉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인간 관계가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영향을 준다는 것에 87%의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사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인간 관계가 우리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가 목양을 할 때 성도의 어린 시절, 그리고 자라온 과거의 환경과 그 성도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간 관계를 잘 이해해야 그 성도들 제대로 파악해서 내적 치유를 비롯하여 온전한 성품과 건강한 내면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만큼의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 즉, 성도들의 어린 시절 받은 상처, 왜곡된 성격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기대하는 만큼 영적 성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다.

9) 성장기에 받은 상처와 이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성격은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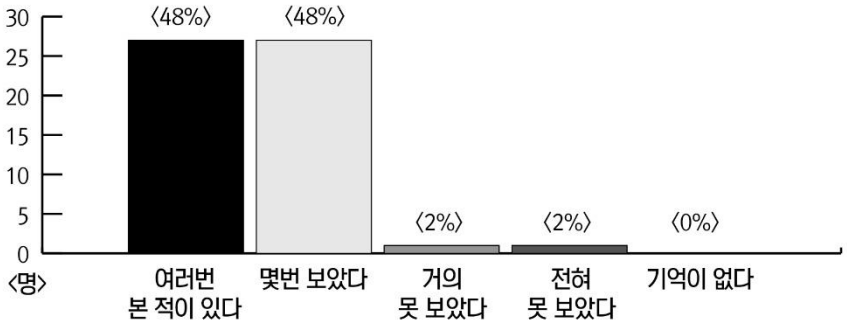


이 질문은 8 번 질문의 대상을 좁혀서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인간 관계가 목회자들의 현재 목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던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매우 심각하다가 28%, 대체로 심각하다가 54%, 도합 82%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도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인간 관계로부터 받은 영향에서 자유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이 없다(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상관없다 포함)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한명도 없는 반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18%라는 응답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 또는 목회자가 된 이후 어떤 식으로든 어린 시절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치유를 받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목회자의 어린 시절이 현재 목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2%라는 사실은 목회자의 내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목회자 준비 과정에서 목회자 개개인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쓴 뿌리를 만져주고 다시 건강한 내면으로 회복시켜 주는 과정은 찾아 보기 어렵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겠으나 대부분의 목회자 후보생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받은 내면의 왜곡된 성품이 목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치유의 과정없이 무방비 상태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 선다고 볼 수 있다.

10) 목회자가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목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성격은 어린 시절 성장 환경과 인간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이 평생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87%(8 번 질문), 그리고 목회자의 어린 시절이 목회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82%(9 번 질문)였는데, 이 질문은 주변의 목회자 중에 실제 어린 시절 형성된 성격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느냐는 실제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자 중 몇 번 보았다가 48%이고 여러번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이다. 즉 응답한 목회자들의 96%가 실제 그러한 사례를 최소한 몇번 이상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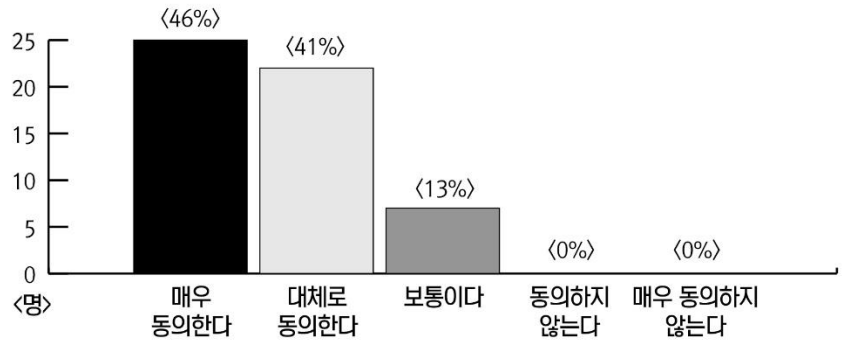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고 헌신하여 목회자의 길로 들어 섰지만 실제 목양 현장에서 자신의 왜곡된 성격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더더구나 응답자의 96%가 이런 현장을 보았다면 이것은 실제 생각 이외의 많은 목회자가 가진 문제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어린 시절 결핍된 환경과 깨어진 관계에 받은 상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거절과 반항의 벽돌을 세우면서 왜곡된 성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왜곡된 성격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왜곡된 성격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어렵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자신과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없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다.

96%의 응답자들이 주변 목회자가 성격 때문에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다고 응답한 것은 목회자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바로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존감 회복, 그리고 건강한 내면이다. 이것이 목회 준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넷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현장 목회 이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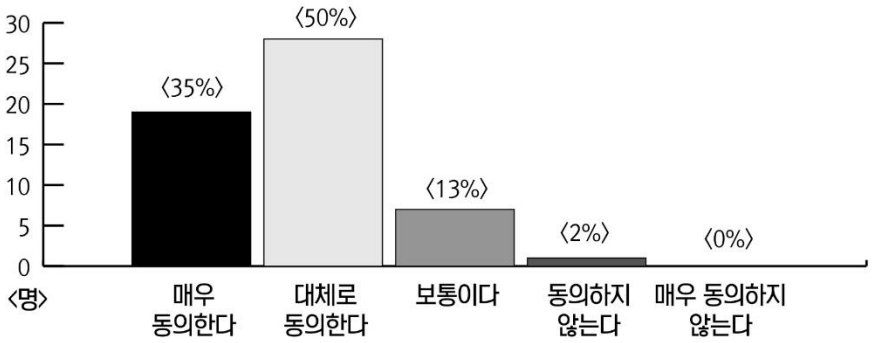
11) 현재 신학교의 강의 과목들이 목회 현장을 위한 훈련으로 부족하다면 목회자의 상처 받은 내면치유, 왜곡된 성격의 치유, 관계훈련, 영성훈련 및 현장훈련 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의 내면치유, 왜곡된 성격의 치유, 관계 훈련, 영성 및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신학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물어 본 것이다. 이 질문에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46%의 응답자들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1%였다. 즉, 87%의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내면 치유와 목회 현장과 관련된 훈련이 신학교에서 실시 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면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점검하고 회복되어야 할 목회자의 내면에 대한 과목들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즉, 현재 신학교가 커리큘럼을 계획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아야 할 때이다. 만약 신학교가 학문의 영역은 신학교에서, 그러나 목회자의 내면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만약 신학교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커리큘럼에 최소한 기본 단계의 자기 점검과 내적 치유의 과정을 넣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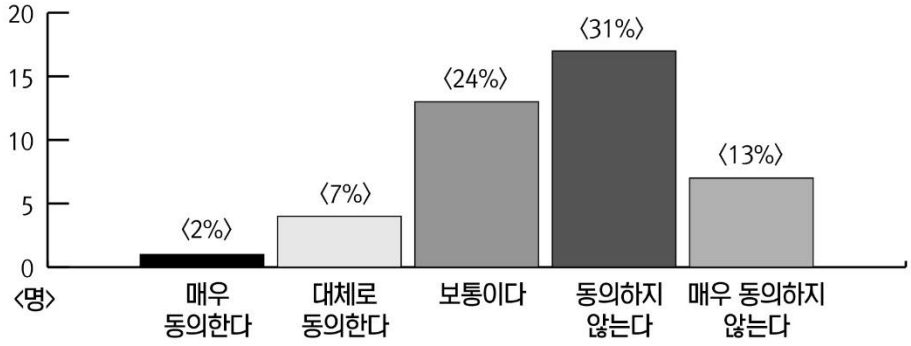
12) 위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신학교 강의가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교회들과 더 긴말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은 현재의 신학교 강의가 지역 교회들과 더 긴밀하게 연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목회자들의 87%(매우 동의한다가 35%, 대체로 동의한다가 5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질문의 요점은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교회와의 연관성이다. 즉, 87%의 목회자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현장 목회자들의 응답을 보았을 때 87%의 목회자들은 목회 준비가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가 목회자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후보생들을 향한 훈련의 한 축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목회 현장을 보면 목회자 후보생은 훈련 받는 개념 보다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교회는 신학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목회자 후보생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사역의 멘토링을 통해서 더 균형잡힌 목회자로 준비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13) 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학교 강의는 더 신학 이론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은 신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연장선의 질문이다.

11 번 질문에서 신학교육이 내면치유, 관계훈련, 목회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포함해야 하느냐를 물었고, 12 번 질문을 통해서 신학교 강의가 역동적 사역현장과 긴밀하게 연관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면, 이번 13 번 질문은 11 번과 12 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반대의 질문을 던져본 것이다. 즉, 현재 신학교의 강의 내용이 이론을 더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본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2%, 대체로 동의한다가 7% 응답하였다. 현재 신학교 교육이 더 이론에 치중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응답자가 9%, 즉, 10%가 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학교의 강의가 현재보다 더 이론에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목회자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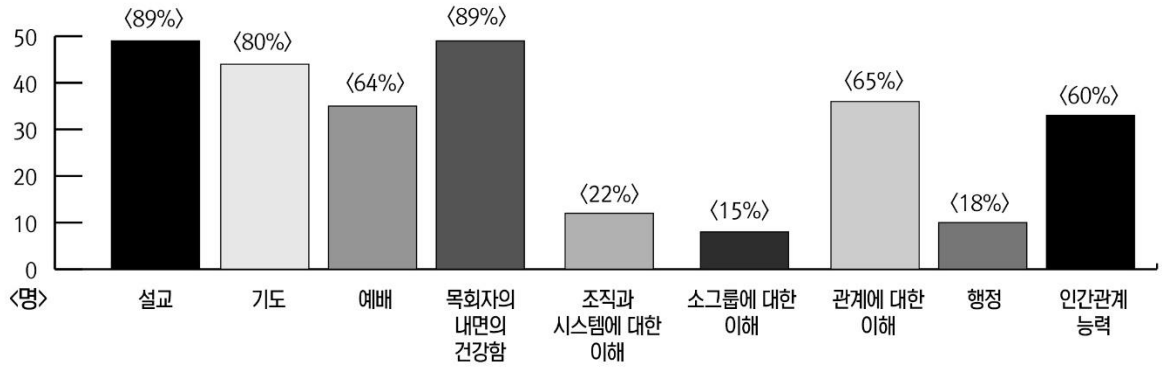
응답자의 31%가 현재 신학교 교육이 더 이론에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동의를 했고, 13%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즉 44%의 목회자들은 현재의 신학교육이 이론에 더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12 번 질문, 현 신학교육이 역동적 사역현장을 가진 교회와 더 깊은 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85%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신학교육이 목회자 내면치유와 목회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 신학교육이 목회자의 내면치유와 목회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보강해야 하고 (11 번 질문, 역동적 사역현장을 가진 교회와 더 연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 역동적 사역현장과 연결되어야 한다(12 번 질문, 87%가 동의함)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학교육이 더 이론에 치중해야

하느냐는 13 번질문에 24%가 중립으로 응답한 사실을 통하여 응답자의 약 ¼의 목회자들은 현재의 신학교육 자체가 자신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없을 것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주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현장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현장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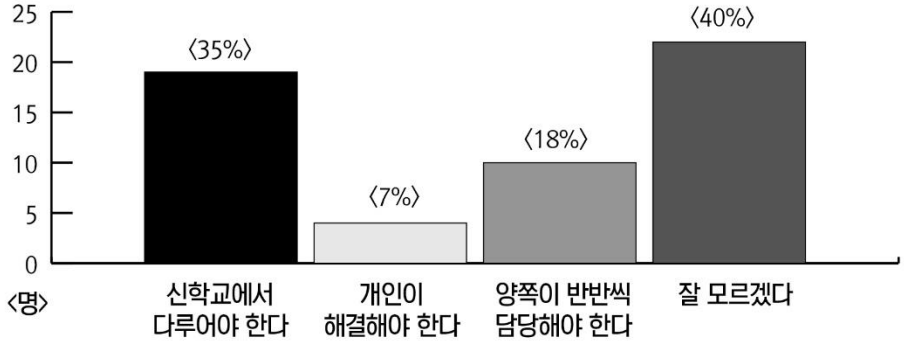
이 질문을 통하여 목회현장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어떤 훈련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서는 설교, 기도, 예배, 목회자의 건강한 내면,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소그룹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행정, 인간관계능력 등 그래프 상에 있는 9 항목 가운데 5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9 가지 항목 중에서 설교(89%)와 목회자 내면의 건강함(89%)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도 (80%)였다. 이어서 관계에 대한 이해(65%), 예배(64%), 인간관계능력(60%)이 그 다음 응답을 받았다.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능력이 비슷한 개념의 항목으로 생각한다면 목회자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설교와 목회자의 내면과 비슷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훈련해야 한다는 비율은 22%, 행정이 18%, 소그룹이 15%로 응답되었는데, 이 통계를 통해서 현장 목회자들에게는 이 세가지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질문에 나온 행정이라든지 소그룹 등이 설교나 내면의 건강함 만큼 중요하지 않고 또 위의 선택 사항 중 5 개만 선택해야 하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필자가 이 논문을 써야겠다고 느꼈던 중요한 이유 하나가 여기 있다. 설교 기도 예배 내면의 건강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능력 등은 목회의 본질에 해당하고 조직과 시스템, 소그룹, 그리고 행정 등은 사실 비본질적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을 본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파악하며 잘 다루어야 한다. 비본질로 보이는 요소들을 잘 다루지못하면 목회의 본질적 요소에서 열매를 거두가기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비본질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놓침으로써 비본질이 뒷받침 되어야 거둘 수 있는 본질적 사역의 열매를 놓치고 있어 보이는 것이 필자의 안타까움이다. 목회자들이 비본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본질적 요소의 중요함 만큼만 인식하면 목회현장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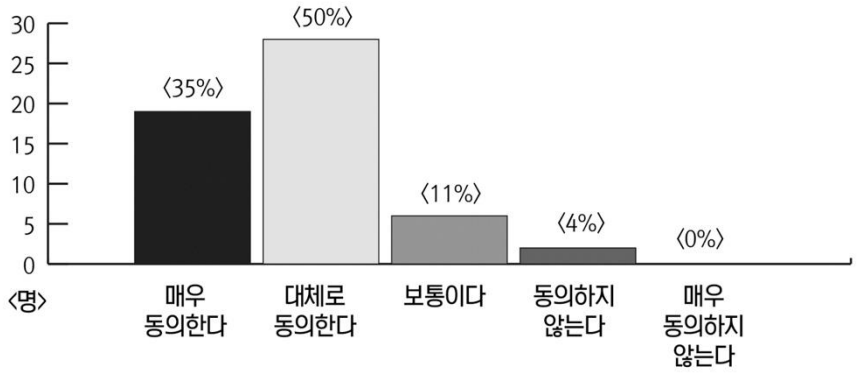
15) 목회자가 현장을 섬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신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교의 교육이 목회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인 반면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즉 목회 준비를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다고 보는 비율은 단 7%에 불과했다. 목회 훈련은 신학교와 개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18%, 즉, 응답자의 18%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학교에서 다루어야겠다는 응답도 이해가 되고 양쪽이 반반씩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 18%도 이해가 될만한 반응인데, 응답자 중 4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이다. 목회자 중 40%가 목회 후보생들이 목회 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아무런 그림이 없다는 의미이다.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많은 부분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가 목회자 훈련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80%가 넘는 목회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다. 어쩌면 이것이 현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

16) 현재 신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영성 훈련의 부족 혹은 부재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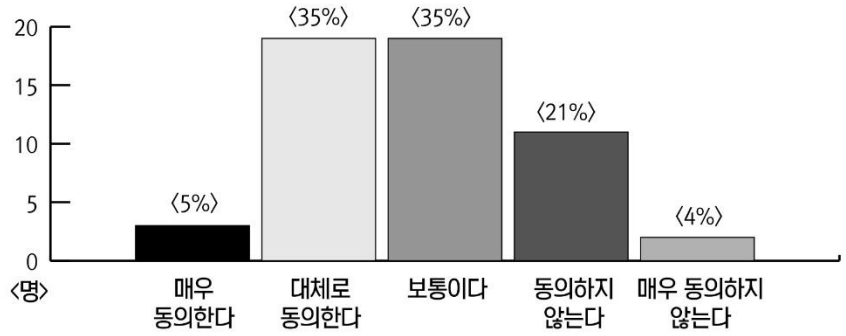


이 질문 역시 역시 현 신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응답자의 85%가 현재 신학교육은 목회자 후보생들의 영성을 훈련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답을 주었다.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현재 신학교의 교육 내용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의 영성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식 이전에 바로 영성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성경의 선배들 가운데 지식이 탁월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 이 영성이 결국 목회를 이끌어 간다고 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학교육이 목회자의 영성과 관련해서 훈련이 거의 전무하다면 신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개인영성 및 현장영성을 훈련할 가장 적합한 환경은 무엇이며,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17)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은 과거 중세교회 수도원식 훈련이 필요하다.



중세 수도원은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에 힘썼던 영성의 흐름이었다. 현 시대에 그런 중세 수도원식 훈련이 목회자의 영성에 필요한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물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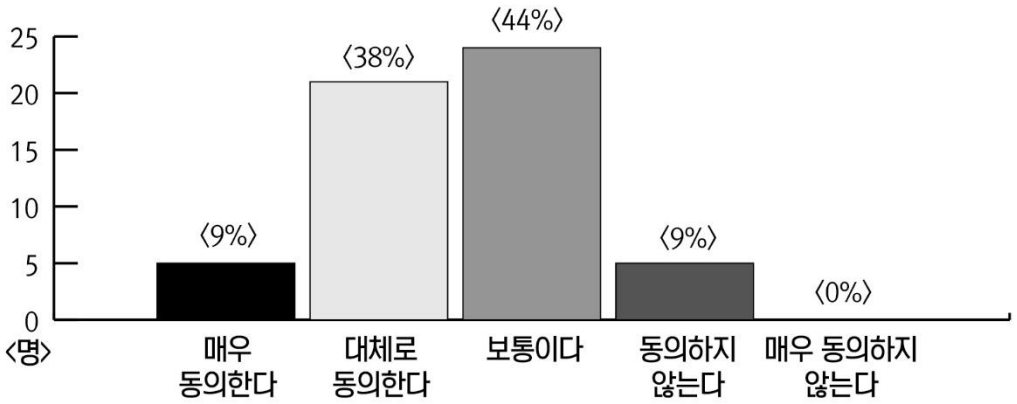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해서 중세 수도원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동의(5%)와 대체로 동의(35%) 포함 40%가 동의하였다. 동의한 목회자들은 바쁘고 분주한 현대 목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갖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없이 목회자의 영성이 준비되기 힘들다는 면에서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21%)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4%) 포함 25%의 목회자들이 중세 수도원식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기독교적 영성은 수도원에 들어가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성도들과의 교제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답한 목회자의 35%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1/3 가량의 목회자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위의 응답을 볼 때 중세의 수도원처럼 본인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평생 수도원생활을 하며 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목회 현장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은 신학교 강의실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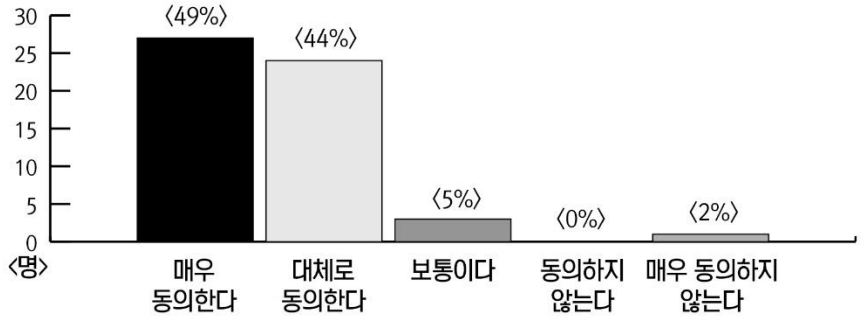
영성훈련이 신학교 강의실에서 실시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동의(9%), 대체로 동의(38%) 등 과반수에 가까운 47%의 목회자들이 동의하였다. 즉 과반수의 목회자들은 신학교가 예비 목회자들의 영성 부분까지 훈련해 주길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역시 거의 과반수의 목회자들은 신학교가 예비 목회자의 영성까지 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9%, 매우 동의하지 않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면 9%의 목회자는 예비 목회자의 영성은 신학교가 책임질 수 없거나 책임지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 목회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볼 때 신학교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지식 뿐 아니라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식인가 영성인가, 아니면 둘 다가 필요하다면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반영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학교의 열린 자세, 획기적인 변혁이 없이는 현재 목회자 후보생들의 준비과정은 절름발이의 교육이 계속 될 것으로 염려해야 한다.

19)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은 신학교 강의실과 목회 현장의 긴밀한 관계성을 토대로 훈련되어야 한다.



신학교 강의실과 목회 현장 간의 긴밀한 연관을 통하여 훈련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훈련일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동의 여부의 질문이어서 매우 동의가 49%, 대체로 동의가 44%이다. 신학교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목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의 영성을 훈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만약 본인이 "현재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다시 목회자 후보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제안을 아래에 제한 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설문 항목 중 주관식으로 의견을 물었던 질문에 대한 목회자들의 답변을 가감없이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객관적 설문 문항에서 다 다루지 못한 목회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 신학교 강의와 목회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고 싶다. 현재 목회 현장 훈련은 구체적인 훈련보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 인턴은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 훈련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해, 첫 담임 목회 때, 시행착오가 많았다.
- 교회의 모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여 주님께 충성심을 키워야 한다. 기도를 생활화 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성령이 충만하다. 교회 담임 목회의 좋은 면을 배우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 가정예배를 통한 신앙 인격을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목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함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한다. 목회는 끝없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함으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세상과 사람을 초월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각오와 삶이 필요하다. 훌륭한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보고 듣고 배운다.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과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인정을 받는다. 행동과 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미친듯이 보이고 자랑해야 한다.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 실질적인 목회 현장에서 겪는 선배 목회자들의 여러 이슈들을 직접 듣고 가능하다면 신학교 입학 전에, 혹은 입학 후에 라도 반드시 있어서, Doing 전에 Being 이 철저히 선행되어야 함을 절감합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배우기 앞서, 성경 자체에 대한 통전적인 & 전체적인 이해와 밑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 학기 초 마다의 성경통독 사경회, 또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 혹은 전문인(그리스도인)들을 통해 –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목회자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보다 폭 넓게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적 소명,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확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검증되고 추천 될 만한 인격/성품인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서, 가능한 신실한 목회자들을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 기도 훈련을 더 받고 싶다. 리더쉽에 대한 훈련을 더 받고 싶다. 소그룹 운영에 대한 교육을 더 받고 싶다. 평신도 제자 양육에 대한 훈련, 목회 상담에 대한 훈련.
- 기도(영성), 설교, 인간관계, 실천 목회, 교회에 적용된 조직신학, 복음전도, 창의적인 목회 훈련
- 영성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인간관계 훈련, 소그룹 활동 지향
- 더 많은 영성 훈련을 훌륭한 목회자 아래서 받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설교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험 많은 목회자 아래서 교회법을 통달 했기를 바랍니다. 목회 경력을 통한 세상 지식의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교, 예배, 교회 행정, 예전(성찬식, 세례식, 혼인, 장례 등)
- 성경 읽는 것과 해석 그리고 연구 최선을 다 한다. 확실한 신학 사상과 목회 철학을 수립한다. 뛰어난 영성을 갖춘다.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갖춘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좋은 상담자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갖춘다. 뛰어난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강하게 훈련한다. 목회자로서의 시간 관리를 잘한다.

-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더 깊이 묵상하기 (특히 9, 10, 11 장을 깊이 상고하기) 조직 신학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기. 성경 본문을 읽고 구조 분석을 통해 맥을 기억하기
- 인격적 훈련, 자신의 경건함
- 목회자의 내면의 건강함. 기질 조사, 인간관계 능력 다변적, MBTI, 행정능력. 조직과 리더쉽. 좋은 멘토를 만남. 소그룹 활동. 읽기 나눔(매월). 하루에 기도 세 시간이상 하도록 훈련. 성경 읽고 그 내용 나누기. 아침 9 시에 모여서 오후 5 시까지 매주 전도 훈련 (화, 목) 현장답사. 설교 원고 쓰기 훈련. 자기 생각 표현하기. 감정조절 능력 다루기.
- 신학이론보다 현장실습의 실질적인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보다 강한 영성 훈련. 심도 있는 상담학 훈련. 목회 현장에 필요한 훈련. 공동체적 훈련과 적응 훈련. 목회 행정의 중요성 강조. 타 목회자들과 조화로운 교제.
- 영성 훈련. 성격 치유. 관계 훈련.
- 개인전도 훈련. 소그룹 인도. 내면 치유등.
- 인간관계 이해에 대한 훈련. 개인영성훈련. 멘토와의 관계 형성하기
- 사람을 (교인) 알기 위한 인문학 공부, 사람 관계를 위한 인간관계 공부. 올바른 설교를 위한 성경 각 권의 세밀한 공부
- 영성 훈련. 체계적 신학 훈련.
- 내면의 건강함, 깊은 영성 훈련. 조직과 시스템 이해.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시키는 훈련 (소그룹 등). 행정 훈련. 기독교 심리학.
- 영성. 행정. 관계
- 각 권의 말씀 자체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기도 훈련에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인간관계훈련. 소그룹 인도자 훈련. 내적 치유. 상담과 코칭.

- Leadership. Relationship. Coaching
- 성경 전체 주석/강해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능력. 굳이 원어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을 설교로 전달 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
- 보다 충실한 이론적 신학 교육. 깊이 있고 충실한 성경 연구. 관계와 성품 개발. 자발적 경건 훈련과 멘토링.
-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면 전도사로 사역할 기회가 생기는데, 전도사가 되는 그날부터 설교를 하게 되고 보통 어린 영혼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난 무엇을 알았기에 사역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목회자 후보생 시절부터 노회 or 교회에서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경험(인턴쉽) 갖추게 하여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 과거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규 사역자의 설교를 점검, 교육(설문서 작성, 스피치 등)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온 사역자는 경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담임목사님의 마지막 점검을 득 해야만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면 누구도 자신의 설교를 점검해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점검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갑자기 좋은 설교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수많은 실수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훈련보다 영성 훈련이, 영성훈련보다는 인성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되었지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공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생 때부터 좋은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회자는 얼마나 소명, 사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공부의 방향이 옳으냐의 문제를 넘어서) 보통 사람들이 받는 샐러리보다 못한 것을 받으며 온전히 소명,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후보생 때부터 직면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점검한 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한국의 신학교에서의 훈련도 미진하지만 한인교회 or 미국의 신학교 훈련은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유수의 신학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그들의 영성과 한인교회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은 무엇을 해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 교회에서도 후보생들을 대할 때 "1.5 세니까, 2 세니까"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좋은 목회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1.5 세니까, 2 세니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러진 목회자는 결국 이민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자로 길으려면 사자 새끼로 대해야지 고양이로 대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KM 과 EM 사역자 모두에게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고 동일한 샐러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EM 에서 KM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될 일도 아니고 반발도 많을 것 입니다.) EM 으로 성장하여 EM 교회를 이루거나 EM 으로 성장하여 이민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어떤 민족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EM 교육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만 그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은 무엇일까요? 언어는 신앙입니다. 이민 교회에 맞는 한국적 신앙은 한국어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EM 으로 자라 새벽 기도를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철저한 헌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구요? 교회에서 현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아이들은 이미 포기한 교육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M 사역자에게 영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기대 할 수 없기에 쓸 내용도 없습니다. 대부분에 후보생이 EM 이기에 첨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온 사역자들을 필요로 할까요… 늘 이민교회도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EM 에게는 없는 충성심과 영성, 사역 현장에서의 능력, 저렴한 샐러리, 공동체관 등이 필요해서 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장하는 후보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사역자는 늘 한국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왜 이민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세대는 단절되어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없는가 늘 고민입니다. 모든 시스템의 대전환이 없다면 우리의 내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않는 이 시대에 이 연구를 통해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길러지길 소망합니다.
- 인문학 서적을 충분히 읽겠다. 좋은 담임 목회자 밑에서 목회 수업을 받고 싶다.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받고 싶다. 건강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배울 것이다. 부사역자의 경험 (설교, 예배, 찬양, 소그룹 훈련, 전도 등)을 충분히 받고 싶다.
- 재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 리더쉽 교육. 교회(목회) 행정학. 영성 훈련.
- 교회. 목회.
- 탈봇 신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고 신학 교육을 받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상 훈련 부분이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내면을 다루어 주는 부분의 훈련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목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훈련도 있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성경읽기,성경 묵상, 기도생활, 독서(신학,문화,사회), 인간이해(심리학), 기존의 다양한 영역의 신학수업
- 관계훈련, 삶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 이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해와 예방
- 체계적인 조직신학 개념 정리, 성경적 역사신학, 실질적 예배학, 현장 중심의 교회 행정, 개인 영성훈련, 본질 중심의 교회관과 예배관, 선교관
- 여러 교단의 신학적 노선 비교, 타종교에 대한 기본적 소양, 독서 방법, 글쓰기에 대한 교육, 인간이해(자기자신,성도,교역자)에 대한 부분
- 목회기획과 관련된 목회행정, 설교학, 소그룹 이론과 실제, 선교 outreach, Missional church 와 교회론, 기독교상담, 자기치유
- 기도 및 영성 훈련, 조직 및 시스템, 관계 및 공동체, Conflict resolution
- 상담 훈련, 체계적인 말씀 훈련, 제자 교육, 전도 훈련, 목회 철학의 통일성, 독서하는 습관을 갖는 것, 언어 훈련, 정확한 발음

-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 말씀사관학교(아틀란타 어느 한인신학교처럼), 원어를 더 많이 공부, 졸업 후에 개인 연구 가능하도록, 찬양에 대한 기술적인 면, 악기- 1 인 1 악기
- 성경적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 기독교적 가치관&세계관 훈련,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훈련, 기독교적 인문학 교육
- 영성훈련, 성경연구, 현장성 있는 신학이론 적용
- 기도, 상담, 성서개관, 기독교역사, 신구약 배경연구
- 소그룹 인도훈련, 갈등 상황 속 리더십, 상담학,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 조금 더 쉽게 체계적인 원어수업, 설교학+ 풍부한 실습, 상담 실습, 권위 및 물질에 대한 훈련
- 이상과 현실(이론과 현실) 그리고 계획과 실천의 거리를 좁히는 훈련, 인성교육, 인간관계, 열정, 성령의 뜻과 나의 뜻(계획/생각)을 일치시키는 훈련, 기도, 말씀, 찬양, 겸손, 온유 인내, 관용,
- 기존의 신학교 성경 이론 교육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경 주해, 개론 등 성경본문연구훈련,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총회, 교단의 조직 신학적 체계 훈련, 현장 목회(교회사역)와 관련된 신학교 과목(실천)을 신설해서 교육 전도사 목회부목까지의 실제적인 실천 목회 수업이 있어야 함. 성경적 지식과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어떻게 교회 사역 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지 교회 행정관련 교육도 필요 (예-심방, 교적 관리, 목회자팀사역, 장례 등 실천 예식 교육 등), 노인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등 전체적인 사역 관련 교회 목회 체계 훈련도 필요할 듯, 신학생 성품, 인성, 사회성 관계 훈련도 많이 필요. 신학교에서 담임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라 지금의 학교에서 교회사 역의 여러 부분 (담임,부목, 교육)과 선교사 지망, 비영리단체, 교육 사역, NGO 등 좀 더 사역의 범위를 넓혀 생각하게 만들고 신학교 공부 중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를 둘 수 있도록 넓은 사역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육이 필요. 왜냐하면 모두 담임목사만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조정이 필요하다. 소명과 사명을 계속 확인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 신학교수가 할 수 없는 실천 목회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목회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교수가 필요하고 필요시 현장 교회

사역 훈련을 좀 더 이수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음. 담임목회자, 부목사, 전도사 등 교회 안에서의 행정적 예외와 팀웍과 관련된 목회 윤리와 성품에 대한 교육은 절실히 필요. 무엇보다 성경본문 중심의 교육, 기도의 영성, 기타 영성 훈련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

VI. 설문 결과에 대한 정리

우리는 위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느 연령대의 목회자냐와 상관없이 대부분 10 년 차 이상의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현재의 신학 교육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목회자를 훈련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둘째, 모든 인간은 평생 어린 시절의 환경과 인간 관계에서 형성된 성격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사실은 목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 목회자의 치유되지 않은, 그리고 왜곡된 성격은 목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이것은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실제 경험해 온 사실이다.

셋째,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내면치유, 왜곡된 성격의 치유, 관계훈련, 그리고 영성과 현장에 대한 필요 등이 신학교에서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신학교와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교회가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여 서로의 강점을 보완, 목회자를 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넷째,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조직과 시스템, 소그룹, 행정 등 비본질적 요소보다는 설교, 기도, 내면의 건강함, 관계 등 본질적 요소에 대한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 5 장

Case Studies

전통적 신학교육만으로는 목회현장을 담당할 목회자를 양육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 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중 몇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I. 성령사관 아카데미[124]

들어가는 말

아틀란트 조지아 크리스천대학(George Christian University-GCU)에는 성령사관 아카데미라는 특수 대학원이 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장영일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2014 년 설립했다.

인성교육을 위해 성령사관 아카데미는 소수 정예를 선발해 수도원식 생활을 한다. 매일 새벽 5 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난과 배고픔을 깨닫기 위해서 매일 점심은 금식한다. '노동은 기도의 한 형태'라고 믿고 그 상태에서 매일 2 시부터 3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 이들은 말 농장이던 1 만 2000 평 땅을 개간하여 과일 나무를 심고 있다. 장 전 총장은 "처음에는 세 끼 먹던 젊은이들이 두 끼만 먹고, 일까지 하려니 모두 힘들어 한다. 그러나 함께 일하다 보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했다.

노동 시간 외에는 성경에 집중한다. 여느 신학교처럼 조직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이다. 졸업전 까지 성경 30 독,

[124] 성령사관 아카데미의 내용은 아래 웹싸이트에서 발췌했다. http://soa2015.or.kr/

2000 절 암송, 1 회 필사가 의무사항이다. 전공에 따라 졸업전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주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기 다다라야 한다.

2 년동안 성경만 보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 장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 신앙은 보수적이되 신학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학문은 과학이다. 항상 최신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신학을 잘 알고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령 아카데미의 2 년 과정을 마치면 GCU 가 인정하는 M.A.T.S.(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학위를 받게 된다.

성령사관 아카데미의 브로셔를 보면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인성과 영성의 부족,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충만에서 기원하는 능력의 고갈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충만에 이르는 지름길은 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범으로 보여 주신대로 성경 말씀(요 6:63)과 기도(행 1:14; 눅 11:13)에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령충만을 통하여 순교자적 영성과 인성을 지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삼은 본 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 성령사관 아카데미의 교육목표

성령사관 아카데미는 영성과 지성과 덕성 3 분야에 집중된 훈련을 통하여 균형잡힌 목회자/선교사가 되게 하는 인턴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여 훈련 시킬 것입니다.

- 말씀과 기도와 희생적 봉사 훈련을 통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구비된, 하나님께 인정받고(고후 10:18)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롬 4:18) 균형잡힌 지도자
-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 성령충만(행 13:9)과 철저한 종말론과 순교정신으로 무장되어(행 20:24)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마 16:24) 땅끝까지 달려 갈 수 있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사람
- 청교도처럼 '코람 데오'의 삶,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과 청빈과 순결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람 (딤전 1:19)
-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머슴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람 (고전 9:19~22)
- 성서학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구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법과 원전 강해를 필수적으로 수강케 함
- 원망과 불평과 비방을 삼가고, 오직 격려와 칭찬과 감사에 길들여진 긍정적인 사람 (롬 14:10; 고전 10:10)
-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며, 세상에서의 그 어떤 명예나 메달보다 값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의의 면류관에 집중하는 사람(딤후 4:7-8)

- 모세,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및 사도바울처럼 애국애족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
- 인본주의자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신본주의적 애국자
- 부모, 스승, 선배를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온유 겸손한 인성을 구비한 사람

2. 성령사관 아카데미의 커리큘럼

A. 영성훈련

a) 성경통독
b) 성경필사
c) 새벽기도
d) 수도원노동
e) 금식훈련

B. 신학훈련

a) 신학과 농업
b) 헬라어 문법(강독)
c) 히브리어 문법(강독)
d) 선교영어
e) 성서신학
f) 성경주석방법
g) 기독교교육한
h) 명사초청특강

C. 적용훈련

a) 현지 교회 탐방
b) 현지 교회 파트 사역

D. 인성훈련

a) 공동체 생활을 통한 관계 훈련

3. 분석 및 평가

1) 이 학교의 훈련 목표는 영성과 지성, 덕성의 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리큘럼은 철저하게 이 세 분야에서 균형 잡힌 목회자/선교를 길러내고자 계획되었다.
2) 수도원식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영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노동과 점심 금식을 통하여 자기와의 싸움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다.

4)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팀웍을 다지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5) 단 아쉬운 것은 목회자/선교사 현장에 나갔을 때 과연 이러한 훈련 만으로 목회 현장의 복잡한 관계와 장애물들을 잘 헤쳐 나갈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II. MTS Program(호주 시드니 St.Matthias Church)

MTS(Ministry Training Scheme, 이하 'MTS')은 호주 시드니의 NSW(New South Wales)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퍼스 운동이다. MTS 는 Philip Jenson[125]목사가 St.Matthias Church[126]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NSW 대학의 Chaplain 을 맡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필자가 시드니에 소재한 Moore Theological College (이하 'Moore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할 때 St.Matthias Church 의 Staff 로서 1994 년 1 년간 시드니 대학 캠퍼스를 담당한 적이 있어서 제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다.

MTS 훈련생은 보통 대학을 졸업한 후 3-4 년 정도 자신의 전공을 따라 직장에서 일을 한 후에 2 년 과정의 MTS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된다. 훈련생들은 NSW 대학 근처에 삼삼오오 집을 얻어서 공동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캠퍼스에서 일대일 전도에 집중한다. 일단 전도한 사람이 영접까지 책임을 지며, 영접을 하고 나면 전공별로 또한 학년별로 정해진 책임자에게 인도된다. 그 이후 단과대학별로 정해진 요일의 점심 시간에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신앙 훈련이 시작된다. 1 년 학기 중간인 6-7 월 겨울방학 때 열리는 Mid-Year Conference 에 참석하고, 학기가 끝나는 12 월에 또 한번 Year-End Conference 에 참석한다. 1 년에 두 번 열리는 Conference 에는 5-6 천명 정도이 대학생들이 참여하며, 이 conference 를 통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도전을 받고, 그 중에 헌신하려는 학생들은 conference 에 곧장 이어 진행되는 Staff Conference 에 참석하여 헌신의 동기와 자질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125] MTS program 을 처음 시작한 필립젠슨 목사의 홈페이지 https://phillipjensen.com/about/.
[126] MTS Program 의 Base Camp 인 St.Matthians Church 의 홈페이지, https://www.matthias.org.au/ministry-partners/mts-ministry-training-strategy.

된다. 이곳에서 긍정적인 답을 얻은 학생들은 졸업 후 3-4 년간 직장 생활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며 재정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MTS 과정에 들어와서 2 년간 집중적인 전도 양육 재생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2 년 동안의 MTS 사역을 통해서 검증된 훈련생들은 MTS 리더십의 추천을 받아 Moore 신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신학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필자가 Moore 신학교에서 수업하던 시기 MTS 출신들과 함께 수업을 듣곤 했는데, 2 년의 풀타임 현장 훈련의 경험을 가지고 신학 수업을 하는 그들은 눈이 살아 있었고 학급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았다. 당시 한 친구에게 MTS 과정 후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였었는데, 그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 먼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목마름이 생겼는데 현장에서 목말라 했던 수업을 받으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둘째, 현장에서 사역 경험을 하고 신학 수업을 받으니 신학이 죽은 학문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다가온다.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현장을 떠올리게 되고 이 신학 수업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다는 영감이 생기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수업 시간이 너무나 흥분된다.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MTS 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훈련과 사역들을 살펴 보았는데, 필자가 staff 으로 섬겼던 1994 년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목요일 저녁에 전체 pastoral staff, campus 책임자들, 그리고 50 여명의 MTS 훈련생 전체가 큰 강당에 모여서 Philip Jensen 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사역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은 한주간의 전체 사역을 전체 멤버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Philip Jensen 의 답변을 통해서 생생한 사역의 경험과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래 내용은 MTS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논문에 첨가한다.

1. What is MTS?[127]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Matthew 9:37-38

[127] 아래 내용은 MTS 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https://mts.com.au/

MTS seeks to multiply gospel workers through ministry apprenticeships.

We aim to help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identify and train gifted individuals before helping them to decide on the next step in their ministry. We want every Christian to:

- **Be trained to be the best servants of Christ they can be through ministry apprenticeship**
- **Continually grow in the knowledge and service of God**
- **Train other ministry apprentices.**

Vision, Mission and Mission Objectives of MTS

The Vision of MTS is: 'To win the world for Christ by multiplying Gospel Workers through ministry apprenticeships'.

The Mission of MTS is: 'To raise up, train and resource MTS Trainers, as they multiply Gospel Workers through ministry apprenticeships'.

The Mission Objectives of MTS are:

1. **Recruit and grow the number of active Trainers**
2. **Equip Trainers to Recruit Apprentices**
3. **Equip Trainers to Train Apprentices**
4. **Retain and Grow (Develop) Trainers to be Entrusters**
5. **Develop internationally and locally run MTS movements**

More about MTS

MTS is an organization committed to obeying the words of Jesus Christ in the great commission –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TS stands for 'Ministry Training Strategy'. It is a vision, a strategy and mindset all in one.

MTS is supported by a team of staff and volunteers. We work in partnership with a number of other organizations.

But Isn't Training Gospel Workers the Job of Denominations?

Yes and no. The New Testament has no knowledge of denominations, and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training and growth firmly with the local church. Local churches may decide to support external theological colleges, but the place where New Testament leaders are recognized and trained is in the local gathering.

Is MTS and this approach really necessary? I'm too busy already.

There will always be 'too much' to do in ministry. There will always be people who need to hear the life-saving gospel of Jesus Christ. If we want to reach them we need to move beyond merely maintaining existing structures. We will need to recruit and train willing and able people to help us. Jesus, Paul and the other apostles spoke about this, did this, and encouraged us to pray that God would raise up workers for the harvest. Far from being too busy or an "optional extra", this is the job that God gives us to be busy with.

How can we afford this?

A better question might be how can we afford *not* to do this?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aking the gospel and passing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Nevertheless, there are practical steps that can be considered as steps on the way towards the goal – voluntary apprenticeships, part-time apprenticeships, inviting motivated individuals to act as sponsors, and approaching MTS for further advice.

Why does MTS advocate 'Apprenticeships'?

Our view is that considering and 'tasting' the ministry of the Word – even well before enrolling in theological college – is a worthy and important thing to do. We think that the 'apprenticeship' approach makes good sense. Not only is it grounded on important biblical principles but also on active participation in evangelism and bible teaching, all under the leadership of a trainer. As ministry is conducted in relationship, a two-year apprenticeship enables real learning, real experience and real relationships to develop, the value of which could never be captured/repeated in a classroom context. An apprenticeship can also be adapted to any ministry context and can be tailor-made by trainers to their apprentic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apprenticeships visit the Apprenticeships page.

2. Orientation to MTS[128]

Introduction

These are some key areas to discuss in setting up our teamwork each year and in providing some orientation for Apprentices. We need to learn to set policies and standards for our ministries. They are an aid to thinking about life and godliness and help us to lead our ministry teams. In ministry there is no 'clocking on and off'. When are we at work and when are we not at work? Some events are

[128] 아래 내용 전체는 MTS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하였다. www.mts.com.au.

clearly work, others are not. There are work patterns but also many irregular 'divine interruptions'.

1) Adjusting To Ministry As Work

(See MTS Training Discussion Paper 8.01)

2) Role Of Spouses of Apprentices

Make adjustments if spouse is a husband.

Expectations

Many churches feel they are getting two workers for the price of one, which is unfair. We expect our wives to be nothing more or less than a Christian women. That will include being a faithful church member and so be in church regularly and in a Bible Study group. If they are never at church, then there is a problem.

We are happy for wives to do whatever else they would like to do. If they want to take up formal ministries, it is their choice. They are welcome to attend all staff training programs, and are always considered a member of the team.

Realistically, there are other ways we expect wives will help the whole team. For example, the home phone becomes the work phone number. Also, hospitality to others will involve family and affect the family routine.

Adjustments and frustrations

There are many kinds of adjustments that wives need to make. Some wives will have to make more adjustments than others depending on what things they have done previously.

- **Many wives would prefer to be in the ministry themselves rather than go out and earn the money. Husbands need to encourage their wives to see themselves as partners in the ministry. They are looking at a long period of training.**
- **Financial costs may mean delaying having children which can be emotionally difficult. Women need to learn to be content and positive about the decisions they have made.**

- **Sometimes wives have to cope with big financial pressures. Both partners need to understand that it is only for a few years, although it may seem like the situation will remain forever.**
- **Wives who are home with children will find days off difficult because she will want to go out and he will want to stay at home and see no one.**
- **Being married to someone in ministry is very disruptive to your social networks as you keep changing churches etc. Wives need to be aware that this may happen and have strategies to deal with it.**
- **Wives will find that the relationships that they have will be determined more and more by your husband. It is important for the wives' emotional wellbeing to hang on to some key relationships from the past.**
- **Most wives get anxious about their husbands: their future, failings, criticisms etc. If a wife is anxious it would be helpful for her to remember she is married to a capable man and she should try not to worry too much. However, if she needs to worry, someone will speak to her.**
- **Wives need to accept that their husbands need to 'fail' on MTS, so that they will learn and thus stretch themselves.**
- **One of the thing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men to enter public ministry is the inability of their wives to cope with criticism. If your husband is going to be a godly minister of the gospel, he will be criticized, so a wife needs to learn how to cope with this.**
- **Husbands do not necessarily need to repeat every criticism to their wives because it will hurt the wife more than it hurts the husband to say it.**
- **Wives should not compare their husband to others on the team.**
- **It is important never to marry a minister, but a man. Never be a minister's wife but a man's wife. The greatest contribution wives can make is not by ministering publicly but by loving their husbands privately. A man's wife can make or break his ministry. She can make his ministry not because she is running lots of ministry, but because she makes him the man God meant him to be by complementing and completing him.**
- **It is important to remember wives just have to be themselves.**

Training

Spouses should get involved in as much training and ministry as possible. Sometimes they can be in a ministry with their partner, such as teaching a class.

3) Privacy and Confidentiality.

We are in the people business and we gather loads of information.

- **The underlying principle is: will it be edifying to tell this?**
- **Beware of gossip. Do not speak if there is no benefit to the person concerned.**
- **If a colleague tells us about another person, do not tell other staff and don't treat the information as public knowledge.**
- **We may raise issues confidentiality with the team to discuss what is best for specific people. This can also further our training.**
- **What is said in the staff meeting is not to go elsewhere. Be loyal to one another.**
- **Never let people bind you to total confidentiality. We need to be able to tell our spouse or leaders if appropriate. Sometimes we need to share things we know with others (spouse, staff) as a safety valve.**
- **If you are given information that has legal overtones, encourage the person to make restitution and set the situation right. Talk to your Trainer and see if a solicitor should be consulted. Suggest: "I won't tell anyone without telling you first." Also, you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report crimes. This should be done through your trainer - don't jump in and do it yourself. The best way to do it may in fact be to work the person around to confessing to the police themselves.**
- **When asked a question, we are not compelled to answer - just do not lie.**
- **When we talk about people, the way we do it is very important -never a put-down, but in love with concern for godliness.**
- **It can be helpful for new staff to start from square one in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not be told all the details about specific people. It is often better to work out our own understanding of the person.**
- **There may be things that certain people need to know - you need to use wisdom to work out what to tell who and when; i.e. what should be passed on and what should be forgotten.**
- **Response cards. Never throw them out! We are fanatically interested in the person the card represents. If you never throw out a card, you will never throw out the wrong one! You never know where a contact will lead.**
- **Any information given on cards is only given to eldership and staff.**

- **Even within church membership, don't give information out freely.**
- **NEVER give out a woman's details. Refer enquires to the Office, and they will contact on the enquirer's behalf. No woman's phone number should ever appear on any advertising.**
- **Any information given to you it is assumed that you are able to tell your supervisor. This doesn't mean you have to tell them, but don't share it with everyone else (information only up and down, not across). Share information only for the benefit of the person you're caring for – if you don't know what to do etc.**

4) Alcohol

- **We are free to drink or abstain.**
- **We are not free to get drunk 1 Timothy 3:3 etc.**
- **Never be open to the accusation of even being tipsy.**
- **Recognize that alcohol will be a problem for many in church life.**
- **We are not free to cause others to stumble. Alcohol is an area where some Christians are convinced that it is wrong.**
- **Don't be the person to initiate or encourage drinking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mage you are doing or the model you are setting.**
- **Social pressure to drink is worse than drinking itself.**
- **Generally it is best not to serve alcohol or to promote it in church life.**
-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in which we live. Alcohol abuse is very common in our society. (1/20 Australians are alcoholics; 1/4 Australians live with alcoholics). As the problem is not being addressed it is not good for Christian leaders to take leadership in drinking alcohol.**

5) Money

- **Christ's Name is disgraced and ministries are ruined through greed and embezzlement.**
- **There must be absolute integrity in all money matters.**
- **There must be the appearance of absolute integrity in all money matters.**
- **Ministers should not physically handle the congregation's money and so not to appear to have a hand in the till.**

- **At Conferences and Bookstalls you do have to handle money, but here you are dealing with business transactions rather than donations.**
- **Keep good money records and issue receipts so that all is recorded. Never borrow from the bookstall.**
- **Be aware of our greed. 1 Peter 5:2**
- **Be determined to be content with your own wages.**
- **In ministry, we are not at liberty to receive money from other sources but to depend on our own congregation of welfare. Any money we receive should go to the church. In particular, we must not accept any money from congregation members so that we will not be indebted to anyone and not tempted to do anything for money. Make up your mind to do it now.**

  Exceptions: money from family, small kind tokens of love, out of pocket expenses.

  If we keep these gifts, we cultivate greed and learn that ministry can be used for monetary gain. We do not need these gifts since we are provided for through our church, MTS, working etc. We can be generous by insisting the gift is passed on to others, especially the organizations that fund us.
- **Greed and embezzlement ruin ministries all the time. A requirement of elders is that they must not be greedy for money (1 Tim 3, Titus 1, 1 Peter 5).**
- **Ministers will get paid but that should not be their motive in ministering.**
- **If a ministry is being run as a business it will do what attracts the crowd so more people will give more money. This will not be gospel ministry.**
- **What do you do if you are building your own platform? Find a treasurer and don't handle the money yourself.**

6) Gender Issues

1 Tim 5:1-2

Working with colleagues of the opposite sex:

- **In one sense there is no difference as ministers of the gospel.**
- **Our physical and emotional capacity is different. Women's capacity for relationship is greater than most males, but this takes its toll. Women are often more compassionate, more generous, understand others better, and are more sensitive.**
- **Men tend to be task-centered with female co-workers rather than relational.**

- **For women, the future is less certain in some ways and this leads to anxiety.**
- **Men should do the physical work.**
- **Men tend to make unilateral decisions rather than through discussion with women.**
- **Men should be shepherds and protectors of women.**
- **Be aware that working in ministry together can breed emotional and sexual intimacy.**

Ministry to the opposite sex:

- **Christ's Name is disgraced and ministries are ruined through sexual unfaithfulness.**
- **There must be no appearance of evil as well as no evil.**
- **As far as possible, establish channels that enable primary pastoral responsibility for women to be taken up by other women, and for men by other men.**
- **Meet publicly, rather than privately, both for your reputation and godliness. Don't set up regular appointments with someone of the opposite sex.**
- **It is easy to talk about life and seek support from someone other than your spouse. This can lead to relational risk.**
- **If you feel there is any threat upo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take immediate action!!**
- **Be accountable to your Trainer in this.**

7) Dress

- **Clothing is a statement about yourself, so you need to be thoughtful about what you are trying to say.**
- **Some people are more sensitive than others.**
- **People do notice what you're wearing.**
- **We must dress to avoid distraction or offence.**
- **What helps you to preach the gospel is what matters, not what you like.**
- **Dress appropriately for the context - part of the context will be age.**

Modesty:

I also want the women to dress modestly, with decency and propriety, adorning themselves, not with elaborate hairstyles or gold or pearls or expensive clothes, but with good deeds, appropriate for women who profess to worship God.
1 Timothy 2:9-10

- **Paul calls women to modesty as an outward expression that they follow the Lord, turning away from worldly ideals of beauty or status that are pursued through appearance.**
- **The way a person dresses can have an impact on another believer's struggle against lust, however this is not the Bible's impetus for modesty. Women are told to dress modesty for the sake of their own godliness and profession of faith, not burdening them with responsibility for another person's sin.**
- **It is possible for men to dress immodestly as well, and so need to be equally as conscious of the thought process behind their decisions about dress.**
- **Conversations about modesty, either with ministry workers or congregation members, may at times be necessary. These should be handled with sensitivity, realizing that there may be bigger issues of insecurity and body image underlying the person's immodesty.**
- **Modesty should be preached on rarely but exampled consistently by staff and other lay leaders.**
- **Rather than setting absolutes, nurture a culture in which Christians give thoughtful consideration to their dress, as in all other areas of godliness.**

8) Extra-curricular ministries

Eg. speaking at camps, youth groups etc. Some considerations:

- **Which ones will further your training goals?**
- **Ensure your local responsibilities are fulfilled first.**
- **Watch the ego.**

9) Other Adjustments And Pitfalls

- **Moving into a new ministry for training**
- **Relating to your congregation as a staff member**
- **Others expectations**
- **Finding out the history and agenda of an existing ministry/group**

- **Competing and comparing**
- **Freedom to fail**

3. MTS Apprentice Curriculum (MTS 훈련생을 위한 커리큘럼)

The ministry apprentice curriculum involves doing practical ministry under the specific guidance, support and supervision of an MTS accredited ministry trainer. The training program is designed to be undertaken prior to doing formal theological study, with the purpose of enabling apprentices to get a feel for what a life of ministry is like, and to help them decide whether they are suited for it in the long run. The apprentice will be based within a church or a specialist ministry team, and while the exac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ill vary according to where they are serving, the aim is that every apprentice will be exposed to ministry in a wide range of contexts and receive thorough on the job training and feedback.

- **An MTS apprentice will serve in a full time (40 hours per week) position for a fixed term of two years.**
-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ill vary from week to week, but the overall breakdown of an apprentice's working week should reflect the following proportions:**

  – 1.5 days MTS apprentice curriculum as outlined below

  – 3.5 days hands on ministry

  This is a five-day training partnership between MTS and the local church to train and develop the next generation of gospel workers.

• Each apprentice has a program tailor-made for them and their training context, but the three broad areas addressed in all programs are training in the three 'C's:

– Christian conviction
– Christian character
– Competence in the work of Christian ministry

These three areas are further divided into eight key learning areas, as shown in the table below.

<표 10> MTS Key Learning Areas

	Key Learning Areas
CONVICTION	**1. Bible Study**

	2. Thinking Theologically
CHARACTER	**3. Prayer and Godliness**
	4. Relationships in Ministry
COMPETENCE	**5. Evangelism and World Mission**
	6. Teaching the Bible
	7. Training Others in Ministry
	8. Leadership

4. Apprentice Development Planner (후보생들의 자기 성장 계획표)

This development planner is used at the commencement of the apprenticeship to help both trainer and apprentice decide upon areas of growth to work on during the apprenticeship. It is also used to track progress and plan training at each review stage, including the final assessment. The trainer helps the apprentice develop their goals.

<표 11> **MTS** 후보생의 자기 성장 계획표

Key Training Area	**Learning Strand**	**Learning Objects (Apprentice will be able to …)**
Conviction (Knowing God)	**1.Bible Study Apprentices should develop commitment to the Bible, respecting it as the revealed and reliable Word of God, as well as cultivating the desire and the skills to read and apply it.**	• **Explain why the Word of God is reliable.** • **Demonstrate persistence in the discipline of daily Bible reading.** • **Demonstrate persist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Bible to daily life.** • **Construct a timeline showing the flow of events in Scripture.** • **Explain the meaning of specific passages within their immediate context and the whole message of Scripture.**
	2.Thinking Theologically Apprentices should have a sound understanding of the gospel, and grow in their ability to reflect theologically and critically about Christian ministry.	• **Explain the gospel of God's grace in terms of:** ○ **the elective purposes of God** ○ **the nature of sin** ○ **God's righteous judgement** ○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 **justification by faith.** • **Explain the doctrine of revelation and critique alternative views of knowing God.**

		• **Explain the elements of evangelical ministry and critique alternative views of Christian ministry.**
Character (Godly Living)	**3.Prayer and Godliness Apprentices should strive to live out a mature Christian life characterized by a love for and trust in God. Their reliance on his power should be expressed through prayer. Apprentices should demonstrate a commitment to personal integrity, especially in the areas of faithfulness, truthfulness, purity and self-control.**	• **Demonstrate perseverance in daily prayer.** • **Demonstrate extensive prayer, reflecting God's concerns.** • **Demonstrate leadership of family and friends in the Word of God and prayer, encouraging them in Christian faith and maturity.** • **Consciously submit to the Word of God in obedience, making specific changes in thinking, attitude and actions.** • **Identify ungodly motivations—for example, wanting to preach in order to get attention or praise from people instead of wanting to preach in order to love and serve people.**
	4. Relationship in Ministry **Apprentices should cultivate a humble, self-giving attitude towards others. Apprentices should exercise sober judgement and pastoral sensitivity, and grow in their listening abilities and skills in building rapport and trust. They should be teachable and open to feedback.**	• **Volunteer for unattractive jobs.** • **Demonstrate 'going the extra mile' in serving people.** • **Serve in areas outside of formal responsibilities.** • **Demonstrate reliability in big and small matters.** • **Demonstrate a long-term interest in people.** • **Work cooperatively with others.** • **Look not only to their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the team, even prioritizing the interests of the team above their own.** • **Submit to leaders and be loyal.** • **Listen to others.** • **Speak the truth in a gentle but firm manner.** • **Respond to feedback in a teachable manner.** • **Resolve personal conflicts with people.** • **Respond to criticism in an open, non-defensive manner.**

		• **Demonstrate awareness of how their manners and personality affect others.** • **Build rapport with people from other age groups and backgrounds.**
Competence	**5. Evangelism and World Mission** **Apprentices should engage in proclaiming the gospel while firmly relying on the Holy Spirit. Apprentices should have a heart for the lost, sympathy for the background of their hearers (individuals and groups), and a commitment to world evangelism.**	• **Build friendship with non-Christians.** • **Establish rapport with people in evangelistic situations.** • **Explain the gospel clearly.** • **Boldly urge people to respond to Christ.** • **Offer the appropriate 'next step' for individuals.** • **Answer questions and objections.** • **Follow up new Christians.** • **Foster commitment in others to evangelism.** • **Cultivate a world vision for evangelism, not just a local vision.**
	6. Teaching the Bible **Apprentices should work at building mature Christians by teaching the Bible one-to-one, in small groups and in public settings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 **Exegete and explain a passage of the Bible.** • **Help individuals make progress in the Christian life by applying the Bible to their lives.** • **Read the Bible one-to-one.** • **Lead a Bible study discussion.** • **Give a talk from a passage of the Bible.** • **When teaching the Bible, apply principles of how people learn.** • **Lead in church and/or in other gatherings by reading the Bible, chairing meetings, interviewing people and so on.**
	7. Training Other in Ministry **Apprentices should proactively identify people's gifts and potential. Apprentices should work at equipping these people through the Word of God for godly living,**	• **Recognize people's gifts and therefore in what ministries they should serve.** • **Train a personal evangelist.** • **Train an assistant in small group ministry.** • **Actively identify and coach those who should consider vocational ministry.**

	instilling in them the vision to reach the world with the gospel, and encouraging them to develop skills to minister to others.	
	8. Leadership **Apprentices should work at motivating, inspiring and organizing people to work together in teams. Apprentices need to set a clear vision, and think and act strategically, even initiating new ministries to break into uncharted terrain to advance the gospel.**	• **Organize how to use their time, make plans and implement them.** • **Identify their own leadership style, their gifts and their flaws.** • **Adapt a style so that it enhances rather than hinders relationships.** • **Recruit others onto a ministry team.** • **Develop and implement ministry plans.** • **Delegate responsibilities and follow-up.** • **Resolve conflict positively.** • **Start a new ministry.** • **Raise money for ministry.** • **Provide the vision and direction for a ministry.**

5. COURSE SYLLABUS

PRE-READING

- **The Trellis and the Vine by Col Marshall and Tony Payne**
- **Passing the Baton: A Handbook to Ministry Apprenticeship by Col Marshall**
- **MTS Discussion Papers:**
  - **8.01 'Adjusting to Ministry as Work'**
  - **8.02 'Orientation to MTS'**

In each of the 8 key learning areas there are compulsory (or core) units of reading and exercises, and also elective (or recommended) reading. All compulsory units or work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2 years.

Note: You may already be fulfilling some of these learning objectives as part of your study if you are a scholarship apprentice.

The MTS curriculum requires that all trainees complete 1080 hours of training (540 hours per annum). The compulsory curriculum detailed in the table

below, caters for 649 hours of training to be completed over the two-year period. In order to satisfy the curriculum requirements, candidates will be expected to complete a further 431 hours of training from the MTS elective syllabus.

For the purposes of this document, only the compulsory reading and exercises are shown in the table below. For a fuller explanation of the Training Exercises, and also for information regarding elective reading and other helpful resources, please see the MTS website.

The course syllabus is intended as a framework. Trainers, in consultation with apprentices may agree to exchange core or elective modules with other material of comparable depth and quality.

Apprentices will also be expected to attend the MTS G8 National Apprentice Conference. It is at this conference that they will be able to attend the "Passing the Baton' and the 'Trellis and the Vine' Training Workshops.

<표 12 > MTS Personal Worship

	CORE READING	TRAINING EXERCISE
1. BIBLE STUDY	**According to Plan by *Graeme Goldsworthy* (8hs)** **Or** **God's Big Picture by *Vaughan Roberts* (8hrs)** **'How to Read the Bible' by Matthias Media Briefing #55(1hr)** **MTS Discussion Papers:** **1.02 'Must I Learn to interpret the Bible?' *Don Carson*(1hr)** **1.03 'Bottom Up and Top Down' *Andrew Shead*(1hr)**	**1.01 Read the Whole Bible(77hrs)** **1.03 Expert in a New Testament Book(20hrs)**
2. THINKING THEOLOGICALLY	**The Cross of Christ by *John Stott* (12hrs)** **MTS Discussion Papers:** **2.01 'Biblical Pragmatics' (1hr)** **2.05 'Four Ways to Live' (1hr)**	**3.01 Prayer Habits (2hrs for recording prayer habits)** **3.02 The Extra Mile (at least 1hr per week=96hrs)** **3.03 Pray with Others (1 hr per week=96 hrs)**

	2.06 'The Christian Experience of God – Part 1' *John Woodhouse* (1hr) **2.07 'Subjective Evidence for the Truth of Christianity' *Peter Bolt* (1hr)** **2.08 'The Christian Experience of God-Part 2' *John Woodhouse* (1hr)** **2.10 'Slogans – Reformation' *John Woodhouse* (1hr)**	
3. PRAYER AND GODLINESS	**A Call to Spiritual Reformation *Don Carson* (8hrs)** **MTS Discussion Papers** **3.01 'Living God Who Hears' *Graham Cole* (1hr)** **3.03 'Why Do We Pray?' *Tony Payne* (1/2 hr)** **3.04 'Why We Don't Pray?) *Tony Payne* (1/2hr)** **3.05 'How Can We Pray?' *Tony Payne* (1/2hr)** **3.06 'What to Pray?' *Tony Payne* (1/2hr)** **3.07 '7 Principles of Prayer' *Broughton Knox* (1hr)**	**3.01 Prayer Habits (2hrs for recording prayer habits)** **3.02 The Extra Mile (at least 1hr per week =96 hrs)** **3.03 Pray with Others (1 hr per week = 96 hrs)**
4. RELATIIOSHIPS IN MINISTRY	**MTS Discussion Papers:** **4.01 'Facing Opposition' (1hr)** **4.02 'The Ministry of Welcoming' *Rick Lewers* (1 hr)** **4.04 'Dealing with Antagonism' *Kenneth C. Haugk* (1 hr)** **4.05 'Ministry of the Pew' *Col Marshall* (1 hr)**	**4.01 Ministry of the Pew (5 hrs)** **4.02 Visit Newcomers and members (20 hrs)** **4.07 Ministry amongst Elders (5 hrs)**
5. EVANGELISM AND WORLD MISSION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J.I.Packer* (6 hrs)**	**5.01 Walk-Up Evangelism (10 hrs)**

	'10 in 2' *Ben Pfahlert* (Sola Panel Blog) (30 mins) **MTS Discussion Papers:** **5.01 'Aren't All good People Christians?' (1 hr)** **5.02 'Giving a Testimony' (30 mins)** **5.03 'Walk-Up Evangelism' (30 mins)** **5.08 'Pastors as Ghetto Blasters-Creating the Evangelistic Pastor' *Colin Marshall* (1 hr)** **5.09 'Things to Say When You Are Asked the Questions of the Moment' *John Dickson* (1 hr)**	**5.04 Follow up Contacts (3 hrs)** **5.05 Follow Up a New Christian (3 hrs)** **5.06 Establish New People in Church (3 hrs)** **5.07 Evangelistic Talk (5 hrs)** **5.08 Q&A Evangelism (5 hrs)**
6. TEACHING THE BIBLE	**Growth Groups *Col Marshall* (8 hrs)** **Leading Better Bible Studies *Rod and Karen Morris* (8 hrs)** **MTS Discussion Papers:** **6.01 'How to Run a Meeting' (1.5 hrs)** **6.02 'Ministry to Individuals' (1 hr)** **6.03 'Preparation for Preaching' (1 hr)** **6.06 'One-to-One Prayer and Bible Reading' *Colin Marshall* (1 hr)**	**6.01 Read the Bible One-to-One (20 hrs)** **6.03 Lead an Adult Bible Study (1 hr for Preparation per study. Assuming 40 weeks of Bible Study a year = 80 hrs)** **6.04 Read the Bible in Church (1 hr)** **6.05 Lead in Prayer in Church (1 hr)** **6.06 Lead the Meeting (2 hrs)** **6.07 Listen to Preaching (3 hrs)** **6.08 Give a Bible Talk (8 hrs)**
7. TRAING OTHERS IN MINISTRY	**The Trellis and the Vine *Col Marshall* (8 hrs)** **All for the Kingdom *Katie Omrod and Ben Pfahlert* (4 hrs)** **MTS Discussion Papers:** **Coaching Papers 1 & 2** **Recruiting to Ministry** **Training Men and Women**	**Rellis and the Vine Worshop (Run at the MTS G8 National Apprentice Conference Each Year. Designed for first year Apprentices.) (21 hrs)**

	Interview Guide **Train Others**	

ELECTIVES SYLLABLUS

<표 13> MTS Workshop Elective Syllablus

	ELECTIVE READING	**ELECTIVE TRAINING EXERCISE**
2. Thinking Theologically	**2.02 'Children of Ressurection' (1 hr)** **2.03 'Eschatology' (1 hr)** **2.04 'Ministr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staments' (1 hr)** **2.09 'Inspired Aspirations – The Holy Spirit – Part 1' *Phillip Jensen* (1 hr)**	**2.05 Design a Ministry Program (20 hrs)** **2.06 Organize a Christian Bookstall (5 hrs)** **2.07 Prepare a Talk on Choosing a Church (5 hrs)**

6. 'Adjusting to Ministry as Work'

We need to remember the distinction between our ministry as a Christian and our work – as a Christian. Some ministries are just because we are Christian, not because we are employed in ministry. Hence there will always be more ministry to do than we can get to.

Rhythm of Life

Adjusting to Ministry Work

These notes are written especially for those commencing MTS Training.

Ministry work is open-ended and tends to be unstructured

In ministry there is no 'clocking on and off'. When are we at work and when are we not at work? Some events are clearly work, others are not. There are work patterns but also many irregular 'divine interruptions'.

Ministry is like no other job. The closest parallel is running a family business or a farm.

- **We work at home**
- **It involves our whole life including our family**
- **Our friends are our customers**
- **The pattern is irregular**

This can lead to laziness and disorganization or workaholism and guilt or a combination of all of these. There is no partition in life between work and ministry; hence we live an integrated lifestyle, which is a good thing. On the other hand it is oppressive because we are never free.

Some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while others love it. It is like moving from an urban lifestyle to a small country town, almost a fish-bowl existence.

Ministry work has less concrete achievements

This can mean low work satisfaction and motivation. We never know what (if anything) we have achieved. We are not even always sure what we are trying to achieve. There are very few concrete achievements (even leading someone to Christ is God's work, and they may fall away). We may have been more faithful in a situation where someone rejected the gospel.

Perfectionists and high-structured people find it difficult and tend to worry about: How do I use my time? Am I doing the right thing?

There is no job description for MTS. This is partly because we are deliberately trying to train entrepreneurs. We don't want to limit trainees in what they expect to have to do, but to create an environment of trying new ideas to minister the gospel. The downside is this sense of not knowing whether we have done the job.

In ministry we have a high degree of discretionary time

All of this means we need to be self-managers and learn to use time to create ministries. For many this is a completely new way of working and takes some time to adjust.

In ministry we work when others are not

We do more work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than most people. We need to accept this lifestyle and enjoy the compensations. For example, we can take the kids to school and be home when they come home.

Working from home

There are positives – low commuting time, and negatives – a sense of isolation, distractions at home in a non-work environment, etc. We need to make rules for ourselves (e.g. TV not on while the sun is up) and exercise some discipline. Work out when it is appropriate for the kids to come into the study. It helps to talk through with our spouse patterns of being 'at work' and 'at home'. Then flexibility is needed to avoid resentment.

Working in the marketplace

Rather than working at home and only going out for specific appointments, we need to spend a lot of time out and about in the community we are trying to reach. This is especially true while doing MTS. Hidden away in our homes means we spend most of our time at the desk rather than with people. So for campus Trainees, spend most of the day at Uni, parked in a cafeteria, alternating between preparation, appointments and unplanned time with people as they come by. For church-based Trainees, maybe try shopping centers or the city, where our church members pass by or at least are accessible.

Work and Rest

We need to learn how to work faithfully and honestly without going on a guilt trip when we need to take time off for normal living. The problem is that we

could become very lazy or too busy. Most MTS Trainees are not lazy so rest needs to be stressed generally. Hence:

- **Work six days, and rest one.**
- **You need 36 contiguous hours (i.e. two nights and a complete dawn-to-dusk day) as your day off. This means not 24 separate hours scattered through the week.**
- **If we don't have a rest day, we will burn out in a few years because it is affecting us now.**
- **Part time staff need more flexibility. The stress of work combined with ministry creates more pressure.**
- **Make sure that you are not seen as a workaholic. Do not be guilty about relaxing and enjoying life and let others know you rest and recreate.**
- **If possible, keep one day a week (besides your day off) without regular commitments, as an alternative day off after weekend house parties etc. Your spouse won't have the same flexibility, so you can't do it regularly.**
- **There can be conflict between spouses as to how to spend your rest days. If the husband is in ministry and his wife at work, usually the wife wants to socialize, and the husband wants to avoid people. Therefore, you need to compromise. Think about who you can see – some people will be 'work' and some will not.**

Holidays

- **Plan 4 weeks for full-time and 5 weeks for part time because of the flexibility needed to fit ministry holidays around their paid work.**
- **Female Trainees also need 5 weeks because of the stress levels they experience in ministry.**
- **There are key times in the ministry year to avoid holidays.**

  Relating to others about our work patterns

  When talking to congregation members, we need to be careful about the impression we give about how hard we work. We could give the impression that we work too hard or that we are lazy. We need to be careful about

talking about how we spend our time because it is hard for others to relate to our work-lifestyle. Much of what we do doesn't sound like work. Also, we should be careful not to be insensitive about how hard other people are working.

Diary

We cannot do any kind of Christian ministry without a diary. Buy one, write in it and read it! We need to be organized, so we need a system that works for us.

Ministry as a Christian and work as a staff member

You need to get a feel for the rhythm of life on MTS. This example is from the UNSW Team.

<표 14> MTS Monthly Sample Diary

January	**slower** **prepare studies and training courses and organize the year**
Feb - Easter	**flat out** **set up and start running lots of groups in that time** **many newcomers to campus and church** **don't pack Easter full of activities but take time to relax**
Easter-June	**hard work** **meeting with individuals and groups inviting to midyear conference (MYC)**
June- MYC	**a bit slower** **preparation for MYC** **phone calls to financial partners and other follow up plan a short holiday** **MYC is exhausting and then session 2 starts**
MYC- September	**long grind up to midsession break at the end of September** **Invites to Club 5**
October-early November	**need to keep chasing people many become Christians during this time**
Nov-Dec	**there is still almost two months left in the year– make the most of the time**

Part-Time MTS

Most part-time trainees do paid work for 2-3 days to fund the training. It is always more demanding doing two part-time jobs and especially when one of them is open-ended, like ministry. Watch the stress levels. Try and avoid other stresses in life if you can – MTS is stressful enough.

- **Choose paid work that is not too stressful, given the demands of people ministry**
- **Part timers can only do about 1/3 of the workload of full-timers. Hence, you must be realistic about how much you can do**
- **Part timers have problems because their other job means they don't have the same flexibility as full-timers. If a house party takes up your day off, you can't have another day off. This may mean that there are some house parties you just have to miss or cancel some regular appointments so you can go to the house party.**
- **Full-time trainees need to protect the part-timers and not have unrealistic expectations. Part-timers are working harder and are usually under more financial stress**
- **Holidays are tricky. Take 5 weeks annually off ministry and get as much leave from the paid job as possible. If you're doing ministry during your paid work annual leave you can't have a proper holiday.**
- **Be diligent in taking one day off each week.**
- **Flat mates and home structures can be stressful. Don't choose flat mates who rely and depend on you. You need to have a home life where you can relax and recover.**
- **Live as close as possible to work and your ministry center so you aren't travelling far.**

7. 분석 및 평가

1) MTS 는 최소 지난 50 년간 캠퍼스 현장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2) MTS 는 모든 훈련이 전도와 양육, 재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들의 거의 모든 일과는 불신자를 접촉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는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접하려고 최선을 다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MTS 훈련생은 잃어 버린

영혼에 대하여 더 불타는 가슴을 갖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경험을 통하여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접근하여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된다. 즉, 어느 목회 현장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잃어 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3)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체계적인 신학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본격적인 신학 수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학 수업이 딱딱한 학문과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4) 또한 다양한 목회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신학을 배우면서 바로 자신이 경험한 현장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
5) MTS 의 한가지 약점은 지역교회의 사역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모든 훈련이 철저하게 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MTS 훈련을 지역교회와 함께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내용과 열매의 귀추가 주목된다.

III. Deploy Program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

들어가는 말

인디애나(State of Indiana)주의 Winona Lake 에 위치한 Grace Theological Seminary(이하, Grace 신학교)는 목회자 후보생의 훈련을 위하여 신학교의 강점과 역동적 사역현장의 강점을 함께 접목한 Deploy Program 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목회자 후보생이 신학교 캠퍼스에서 신학 공부에 전념하는 대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프로그램이다.

Grace 신학교가 Deploy 과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신학교육이 가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목회자 후보생이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3 년에서 4 년 정도 가족과 직장을 떠나야 한다. 둘째, 현 신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목회자 후보생이 처한 개인적 상황, 미래의 사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다. 더구나 신학교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신학교 재학 기간동안 사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찾기가 어렵다. 셋째, 신학교육은 기본적으로 목회 현장을 준비하는 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목회 멘토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론 자체로 머물게 된다. 넷째, 졸업과 동시에 학위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역의 능력, 사역의 역량과 정비례하지 않는 모순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신학교 재학 시 치솟는 학비를 감당할 경제적 공급처(source)가 없고, 졸업 후에는 학비 생활비에 대한 융자금이 부담으로 남아 목회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1. Deploy Program 의 취지와 목적[129]

Theological education has been a value of the church since its inception. This value has been a constant throughout church history; however, methodology has often been modified to meet the needs of God's people. Toda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ological education that is accessible, affordable, and contextualized. In other words, an online seminary option that is available for those who want

[129] 이 내용은 Grace 신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www.seminary.grace.edu.

graduate theological education without leaving their community, church, job, or relocating their family. We have responded to this need through Deploy.

Deploy uses a 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 (CBTE) model delivering seminary online and onsite within a ministry context at your local church or para-church ministry. This is seminary at the speed of life—a self-paced graduate education program designed to minimize disruption to ministry, work, and family priorities, while optimizing students' spiritual formation and professional ministry training. And the best part? It produces competent and credentialed leaders within your church without creating unnecessary vacancies in your staff or inflicting upon them the unbearable burden of student loan debt.

- **On Site, At Your Church: We use a 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 (CBTE) model delivering seminary online and onsite within a ministry context at your local church.**
- **Accelerated Education: This innovative program can be accomplished much faster than traditional seminary degrees. Students must achieve a minimum B grace of mastery in order to progress to the next competency. No waiting. Master one and move one.**
- **Hands On Practicum: While receiving formal theological training from an academic mentor, all students participate in active service opportunities within the local church where they will document, dialogue, and deconstruction their experiences with an insightful ministry mentor, all while receiving shepherding from spiritual mentor.**

2. Deploy Program 의 Curriculum

아래는 **Grace** 신학교에서 진행중인 **M.Div. Deploy Program** 과 **MA in Local Church** 중 **Residential** 과 **Deploy Program** 을 비교해 보았다.

General M.Div. Deploy Program	MA in Local Church Residential Program	MA in Local Church Deploy Program
Embracing Sanctification	**Systematic Theology I**	**Embracing Sanctification**
Thinking Critically in Ministry	**Systematic Theology II**	**Thinking Critically in Ministry**
Becoming a Mature Disciple	**Hermeneutics**	**Becoming a Mature Disciple**
Research & Writing	**Biblical Backgrounds**	**Research & Writing**

Practicing Biblical Hermeneutics	**New Testament Survey**	**Practicing Biblical Hermeneutics**
Understanding biblically Healthy Churches	**Old Testament Introduction**	**Understanding biblically Healthy Churches**
Exercising Flexibility in Ministry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ayer**	**Exercising Flexibility in Ministry**
Applying Biblical Exegesis	**Spiritual Formation**	**Applying Biblical Exegesis**
Articulating Biblical Theology	**Intercultural Ministry**	**Articulating Biblical Theology**
Utilizing Biblical Languages	**Ministry Philosophy for the Church**	**Embodying the Love of God**
Applying foundational Doctrines	**Expository Preaching and Teaching**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Doctrine	**Leadership in the Local Church**	**Articulating Personal Theology**
Embodying the Love of God	**Interpersonal Comm. & Conflict Management**	**Resolving Leadership conflict**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History of Doctrine and the Church**	**Communicating God' Truth**
Articulating Personal Theology	**Local Church Appreticeship**	**Initiating Transformational Change**
Resolving Leadership conflict	**Church Appreticeship II**	
Communicating God' Truth		
Initiating Transformational Change		

3. 분석 및 평가

1) Grace 신학교의 Deploy Program 은 미국의 유수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현재 신학교가 가진 목회자 후보생의 교육에 대한 허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2) Deploy Program 은 신학교육은 온라인으로, 사역은 신학생이 몸 담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는 학교가 학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역의 경우 목회자가 멘토가 되어 사역을 지도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멘토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깊숙하게 그리고 현장성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한 신학생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사역을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교회이거나 본인의 열심과 상관없이 너무 규모가 작아 훈련 받을 내용이 어렵다면 이 신학생의 목회 훈련에는 큰 허점이 생길 여지가 많다.

3) 필자는 Grace 신학교가 Deploy Program 을 시행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생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웠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다. 신학생들이 목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목회지와 연결해서 신학생들이 신학교가 설정한 목회 훈련을 받게 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담당자와 만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끝내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4) 신학교 가운데 Grace 신학교와 같은 이러한 시도들이 더 많아져서 목회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실하게 섬길 수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훈련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 6 장

목회자 훈련을 위한 대안 제시

들어가는 말

이민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계승하는 것이다. 복음 계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훈련하여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대 이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목회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 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목회자를 훈련하는 곳은 찾기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앞 장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것은 실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학교에서 최고의 학위까지 공부를 했지만 그러한 신학 수업이 목회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고백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다. 물론 이것이 신학교의 교육 내용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신학교의 교육이 대부분 학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현장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회 운명의 많은 부분은 목회자의 역량에 달려 있고, 현재 목회자들이 목회 훈련을 받는 곳은 신학교인데 신학 교육이 실제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의 과정이 되지 못한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목회자 훈련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신뢰하는 신학교와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신학교육을 받기 전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회 현장에서 먼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다음과 같은 훈련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예수전도단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130]

필자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이하 **'YWAM')**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하, **'DTS'**)과정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예수전도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적, 초교파적 선교단체이다. 국제 예수전도단은 1960 년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 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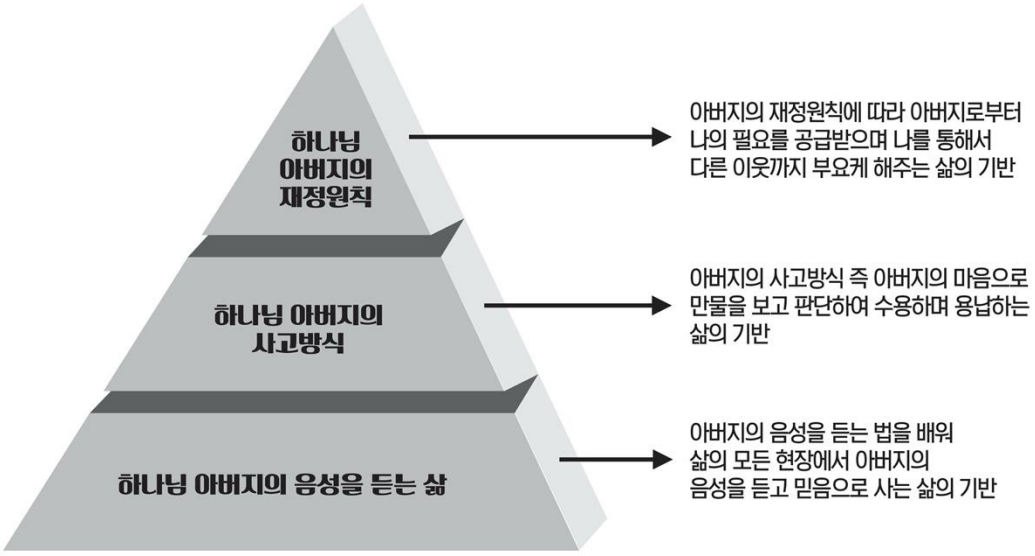
1.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란 무엇인가?

들어가는 말

DTS 는 열방대학 제자훈련의 첫번째 과정이다. **DTS** 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도록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DTS** 는 개인의 제자화를 통해 각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함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는데 주안점을 둔다. **DTS** 는 대체로 12 주의 강의와 12 주의 전도여행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전제로 한다.

훈련의 세가지 기반은 피라미드의 모양으로 설명된다. 이 기반은 훈련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이기도 하지만 예수전도단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기반을 의미한다

[130] 예수전도단의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ywam.org)**와 필자가 2017 년 1 월부터 6 월까지 하와이 **KONA** 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받았던 **NE Korea DTS** 의 교본과 노트를 참고하였다.



특별히 **DTS** 는 훈련 이후의 삶에서도 다음 4 가지의 목표를 가진다. 첫번째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매일의 경건한 삶, 중보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습관화한다. 두번째 목표는, 학생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특히 겸손, 관대함, 죄에 대해 자원하여 고백하고 회개함,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섬김이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다. 세번째 목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심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듣도록 돕는 것이다. 네번째 목표는, YWAM 을 비롯한 선교단체나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DTS 의 교육과정과 특징

DTS 의 커리큘럼은 5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는데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로서 내적치유, 다림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셋째는 나와 타인의 관계로서 개인 성품 개발, 건전한 관계의 법칙, 용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넷째는 나와 세상의 관계로서 전도, 선교, 청지기적 삶 등의 내용이다. 다섯째는 나와 사단의 관계에서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예수전도단의 DTS과정 중 핵심내용을 목회자후보생을 훈련하는 내용에 넣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3.1.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영성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이후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호랑이 그림을 보고 호랑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에 생명의 능력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호랑이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말이 설사 어눌하고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도 호랑이를 설명할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친밀한 친교를 누려야 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앞서 살펴본 모세, 다윗, 느헤미야의 영성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다. 그들이 부족했어도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 주신 소명, 그리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학교를 포함하여 목회자로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거나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이다. 물론 삶의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목회자 후보생들도 있을 것이다. 즉,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게 경험한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의 지식 면에서는 성도들보다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부분에서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DTS 훈련 과정의 첫번째 중점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다.[131] 즉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것을 돕는다. 신학은 성경 이상의 내용이 실려 있다. 각 교단의 색깔과 강조점, 신학교수 개인의 성향도 신학에 녹아진다. 그래서 신학이 목회자 후보생들의 사고와 마음을 굳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여 신학을 접할 때 신학은 목회자 후보생의 가슴에서 비로소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

3.2. 내적 치유

3.2.1. 내적 치유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지나간 기억들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과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들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해 지는 것을 결코 아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를 과거 속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건강하게 독립시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132]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재조명이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내적 치유는 바꾸는 것이다.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하여 과거의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미래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재해석하여 결과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치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본래의 최상의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여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내적 치유는 과거에 받은 정서적, 영적 상처들을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치료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사역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다림줄에 의해 재어진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

[131] 제 6 장 I.예수전도단의 2. **DTS** 의 교육과정과 특징(157 페이지)'를 참고하라.
[132] 영성: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에서 쓰이는 영성이란 단어는 자질 또는 역량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필자 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인간의 삶에 대한 다림줄, 즉 척도로 삼으신다.[133] 따라서 내적 치유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2.2. 내적 치유의 필요성

목회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가정으로서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기능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내면의 상처가 없이 자란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되기 이전, 태어나 자라면서 받은 내면의 상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결핍된 환경과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내면의 상처들은 목회자로 부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남아서 자신과 공동체에 역기능을 하게 된다. 자존감이 해결되지 못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섬길 때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목회자의 감정적인 취약성은 사역 속에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 목회자 본인이 자신과 대인 관계의 문제의 핵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경과 주변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제 4 장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결되지 못한 목회자의 내적 상처[134]는 목회자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33] 주서택, 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적 치유의 24 가지 실제적 사례*, 서울: 순출판사, 1997 년 109.

[134] 내적 상처를 입게 되는 아주 흔한 원인은 가정불화, 잔소리, 비판, 심한 권위주의적 훈련, 그리고 여러 형태의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특히 생각의 분별이 약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시절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릴 때의 연약한 인격은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치유되지 못한 내적 상처는 거의 어릴 때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특히 어린 시절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인간 권위자들과의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상처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정서적인 면으로는 슬픔(sadness), 자기연민(self-pity), 자기증오, 의기소침, 무관심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적인 면에서는 열등의식, 불안정 등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는 원한, 자만심, 지나친 책임감, 분개 및 비통, 비판적 성향, 지배욕과 소유욕, 우월의식과 경쟁의식, 완고함, 배우기를 싫어함 등으로

하나님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능의 가정에서만 목회자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상처가 남아 내면의 갈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자신 안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적절한 내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내면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

왜 **DTS** 인가? **DTS** 의 훈련 과정에서 강조하는 두번째가 자신과의 관계로서 내적치유, 다림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135]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 쓴뿌리 등 과거를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조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와 훈련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도록 돕는다. 목회자 후보생은 이미 내적 치유의 열매가 검증된 예수전도단의 **DTS** 과정을 통하여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경험을 토대로 목회의 현장에서 내적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경험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3.3. 성령의 은사와 영적 세계 이해하기

성경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신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으니 실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야 말로 보이는 물질세계보다 더 분명한 실체이다. 사탄은 보이지 않으나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 이것은 결코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난다. 성경은 그래서 영적 전쟁의 여러 모양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아래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 24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25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26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누가복음 11:24-26, 새번역성경)

나타난다. 목회자의 내적 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러한 성격적 결함들이 목회자에게 있어 목회현장에서 드러난다면 성도들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35] 제 6 장 I.예수전도단의 2. **DTS** 의 교육과정과 특징(157 페이지)’를 참고하라.

악한 영들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나의 생각이 아니다. 악한 영이 심어준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분별이 안되면 자신이 생각을 검증하지 않고 그 생각대로 살게 된다.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넘긴 사람이다. 스승을 죽음에 이르도록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가룟유다의 생각, 그 생각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악마가 이미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새번역성경)

사탄의 공격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다. 그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마 16:21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 16:21-23, 새번역성경).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 직후에도 사탄의 영적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적은 내용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영적 실제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본 논문 2장 III. 3에서 예를 들었던 몇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영적 실제와 세계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영적 전쟁이란 주제 자체를 터부시 하는 신학교들도 많이 있다.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영적 실제를 믿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 일상의 삶에서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목회자는 그것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무지하면 그 목회자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에게 누가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우쳐 줄 수 있겠는가?

그 뿐 아니다. 한국 보수신학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는 미국의 모 신학교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는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라고 가르친다. 설사 오순절의 역사는 단회적이라 할찌라도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만약 목회자가 지금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에 의지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설교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과연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많은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칠만한 영적 세계와 영적 실제를 경험하여 아는 교수진이 없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예수전도단의 DTS는 지나친 신비주의나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성경의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DTS의 교육 과정은 '나와 사단의 관계에서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36] 목회자 후보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현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늘 깨어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3.4. 전도 및 선교 훈련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 이유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주셨던 대사명(Great Commission, 마28:19-20), 즉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곧 전도 및 선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불행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킨 경험이 있는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부흥의 시기를 돌아보면 노방 전도를 비롯해서 대각성전도집회, 열린 예배, 그리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총동원 전도주일 같이 끊임없이 영혼을 얻고자 시도했다. 캠퍼스의 선교활동도 활발해서 캠퍼스를 통한 복음 전도의 열매도 이어졌다. 그러나 폭발적 부흥 이후 전도에 대한 열정은 식어갔고 그 결과 수평 이동을 제외하고, 순수한 전도로 얻는 영혼구원의 열매는 점차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거의 그런 사례를 찾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라고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136] 제 6 장 I.예수전도단의 2. **DTS** 의 교육과정과 특징(157 페이지)'를 참고하라.

그러나 폭발적 부흥의 시기에 은혜 받아 소명을 받고 헌신했던 목회자들의 경우 미련한 전도의 방법 없이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감당치 못할 정도로 목격했기 때문인지 전도의 열정이 약할 뿐 아니라, 전도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따라서 전도의 노하우도 없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둔 경험을 가진 목회자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과 소아시아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르게 된 과정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도의 역사였다. 전도에 대한 성도들의 열정은 결국 목회자의 열정을 닮아 간다. 그러나 자신이 전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목회자는 전도를 강조할 수 없다. 설사 강조를 해도 그 강조에 성도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설득을 담아 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목회자 훈련에 있어서 전도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다. 전도 훈련은 첫째 전도의 도구(tool)에 대한 이론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 주셔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자기 나름의 전도에 대한 도구가 있다면 더 확신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필자는 호주 시드니에서 신학교를 다닐 시절 시드니 대학에서 2년간 캠퍼스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Two Ways to Live'**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Bridge'**라든지 '사영리', '전도폭발훈련' 등 검증되고 잘 알려진 전도의 도구들이 많이 있다. 어느 것이든 목회자가 언제 어느때나 누구에게든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을 나누고 변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론 훈련에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전도훈련을 통하여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목회자의 가슴에 복음이 생생하게 불 타올고 구령의 열심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교회가 가진 여력 내에서 목회자 훈련을 시도하였는데, 전도 훈련의 경우 대학 캠퍼스에서 전문적으로 전도에 집중해 온 선교단체의 간사에게 위임하여 일주일에 이틀 그 간사의 전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 간사와 함께 자신이 직접 전도를 해 보도록 시도하였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없는 복음을 믿도록 시도한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시드니 대학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전도는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는 사람이 먼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말재주와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회를 거듭할수록 전도하는 본인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고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얻게 된다.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교회는 저절로 부흥을 하거나 수평이동을 통해서 부흥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목회자는 자신이 직접 복음을 들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리더로 훈련시키는 영적 재생산 사이클을 직접 담당해야 하며, 이것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가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 목회자 훈련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교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본인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것이 필요하다. **DTS**훈련 과정에 들어 있는 **Outreach**과정은 목회자 후보생이 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열방 민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선교를 시도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잃어 버린 열방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을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목회자 훈련과 **Outreach**기간 동안 같은 팀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를 갖는다. 헌신과 희생의 중요성, 먼저 자원하는 것의 귀함, 그리고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 과정 중 핵심 내용을 목회자 훈련의 과정으로 도입한다면 신학교가 다루지 못하는, 그러나 목회현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에 대한 훈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I. 생터 성경 사역원의 전문 강사 스쿨

1. 생터 성경 사역원이란?

생터성경사역원은 2001 년 미국 볼티모어 벧엘교회의 담임목사 사모로 있던 이애실 사모가 벧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20 년간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경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면 생터성경사역원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생터란 '생장점이 터진다'는 말의 약어이다. 즉,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궁금함을 해결함으로서 말씀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137] 필자가 생터성경사역원의 과정을 목회자 훈련과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5 년 이상 생터성경사역원의 과정을 필자가 섬기는 교회[138]에 접목하면서 이 사역의 영적 유익을 몸소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2. 전문강사스쿨

2.1. 전문강사스쿨의 취지[139]

생터성경사역원의 설립자인 이애실대표는 2001 년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하여 '성경일독'사역을 시작하였다.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본인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강사의 필요성이 생겼으며, 그 필요에 따라서 2007 년에 제 1 기 전문강사스쿨이 시작되었다.

2.2. 전문 강사스쿨(이하 '전강스쿨')의 목적

생터성경사역원 전문강사스쿨(이하 전강스쿨)은 생터성경사역원의 성경일독학교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

[137] 자세한 사항은 생터성경사역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www.ahaja.org
[138] LA 사랑의교회, www.LAsarang.com.
[139] 전문강사스쿨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커리큘럼은 전문강사스쿨 첫 시간에 나누어 주는 생터성경사역원의 유인물에서 발췌하였다.

2.3. 전문강사 스쿨 개요

2.3.1. 총 소요기간 : 약 6 개월

2.3.2. 스쿨의 강의 구성

1. 인도자컨퍼런스
    - 1 주간 intensive
    - 월~금(7pm-11pm)
    - 이애실 대표님의 10 개의 동영상 강의
2. OTEL (1 주간 intensive)
    - Old Testament Experience Learning
    - EL 강의는 본부에서 파송하는 EL 강사로부터
    - 구약성경방에서 강의해야 할 13 과(오리엔테이션 포함) 표준 강의를 듣는다.
3. OTML (1 주간 intensive)
    - Old Testament Management Learning
    - 이애실 대표의 동영상 강의이며, 구약 13 과를 어떻게 강의 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다.
4. 중간고사 (구약)
5. 구약 실체성
    - 실체성은 “실제 체험 성경방”의 줄임말로서, 학생들이 각자가 원하는 과를 선택하여 학우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 이 때 EL 강사가 참관하여 보석(feedback)을 준다.
6. NTEL (1 주간 intensive)
    - New Testament Experience Learning
    - EL 강의는 본부에서 파송하는 EL 강사로부터 신약성경방에서 강의해야 할 신약 12 과의 표준 강의를 듣는다.
7. NTML (1 주간 intensive)
    - New Testament Management Learning
    - 이애실 대표의 12 개의 동영상 강의. 신약 12 과를 어떻게 강의 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다.
8. 기말고사 (신약)
9. 신약 실체성
    - 실체성은 “실제 체험 성경방”의 줄임말로서, 학생들이 각자가 원하는 과를 선택하여 학우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 이 때 EL 강사가 참관하여 보석(feedback)을 준다.

10. 기타
    - 스쿨이 진행되는 동안 과제도 함께 완수해야 한다.
    - 과제는 크게 독서보고서, 특강보고서가 있다.
    - 독서보고서는 책을 읽고, 특강보고서는 특강동영상(스쿨에서 동영상 파일 제공)을 시청한 후 report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2.3.3. 전문강사 스쿨 학사 일정표 (샘플, LA 2 기)>

<표 15> 생터성경사역원의 전문강사 학사 일정표 샘플(LA2 기)

날짜	수업내용	과제
6.10(월)	배치고사, 입학예배 및 Orientation	'이스라엘 역사' 책
6.14(금)~6.17(월)	인도자 컨퍼런스	
6.24(월)/ 6.29(토)	OTEL 1, 2/ OTEL 3, 4	111 독서보고서 창조과학 특강보고서 '어 성경'구약 책읽기
7.1(월)/ 7.6(토)	OTEL 5, 6	
7.8(월)/ 7.13(토)	OTEL 7, 8/ OTEL 9, 10	
7.15(월)/ 7.20(토)	OTEL 11, 12/ OTML Orientation 1	'세계관' 특강보고서 '노아홍수' 독서보고서 '구약네비' 책
7.22(월)/ 7.27(토)	OTML 2,3,4/ OTEM 5,6,7	
7.29(월)/ 8/3(토)	OTML 8,9,10/ OTML 11,12	
8.5(월)	중간고사	
8.12(월~8.24(토)	구약 실체성	
8.26(월)/ 8.31(토)	NTEL 1,2/ NTEL 3,4	'혼인' 독서보고서 '어 성경' 신약 책 '거룩한 땅' 독서보고서
9.2(월)/ 9.7(토)	NTEL 5,6/ NTEL 7,8	
9.9(월)/ 9.14(토)	NTEL 9,10/ NTEL 11,12	
9/16(월)/ 9.21(토)	NTML 1,2/ NTML 3,4,5	'신약 네비' 책 자증적 설교 '하나님나라' 특강보고서 '세계관' 독서보고서
9.23(월)/ 9.28(토)	NTML 6,7,8/ NTML 9,10	
9.30(월)/ 10.5(토)	NTML 11,12/가정학습	
10.7(월)	기말고사	
10.14(월)~10.26(토)	신약 실체성	
10.28(월)~11.1(금)	졸업사정	
11.9(토)	졸업예배 및 졸업만찬	
11.11(월)~	팀 티칭	

3. 생터성경사역원의 전문강사스쿨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들어가는 말

목회자 후보생에 대한 훈련을 구상하면서 생터성경사역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강사스쿨의 과정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필지가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이애실 대표가 필자가 섬기는 LA 사랑의교회에 와서 6 일간 이어지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140]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 두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40]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는 생터성경사역원에서 일반교회를 대상으로 행하는 기본 세미나이다 (필자 주).

첫째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신학 그 자체였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러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고, 제자훈련 마지막 과정인 사역반에서도 '성경파노라마'라는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은 단순한 성경통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경신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필자가 생터성경사역원의 사역 전체를 교회에서 받아 들이고 접목하게 된 첫번째 이유였다.

또한 두번째 이유는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평소에 필자는 한 인생이 바른 성경적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삶의 방향성과 소명의 발견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교회 개척 이후에 성도들에게 역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애실 대표가 진행했던 세미나 첫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왔고, 그 순간 눈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미주의 어느 교회보다 이 사역을 활발하게 교회 안에 접목시키면서 첫 세미나 당시 가졌던 필자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평신도들을 전문강사스쿨에 입학시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평신도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바쁜 이민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전문강사스쿨의 6 개월 훈련 과정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감당해야 할 과제와 준비의 양을 보았을 때 과연 누가 감히 도전할지 염려도 있었다. 또한 평신도를 전문강사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이 같은 평신도의 강의를 들으려고 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을 전문강사스쿨에 강권하여 시작하도록 했던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제 3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준비하여 가르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자신이 받게 될 영향력과 감화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경 본문 자체와 흐름,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앞에 자신이 서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년간 교회 내에서 이 사역을 시행하면서 세미나 첫날 필자의 마음에 들어왔던 확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필자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전문강사스쿨의 과정을 밟게 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된다.

40 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4-9,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절절하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주일학교의 경우, 어린 자녀들의 주의(主意)를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 도구(tool)를 사용하지만 실제 성경 본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체를 읽도록 하는 주일학교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 전체를 1 독 이상 읽은 성도들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도 개개인에게는 성경을 읽지 않는(더 정확하게는, 읽지 못하는) 합당하고도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읽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의 흐름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신학교에 들어온 목회자 후보생이 예외일 리는 없다. 즉, 목회자 후보생이라 할지라도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 본문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그리 틀린 가정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신학교 재학 중에 성경 본문을 읽을 기회는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신학자들의 수 많은 이론은 공부해도 실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성경 본문을 읽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바쁜 목회의 현장에서 늘 마음이 쫓기기 때문이다. 설교하게 될 본문에 대한 묵상은 있겠으나 성경 통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볼 때 이 시대의 신앙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성경 통독은 결코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 성도 자신이 성경을 펴서 본인이 읽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한다. 목회자도 성도도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한다. 성경 통독의 유익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목회자 후보생이 전강 스쿨을 한다면 성경 본문과 마주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서는 강의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충 읽어서는 강의를 준비하기 어렵다. 해당되는 적지 않은 본문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며 이해해야 한다. 이 작업이야 말로 성경에 있는 보석을 캐내는 작업이다.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의 견해를 배우기 전에 본문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보석을 캐내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강 스쿨에서 배우는 것이고 전강으로 강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3.2.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

친밀한 교제는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가능하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잘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생명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깊고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성도들도, 목회자 후보생들도, 목회자도 성경 본문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읽지 않는다. 짧은 한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서 얻는 유익도 있고, 정해진 본문을 묵상함으로서 얻는 유익도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서 전체 메세지를 항상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강사스쿨은 이것을 돕는다. 전강으로 말씀을 나눌때 누구보다 먼저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전강 스쿨을 이수하여 전강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려는 두번째 이유이다.

3.3.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파악할 때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성경적 역사의식이란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갖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 이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역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인데, 이 윤회설은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불교의 역사는 일정한 방향이 없다. 따라서 불교는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성경적 역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3.3.1. 역사의식을 통해서 삶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인생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태어난 인생 중에 영원히 사는 인생도 없다.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번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이다. 역사의 끝이 있고 이것이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열심히 사는 이상으로 바른 방향성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역사의식, 즉,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전체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 때 역사의 한 점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창조주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 방향에 자신의 삶을 조율할 수 있다. 역사의 방향에 역행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은 본인은 열심히 살았을 지 모르지만 인생의 끝에 서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3.3.2. 역사 의식이 분명할 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명 한명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조차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 소명의식이 없는 성도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과 가족 등 땅의 것들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141] 즉, 우리 각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의 틈새를 메꾸기를 기대하신다. 이러한 역사 의식은 현재 역사의 틈새가 무엇인지 보게 하고 그 역사의 틈새를 메꾸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자원하도록 인도한다. 즉,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역사의 이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틈새를 메꾸는 삶을 살게 해 준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며, 성경적 역사관이 분명할 때 바른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 목회자가 자신의 부르심을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충만한 사명감으로 한 평생을 그 틈새를 메꾸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3.3.3. 역사의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역사 앞에서의 겸손은 자신이 부족해서 느끼는 자의식보다 더 근본적인 겸손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적 주권과 권한을 갖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고, 우리는 그 분의 피조물로서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한 점에 잠시 등장해서 절대주권자인 왕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고 다시 역사에서 사라지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가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땅에서 어떤 포지션을 추구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이러한 역사의식을 통하여 목회자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피조물로서 넘어가서는 안되는 선을 지킬 수 있다. 필자가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까불면 다치고, 그래도 까불면 죽는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까불면 안된다”. 이것은 긴 역사의 흐름에서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연약한 피조물 임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당연한 자세요 마음가짐이다.

---

[141]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엡 2:10).

3.3.4. 역사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결정된다. 즉, 관점은 해석을 만들고 해석은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 목회자는 리더로서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목회자라는 포지션 자체가 목회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 주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 육의 관점, 경험의 관점, 합리적 관점 이상을 볼 수 없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경험의 관점과 상식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광야에서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절망은 그들의 관점과 해석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반면 모세는 같은 광야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야의 축복을 설파할 수 있었다.[142] 즉,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요 영적 관점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보는 관점이다. 목회자는 신앙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가 처한 상황, 공동체가 처한 시대, 그리고 각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해 주도록 부름 받았다. 이 관점은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3.3.5. 이 밖에도 성경적 역사 의식이 주는 유익은 무궁무진하다. 역사의식을 통해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의 참된 평가는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므로 사람에게 져 주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 받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명성과 명예로 부터 자유해 진다. 그것이 헛된 것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이 있으면 역사의 흐름과 방향에 민감해 진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 지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가 내 편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할 수 있다.

---

[142] 모세는 신명기 8:2-3 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지 세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광야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속 마음을 테스트 하고자 함이었고, 셋째는 물과 떡이 있으면 생존할 것 같은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3.4. 전강스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검증된 도구(tool)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말씀으로만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일은 목회자의 몫이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 안으로 깊이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고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예배시간에 선포하는 설교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설교가 곧 목회라고 생각하며 설교 하나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설교는 목양의 일부일 뿐이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말씀 자체, 즉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한다. 성경 본문 자체에서 생수를 경험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목회자가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경 본문에서 생수를 경험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의 한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회자가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설사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로 인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생터성경사역원에서 전강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성경방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눈을 열어 준다. 앞서 '생터', 즉 '생장점이 터진다'에서 설명했듯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을 통하여 스스로 생수를 마시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목회자 후보생들은 전강스쿨을 통하여, 그리고 전강으로 섬김을 통하여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성경 본문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스스로 생수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훈련의 도구 하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III. 독서 훈련

들어가는 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훈련은 독서 훈련이다. 인간은 유한하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섬겨야 할 성도들은 수 많은 다른 인생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목회자도 인간으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다 시도할 수는 없다. 독서는 간접 경험을 통하여 목회자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 독서란 무엇인가?

독서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서라는 행위를 통하여 책 속의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책은 우리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지식의 창고이다. 책이란 인류 문명의 발자취이며 인간의 값진 모든 것을 한데 집약시켜 놓은 보물창고이다. 책은 인간의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책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과거를 모르는 암흑시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컴퓨터와 영상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활자매체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활자로 인쇄되어 나오는 책의 효용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책이 아니면 인류 문명의 발자취를 후대에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 문명이 이루어진 것도 책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만큼 책의 효용성은 다른 무엇과 비길 만할 것이 없다.

책은 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문화이다. 책은 '천의 얼굴'을 가진 '희망의 마법사'이자 '성공 제조기'이다. 21 세기가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게임, TV 등 온통 디지털과 인터넷 세상으로 변해도 종이 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종이책은 우리와 가까이 오래도록 있어 왔기 때문이다.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는 수 많은 선각자들의 명언들이 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이다.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헬렌 헤이즈(Helen Hayes)

"독서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자신의 존재양식을 확장시키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다." 엘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지식은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여러분은 노란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푸른 피부의 화성인과 같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해 줄 것이다" 벤 카슨(Ben Carson)

"나는 책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 80 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지만, 아직까지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괴테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도스토예프스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빌 게이츠(Bill Gates)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서머셋 몸

최효찬은 이렇게 주장한다. "자녀가 성공하기 바란다면 독신(讀神)으로 키워라".[143] 이어서 세계적인 명문가들의 특별한 독서교육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집 안에 서재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자녀를 독서의 세계로 이끌어라. 둘째, 고전은 반드시 필독서로 삼아라. 고전은 흔히 인류의 지혜가 깃든 결정체라고 한다. 그 속에는 인간이 겪는 고난과 슬픔, 비탄 뿐 아니라 지혜, 선과 악, 미와 추, 희로애락이 망라되어 있다.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적 한계와 아울러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아름다움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고전에는 인간이 살면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다. 셋째, 고전과 당대의 필독서를 조화롭게 읽어라. 명문가들은 고전만큼이나 그들이 살던 당대의 베스트셀러도 반드시 읽었다. 과거의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식과 지혜를 편식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대의 필독서를 소홀히 하는 것 역시 현대의 트렌드와 정신을 외면하는 일이다. 명문가들의 독서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독서할 때 무엇보다 독단에 빠지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144]

2. 왜 독서가 중요한가?

현대와 같은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독서란 글자 그대로 '책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독자가 책

[143] 최효찬, *세계명문가의독서교육,* 서울: 예담, 2017, 4.
[144] 최효찬, *세계명문가의독서교육*, 5-6, 프롤로그 요약.

속의 저자와 만나서 의사를 소통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또한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적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독서란 글이나 책을 읽는 행위이다.

글이나 책은 일종의 매체이다. 책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낸 의미나 정보를 지닌 매체이다. 책은 글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라는 말보다는 기호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우리가 독서한다는 것은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팸플릿으로도 독서한다. 책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말이 텍스트인데, 독서란 기호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은 곧 느낌이나 의미의 전달로 독서행위이다.

독서는 경험을 확대시킨다. 독서는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독서는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한다. 독서는 언어 발달을 가져온다. 독서는 정서를 함양시킨다. 독서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독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시킨다.

독서는 또한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창의력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발견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력은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안, 새로운 방법이나 고안, 새로운 예술적 대상이나 형태 등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인터넷이 21 세기 정보사회를 이끌어 간다 하여도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이다. 즉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세계에서도 핵심은 창의력이다. 독서는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독서를 통하여 내면적 사고의 깊이를 기를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 즉 리더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서에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 독서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독서치료란 주로 병원도서관에서, 의사와 독서치료용 도서에 관해 도서관 직원의 협력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정신의학에서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정선된 적절한 도서를 읽히게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두려움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 등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독서를 통하여 자신을 직면하게 돌아보게 하여 스스로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145] 작품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인물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인물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갈등을 조망해 볼 수 있다.

---

[145] 이만수, *책만 읽는 바보 e-Book*, 서울: 이담 Books, 2012.

"하바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엄청난 독서가로 알려진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정보화 시대의 영웅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독서의 산물인 셈이다. 싱가포르의 대부로 알려진 리콴유 전 수상은 청년시절 부두에 나가 새로 수입되는 신간 서적을 기다릴 정도로 독서광이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래플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울 정도로 새로운 정보에 탐닉했다고 하니 오늘의 싱가포르는 독서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52 년동안 8 천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가 섭렵한 책의 범위는 역사, 지리, 여행기, 시, 희곡, 미술, 과학, 종교 등 동서고금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그가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 1,000 권의 책을 배에 실었다고 하니 그의 독서습관을 짐작할 만하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인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어린 시절 뒤틀린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독서에 매진했던지 그녀의 전기 작가는 "오프라는 도서관 카드를 소유하는 것을 마치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기록하였다.

인류에 빛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독서광들이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탁월한 문장력과 뛰어난 전략은 독서의 산물이었다. 에디슨의 발명품들도 실험만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시립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의 독서의 산물이었다. 베토벤이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더 깊고 넓은 음악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책의 힘이었다. 설교의 제왕으로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서재에는 3 만권의 책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감동적인 설교는 성경과 책, 그리고 영감의 합작품이었다.

또한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훈련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 볼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접하게 한다. 또한 독서를 통하여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다. 목회의 핵심은 목양인데 목양의 핵심은 성도에 대한 공감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와의 공감능력이 없으면 그 성도와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성도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면 신앙성장을 돕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독서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성도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즉, 대화 중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과의 편안한 소통이 가능하다. 정확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고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도 줄 수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하여 객관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독서의 유익은 무궁무진하다. 독서는 목회자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목회자에게는 독서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평생 책을 놓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독서 훈련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자신을 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3. 독서 훈련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3.1 2 년간 약 50 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서는 고전을 비롯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과학, 종교 전 분야를 망라, 또한 기독교 및 비기독교 서적도 포함한다.

3.2. 독서 후에는 요약 및 적용을 글로 남긴다.

독서 후에는 내용 요약 및 자신의 느낌과 적용을 글로 남기도록 한다. 요약과 적용에 대한 글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글의 감동과 교훈을 기억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3.3. 소그룹 적용

읽고 요약하고 적용한 부분을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자신이 말로 깨닫고 적용할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같은 책을 읽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IV. 목회 현장 경험 – 목회 시스템과 관계의 핵심요소 이해하기

1. 목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

필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를 거치면서 각 부서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각 부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서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신실하고 역량 있는 목회자가 오면 멤버들의 신앙도 자랐을 뿐 아니라 부서도 함께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나 신실하지만 역량이 안되는 경우 개인 신앙생활에 영향은 없었지만 부서는 일단 숫자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곤 했다. 담당 목회자가 신실 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역량도 되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섬기는 기간 동안 부서는 생명을 잃었으며 멤버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신앙 생활의 재미도 없어졌다. 늘 이러한 패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 의식은 가지지 않았다. 대학 4학년 나이 때 서울에 올라온 이후 10년간 출석하며 섬겼던 교회를 떠나 광화문에 위치한 내수동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내수동교회는 한국 내 대학생 전체 인원이 10만명이 안되던 시절 출석 인원이 매주 150명이 넘는, 영적으로 역동성을 가진 대학부였다. 변방의 조그마한 지역 교회를 출석하다가 내수동교회와 대학부를 출석하면서 놀랐던 것은 대학부 초창기 멤버들의 영성이 세대가 두 세번 바뀐 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부분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내수동 대학부를 출석했다면 느끼기 어려웠을 부분이지만 지역교회에서 이미 대학청년부 생활을 했고, 활발하게 임원생활을 하다가 옮겼기 때문에 내수동 대학부의 그러한 부분은 필자의 눈에 참으로 경이(驚異)로왔다. 그래서 어떻게 내수동 대학부는 내가 보았던 일반적 패턴과 다를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대학부에 보관해 둔 7-8년치의 주보를 읽으면서 추적해 보았다.

그 이후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차츰 사라졌다. 그리고 전도사로 한 지역교회의 대학청년부를 섬기게 되었다. 그 모임을 약 4-5년 섬기면서 나름 부흥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를 사임한 후 한 다른 지역교회 청년부와 시드니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시드니에 머물렀던 남은 2년간, 필자가 생애 첫 사역으로 섬기고 부흥을 경험했던 대학청년부가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고 출석 숫자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많은 아픔과 충격 속에서 내수동 대학부와 필자가 섬겼던 대학청년부의 사역을 비교하게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내수동

대학부는 대학부를 세웠던 첫 세대의 영성이 몇 세대가 흘러가도 그대로 남아 후대의 멤버들이 그 복을 누리는데, 필자가 섬겼던 대학청년부는 왜 필자가 그 모임을 떠난 후 1,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무엇이 원인인가에 대한 깊은 번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내린 결론은 한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그 목회자 한 개인이 떠나면 생명을 잃거나 역동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동안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영성을 유지하도록 공동체를 셋업(setup)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목회시스템, 다른 말로는 목회의 그릇이다.[146] 목회자는 자신의 당대에 섬기는 교회에 목회 시스템, 즉 목회의 그릇을 만들어 그 세대에게 부어 주신 은혜와 영성을 담아야 한다. 당대에 주시는 은혜와 영성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그릇을 만들지 못하면 당시에는 누리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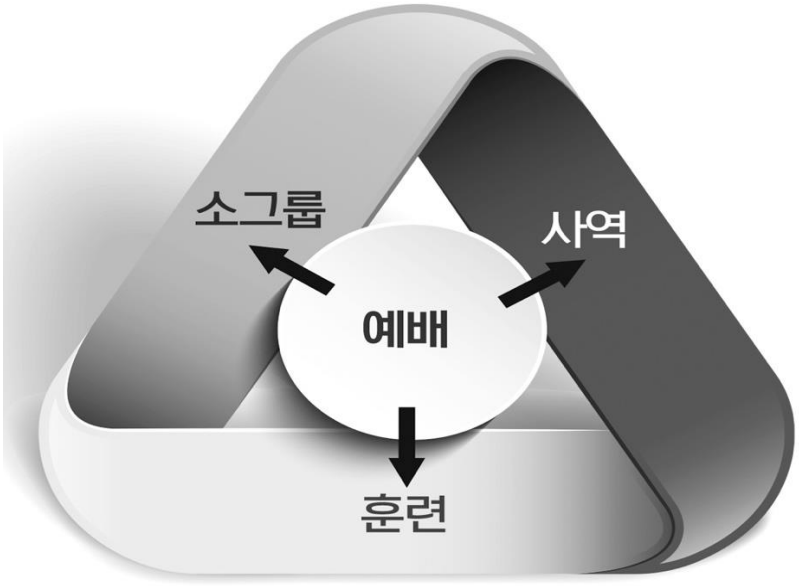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과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없다. 목회자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목회를 잘 했어도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면 은퇴를 해야 하고, 사고나 병이 들어도 목회를 내려 놓아야 하며, 하늘의 인사권자가 임기 중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공동체는 목회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잠시 위임 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목회자는 교회나 공동체가 목회자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목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본인이 목회를 하는 동안, 자신은 결코 영원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자신의 진퇴와 상관없이 영원히 영광스런 존재로 남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목회시스템, 이것은 교회나 공동체를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목회의 그릇이라 할 수 있다.

2. 목회 시스템의 한 예(例)

1997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획실 사역을 하게 되었다. 기획실에서는 시도했던 첫번째 사역은 미국의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사례를

[146] '목회시스템'과 '목회의 그릇'이란 용어느 필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단어이다 (필자 주).

연구하는 것이었다. 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서 있다면 무엇이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가? 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면 부흥의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약 70여 미국 교회를 조사(research)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배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부흥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한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목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필자는 기획팀과 함께 70여 미국 교회를 조사(research)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대부분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가 목회 시스템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는데, 공통적인 요소들은 살아 있는 예배, 체계적인 훈련,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몸으로 섬기는 사역, 이 네 가지 요소였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4가지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 있었는데, 이 요소들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아래와 같은 도표를 그릴 수가 있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아래의 도표처럼 맞물려 그 교회의 목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1> 건강한 교회의 목회 시스템 샘플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네 가지 요소와 그것의 연관성을 잠시 설명하도록 한다.

2.1. 살아 있는 예배:

필자는 남가주사랑의교회[147]에서 약10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첫해를 제외하고 약 9년간 예배 사회자로서 예배 기획팀의 고정 멤버가 되어 매주 예배를 준비하곤 하였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10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뒤를 돌아 볼 때 마치 1-2년 정도 사역한 느낌이었다. 그 이유는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고 예배 가운데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사역의 짐과 수고, 아픔 등을 내려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사랑의교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모두 제자훈련을 하는 대표적 교회이다. 두 교회를 출석하는 평신도 뿐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들도 대부분 자신의 교회의 부흥이 제자훈련에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두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세미나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을 기대하며 참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자훈련 자체가 두 교회의 부흥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핵심을 놓친 판단이다. 그럼 무엇인가? 살아있는 예배이다.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기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예배를 찾아왔고 그것이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제자훈련 사역은 부흥의 원동력이라기 보다는 부흥의 열매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살아 있는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한 명 한 명이 절절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시드니에서 학업을 하던 당시 고학생으로 삶의 밑바닥 현장에서 평신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했다. 고된 삶의 현장에서 한주간을 보낸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는 시간이었고, 또한 자신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는 존재 같아도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삶의 무거운 짐과 아픔, 그리고 생존의 부담, 삶의 기도제목을 십자가 위에 올려 드리고 새 힘을 얻어야 새로운 한 주간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 목회자는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러한 절절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 목회자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실제 예배의 순서, 그리고 진행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챙김으로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

---

[147]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오정현목사(현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1988 년 Southern California 에서 개척한 교회이다. www.sarang.com.

예배 순서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찬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교 주제와 맞고 무엇보다 가사와 곡조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선곡해야 한다. 찬양의 은혜의 80%는 선곡에 달려 있기 때문에[148], 선곡이 갖는 중요성만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곡해야 한다. 어떤 곡은 가사는 은혜스럽지만 일반 성도들이 찬양하기에는 너무 높은 음정의 곡들도 있다. 찬양팀의 경우는 이런 곡을 소화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목에 힘을 주어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 한 옥타브 낮추어서 부르게 되는데, 찬양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한 두 코드만 낮추어 주면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찬양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곡들은 조금만 빨리 부르면 더 강한 생명력으로 이끌 수 있으며, 또 어떤 곡들은 조금만 천천히 부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보통의 인도자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에 있는 1~4절까지 한번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의 경우 첫 1~4절을 부르는 동안에는 대부분 습관적으로 따라 하기 때문에 찬송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1~4절을 부른 후에 그 예배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두 절을 더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부르게 되면, 또한 인도자가 적당히 Add-Lip을 해 주면 그 찬양은 처음 한번 부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능력과 설득력을 갖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반복의 능력이다. 찬양에서 잘 준비된 반복의 유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 임하는 목회자의 마음 자세와 준비에 달려 있다. 만약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예배 가운데 함께 부르게 될 찬송가 또는 복음송을 예배 전 준비 과정에서 최소 20번에서 50번 정도 혼자 불러 본다면 그는 이미 준비하는 시간에 작은 천국의 환희와 기쁨을 경험할 뿐 아니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목회자가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강단에 올라 갔을 때와, 그냥 대충 곡을 선정하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를 비교해 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느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겠는가? 목회자들은 늘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즉, 본인이 인도하는 예배의 성도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지금처럼 준비하고 올라가서 인도하는 예배에 과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도포를 보면 예배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체계적 훈련,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몸으로 섬기는 사역이 둘러쌓고 있다. 그리고 예배에서 나머지 세 요소를 향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예배로 부터 다른 요소들을 향해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가?

[148]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 경험이다.(필자 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배가 살아 있을 때 비로소 훈련이 가능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가능하고, 예배가 살아 있을 때 몸으로 섬기는 사역이 가능하다. 예배는 교회 생활, 그리고 모든 사역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샘의 근원과 같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늘 예배 한 순서 한 순에 민감해야 하고, 스스로 정직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도표를 통해서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훈련과 소그룹과 사역이 예배를 둘러쌓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건강한 교회는 예배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가 탁월해서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부흥도 가능하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 또는 예배만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약 목회자의 설교 하나로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가 그것에 자만하게 되면 그 교회는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목회자가 섬기는 기간 동안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한 개인 목회자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그 목회자가 떠나거나 유고 상황이 되면, 후임자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모래 위에 세운 교회 같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설교로만 성장하지 않는다. 잠시 받는 은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 자신이 설교에 있어서 탁월한다고 믿는 목회자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다. 인간의 이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설교 하나로 성도들에게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훈련과 소그룹, 사역도 활발하게 역동적인 생명력을 갖고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예배 한 요소가 아니라 전체 네 가지 요소가 건실하게 움직여서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한 성도의 삶 전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

사실 도표의 4가지 요소가 균형 잡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목회자가 혼신의 힘을 쏟아도 그리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설교를 과신하는 목회자는 목회 시스템, 목회의 그릇을 만드는 일에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다. 목회자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잘 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이 섬기는 동안 목회 시스템, 목양의 그릇을 만드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 목회자 훈련과정에서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예배 준비를 비롯한 실제적 훈련을 함으로서 이 부분이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2.2. 체계적인 훈련:

많은 교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圖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역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제자훈련의 이름으로 다양한 성경공부를 시도하기도 한다. 즉, 성경공부와 훈련은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성경공부는 주로 성경의 지식, 성경의 내용과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둔다. 성경공부는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도들은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성경공부는 훈련이 아니다.

훈련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은혜와 감동이 첫번째 우선 순위가 아니다. 훈련은 한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변화는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몸의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고 몸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담보(擔保) 되어야 한다. 6주 또는 8주의 기간으로는 사고의 패턴과 몸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훈련은 듣는 성경공부와 달리 자신이 주중에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주중 생활 속에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나 교회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성도들로 훈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목회자 후보생은 성도들을 훈련하는 여러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훈련의 내용과 진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때가 되어 자신이 목회 현장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경험의 토대 위에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자신의 도구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2.3. 삶을 나누는 소그룹:

삶을 나누는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령 예배는 회중 모임으로서 예배 인도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설교도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와 같은 대그룹에서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하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인은 외롭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상황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한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그룹이 아무리 커도 자신을 알아 주는 사람이 일곱 명만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은 누구와도 나눌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느낌, 삶과 상처와 기도 제목은 믿을만한 소그룹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실상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갖기는 쉽지 않다.

현재 한국 및 이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사랑의교회 계열에서 갖는 소그룹은 '다락방'이라 하고, 이 밖에도 '가정교회', '셀교회', '목장',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구역'등의 소그룹 모임이 있다. 어떤 형태의 소그룹이든, 그 소그룹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소속된 건강한 소그룹이 작동해야 한다.

소그룹은 개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아래 다섯가지 치료 요소는 '얄롬의 법칙'이라 하는데 소그룹의 효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149]

소그룹의 치료 효과 중 첫번째는 일반화의 요소이다. 이것은 '우리는 한 배를 탔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령 남편과의 관계에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소그룹의 치료 효과 두번째는 인간상호관계학습의 요소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당신이 내 선생이요', 또는 '저 사람이 내 거울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다. 상대방의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소그룹의 치료 효과 세번째는 그룹 애착심이다. 이것은 '정말 보고 싶었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소그룹에서 나누는 내용들은 비판 없이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그룹에서의 신앙의 나눔이 자신의 신앙의 지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생활습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제자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저변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소그룹의 치료 효과 네번째는 모방이다. 이것은 '당신을 닮고 싶다. 나도 해 봐야지'의 효과이다. 소그룹에서는 개개인 전부를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좋은 점을 가진 형제를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의 자세, 신앙 생활, 습관, 심지어 개성까지 닮으려고 한다. 특히 좋은 지도자가 인도하는 모임에서는 모두가 그 지도자를 닮아 가는 현상을 쉽게 볼

[149] 얄롬의 법칙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펴낸 사역반 교재 3 권 소그룹 성경공부 1 과에 나오는 내용이다.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간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닮기 마련이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고전11:2).

소그룹의 치료 효과 마지막은 ‘카타르시스’의 요소이다. 즉, ‘털어 놓고 나니 속이 후련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소그룹은 각자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다. 생각을 말하기는 쉽지만 느낌을 나누는 것을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느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감정이 쌓이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소그룹에서는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깊은 고민을 털어 놓고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고 사랑의 마음을 깊이 중보한다. 그리고 속을 털어 놓으면 후련함을 느낀다. 바로 이것이 소그룹이 갖는 중요한 치료 요소이다.

목회자는 소그룹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말씀 선포 등 일방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역들을 주로 섬기게 된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삶의 나눔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목회자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 끼리의 소그룹 나눔이 중요하다. 내적 치유의 과정에서도 소그룹 나눔은 각 개인의 치유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서 훈련에서도 소그룹 모임은 각자의 생각과 적용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선교 훈련 과정에서도 소그룹은 팀웍의 중요성을 배우며 협동심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배우는 현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 훈련의 과정에서 주일학교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함으로서 소그룹을 통하여 어떻게 한 개인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2.4. 몸으로 섬기는 사역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역으로 세워진다. 예배를 위한 사역, 멀티 미디어 사역, 인터넷 사역, 새가족을 위한 사역, 차세대 사역, 주차 사역, 주방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중보기도 사역 등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진다. 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예배와 말씀,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역 현장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보이는 곳,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이것이 결국 그 공동체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다.

목회자 후보생은 훈련 과정에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실제 몸으로 체험해 보아야 한다. 보이는 곳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묵묵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각각의 사역들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삶을

연결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를 손수 체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사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도 몸소 겪어 보아야 한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이러한 현장의 사역들을 다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목회 훈련 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사역 현장의 경험은 장차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때 교회 전체와 현장의 상황, 섬기는 청지기들의 정서, 애로점을 예측하고 풀어 가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3. 목회자 후보생이 훈련해야 할 영적 사고(思考)의 목표

들어가는 말

목회자 후보생들은 성경의 지식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영적 사고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훈련이다. 이 내용은 필자가 목회자로 지난 30 여년이 넘도록 이민 교회와 이민성도들을 섬기면서 필자 자신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개인 성숙의 핵심 가치들이다.



<그림 2> 개인의 영적 사고 훈련 목표

3.1.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 절대 주권자이시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아래 두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정복자로서 살아가기 보다 정복해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의 대통령이어도 소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끝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 올 때, 이 때야 말로 하나님을 의지해 할 때인데, 대부분 이 때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혈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거나, 아예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 앉곤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때를 돌아보며, 그 때야 말로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했을 때라고 깨닫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 버린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 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출애굽기 14 장의 모세의 경우가 그랬다.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보이는 애굽 군대와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 보았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똑 같은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이 먼저 이 부분에서 습관이 되어야 위기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3.2.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내 삶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결과이다. 그 선택은 또한 내가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느냐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내가 가진 관점과 시각이 곧 나의 반응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그리고 주어진 현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건 철저하게 육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으로는 자신의 여력 이상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절대적으로 내 편이시다. 그러나 경험의 관점과 상식의 관점, 현실적 관점은 육의 관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여력과 역량으로 상황을 판단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녀를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성도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의 관점은 영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민수기 13 장과 14 장의 열 두 정탐군의 경우가 이러하다. 열 정탐꾼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과 현실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곧 그들의 미래가 되었고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그들에게도 이것이 그들의 미래가 되었고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

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습관이 된다면 현실 앞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

3.3. 내면(생각과 마음)을 키워야 한다.

목회자 훈련은 지식의 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그릇(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생을 이해하는 지식, 생각의 습관 및 마음의 넓이와 깊이)을 키우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생각이 깊어야 하고 넓어야 하며 상황을 통전적으로, 즉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깊어야 하고 넓어야 하며 상황이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내면이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형성되어 왔던 기존의 사고의 틀이 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틀을 깨고 사고와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생한 생명의 지식으로 채워서 사고를 키우고 내면을 키워야 한다. 목회자는 적어도 사고와 마음의 크기와 깊이 면에서 평신도들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포지션의 리더가 리더가 아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사고와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가야 한다.

3.4. 마음 밭,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중요한 것은 마음 밭이다.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마 13:3-40))를 보면 똑 같은 농부가 똑 같은 씨를 뿌렸으나 밭에 따라 열매의 양이 달랐다. 열매는 밭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길 가 같은 마음 밭, 돌밭같은 마음 밭, 가시 떨기가 있는 마음 밭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아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음 밭이 좋아야 한다.

목회자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다. 재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회의 열매는 목회자의 마음 밭이 어떠하냐로 결정된다. 목회자 훈련 기간 동안 후보생들은 마음 밭을 옥토로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길 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 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마음 밭을 근본적으로 개간해야 한다. 이 부분의 필요가 바로 내적치유인데, 목회자 후보생은 이 기간 동안 온전한 마음 밭, 선한 마음 밭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5. 말이 곧 그 사람이고 인격이다. 살리는 말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고요 됨됨이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 말을 한다. 아직 감정의 영역에서는 어린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장한다. 자신의 정의와 옳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런 사람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정의 또는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을 들이밀면 그 인생은 설 자리가 없다. 아직 그것을 모르기에 자신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하고 옳음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도 또한 미숙한 자이다. 본인만 모를 뿐이다.

베드로 사도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다 (벧전 4:11).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 보게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다. 목회자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한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권면과 같이 목회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 마디를 하기 전에 10 번을 생각해야 하며, 한 마디를 하기 전에 그 한 마디가 내 입에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도록 표현 하나, 톤(tone) 하나까지 미리 생각하고 말 해야 한다. 목회자의 말은 곧 목회자의 인격이고, 그 말로 목양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 목회자의 말은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같도록 훈련해야 한다.

목회자 스스로가 이 다섯가지 영적 습관을 삶에 익히게 되면 스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삶의 열매, 관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서 검증된 이러한 사고 훈련을 성도들에게 강조함으로서 성도들을 능력있고 영향력있는 그리스도인인으로 양육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목회자는 이 부르심의 목적과 내용, 의미에 진지해야 하며 성실 해야 한다. 이것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러한 영적 사고의 습관을 훈련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4. 목회자가 인식해야 할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

들어가는 말

관계는 목회의 핵심 중 핵심이다. 목회는 곧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열정이 뜨겁고 뛰어난 목회적 역량이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의 미숙함 때문이다. 목회자가 목회현장에서 관계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아래 내용은 필자가 목회 현장에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1) 평신도 리더십을 존중해라.
2)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3) 사랑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지 말라.
4)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경청하라.
5)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6) 목회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라.
7) 성도와 교제할 때는 사역보다는 성도 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라.
8)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을 때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라.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라.
9) 약자는 눈에 띄게 사랑해 주고 강자는 뒤에서 챙겨라.
10)교회를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개인의 삶을 보살펴라.
11)목사에게 와서 피드백을 주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
12)목소리 큰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더 가까이 해라.
13)성도들은 문제를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비참한 목회자가 되지 마라.
14)공석, 사석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게 사람을 세우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15)강한 목사는 언젠가는 부러진다. 부드러운 목사가 되라.
16)양쪽 말을 다 듣기 전에 한쪽 편을 들지 마라.
17)불편한 감정은 글로 표현하지 마라.
18)감정이 격동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V. 목회자 훈련학교 커리큘럼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and Spiritual Formation)

들어가는 말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필자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신학교가 제공하지 못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목회자 후보생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열망한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훈련하게 될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았다.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and Spiritual Formation의 커리큘럼 (2년 과정)

1. 목적 및 취지

-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누리며 살기
- 건강한 내면을 회복하기
- 영적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세계관 이해하기
- 성경 전체를 성경신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 소그룹을 이해하고 잘 이끄는 연습하기
- 어디서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준비되기
-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 현장에서 섬기기
- 독서를 통하여 넓고 깊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하기
-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팀웍을 만들고 섬기는 훈련하기
-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 습관 기르기

2. Weekly Schedule

	Mon	**Tue**	**Wed**	**Thur**	**Fri**
6:30-7:00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7:00-7:30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7:30-8:15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Worship**
8:15-8:30		**Break**	**Break**	**Break**	**Break**
8:30-9:45	**Praise and Worship**	**Class 1**	**Class 1**	**Class 1**	**Class 1**

9:45-10;00	**Tea time**	**Tea Time**	**Tea Time**	**Tea Time**	**Tea Time**
10:00-11:10	**Class 2**	**Class 2**	**Class 2**	**Class 2**	**Class 2**
11:10-11:20	**Break**	**Break**	**Break**	**Break**	**Break**
11:20-12:20	**Class 3**	**Class 3**	**Class 3**	**Class 3**	**Class 3**
12:20-1:00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1:00-5:00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5:00-6:00	**Small Group**	**Small Group**	**Small Group**	**Small Group**	**Small Group**
6:00-9:30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Activity/ Reading**
9:30-10:00	**Bed**	**Bed**	**Bed**	**Bed**	**Bed**

3. 목회자 훈련 학교(Master of Arts in Spiritual Formation and Counseling)의 커리큘럼

Phase I – 훈련 14 주, 선교 6 주 총 20 주

- 말씀 묵상 – 2 주
- **Small Groups** 이해 및 실습 2 주
- **Spiritual Formation I** (하나님의 임재) 2 주
- **Spiritual Formation II** (하나님의 음성 듣기) 2 주
- **Spiritual Formation III** (영적 전쟁) 2 주
- **Christian Counseling I** (자기 이해) 2 주
- **Christian Counseling II** (자존감 회복) 2 주
- **Mission I** 6 주
- 주일학교 현장 실습(예배 및 소그룹 인도) 12 주
- 성경통독 (4 주에 일독, 총 3 독)
- 독서 1 주일에 한권, 총 14 권 (영적전쟁, 자아회복 관련 서적에 집중)

Phase II – 훈련 14 주, 선교 6 주 총 20 주

- 독서훈련 2 주
- 독서실습 4 주
- **Spiritual Formation IV** (하나님의 음성 듣기 2) 2 주
- **Spiritual Formation V**(영적전쟁 2) 2 주
- **Christian Counseling III** 2 주
- **Christian Counseling IV** 2 주
- **Mission II** 6 주
- 주일학교 현장 실습(예배 및 소그룹 인도) 12 주
- 성경통독 (4 주에 일독, 총 3 독)
- 독서 1 주일에 한권, 총 14 권 (정치 경제 문화에 집중)

Phase III 훈련 14 주, 선교 6 주 총 20 주

- **Leadership I** 2 주
- **Leadership II** 2 주
- **Church History I** 2 주
- **Church History II** 2 주
- **Biblical Theology** 2 주
- **Biblical World View (Kingdom of God)** 2 주
- **Evangelism** 2 주
- **Mission III** 6 주
- 중고등부 현장 실습(예배 및 소그룹 인도) 12 주
- 성경통독 (4 주에 일독, 총 3 독)
- 독서 1 주일에 한권, 총 14 권 (역사 및 개인 전기에 집중)

Phase IV 훈련 12 주 선교 6 주 총 20 주

- **Evangelism – 2 주**
- **Spiritual Formation VI 2 주**
- **Christian Counseling V 2 주**
- **Church History III – 2 주**
- **History of Philosophy – 2 주**
- **Understanding of Modern Society – 2 주**
- **Mission IV 6 주**
- 중고등부 현장 실습(예배 및 소그룹 인도) 12 주
- 성경통독 (4 주에 일독, 총 3 독)
- 독서 1 주일에 한권, 총 12 권(철학사, 현대 사상사에 집중)

Phase V 훈련 20 주

- 전강스쿨 (구약) – 4 주
- 전강스쿨 (신약) – 4 주
- 성경방 실습 (12 주)
- 사역현장 경험하기 – 20 주
- 성경통독 (4 주에 일독, 총 3 독)
- 독서 1 주일에 2 권, 총 40 권 (전강스쿨과 관련된 도서)

나가는 말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긴박한 사역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이다. 교회의 생명력의 많은 부분은 담당 목회자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목회자 양성의 주 산실이 되어 온 신학교는 지나치게 학문에 치우침으로서 목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준비하는 일에 허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 장에서 신학교가 놓치고 있으나 목회 현장을 섬기는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예수 전도단의 DTS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또한 생터성경사역원에서 성경강사를 배출하는 전문강사스쿨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지성과 사고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체계적인 독서훈련과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는 목회현장을 보는 통찰력과 안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신학교의 강의를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는, 목회현장에서 체득해야 하는 부분인데 목회 시스템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도표와 함께 관계성까지 연결하여 설명해 보았다. 또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 자세,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태도, 목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의 영역에서 필자의 경험을 담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교회가 목회자 후보생들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면 MA in Discipleship and Counseling 의 과정으로 훈련하고 싶은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적 요약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목회자는 개인의 인격과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공동체를 잘 이끄는 현장(사역)영성을 갖추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제 1 장에서는 목회자에게는 개인 영성 뿐 만 아니라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현장(사역) 영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목회자 개인의 성품과 신앙은 뛰어난데 섬기는 목회 현장은 생명력이 없고 복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논문의 배경이고 출발점이다. 목회자는 개인적 영성만 갖추면 안되고 목회 현장을 잘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며 이것은 현재의 신학수업만으로는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상황화의 이론을 살펴보고 교회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회의 생명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현재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근본에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몇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볼 때 현재 신학교는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목회자를 길러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쓰임 받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개인 영성과 사역 영성에서 탁월한 자들이었는데 현 신학교 교육 내용으로 그런 영성을 갖춘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 시킨 방식을 살펴 보면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섬기게 될 광야라는 현장을 염두에 두고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

제 3 장에서는 모세와 다윗 느헤미야의 영성을 살펴 보았다. 이들은 모두 공동체를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각각의 공동체는 모세는 노예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끌어 가야 했고, 다윗은 인생 밑바닥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낙심한 실패자들을

데리고 온갖 안과 밖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 개인적으로 탁월한 인격과 성품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맡겨진 공동체를 부르심에 맞는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도 탁월한 영성을 지녔지만 현실의 공동체를 이끄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공적인 섬김을 감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4 장에서는 현재 목회 중인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응답에 응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현 신학 교육은 목회 현장과 많이 괴리 되어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결핍된 환경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 받은 내면의 상처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격이 목회자가 된 이후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현 신학교의 커리큘럼으로는 목회자의 내적 치유 과정을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 목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성 훈련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목회자들은 신학 교육과 역동적 사역 현장을 가진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준비하길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 장에서는 현 신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시도하는 몇 케이스들을 살펴 보았다. 성령사관학교는 철저한 공동생활을 통한 성품 개발 뿐 아니라 성경 원문과 본문 공부를 강조하고 있고,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되고 있는 **MTS Program** 은 캠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풀타임으로 전도와 양육 그리고 재생산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에서는 현재 신학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 Deploy Program 을 시작하였는데, 전통적인 신학교의 경우 신학생이 캠퍼스에 들어와서 3-4 년 신학 수업에만 집중하는 구조였다면 **Deploy Program** 은 삶의 현장과 목양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섬기면서 온라인 수업과 캠퍼스의 계절학기 수업, 무엇보다 목회 현장의 섬김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현장 영성을 키우도록 진행하는 매우 도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 6 장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나 신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지역교회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예수전도단(YWAM)의 DTS 프로그램이 가진 강점을 목회자 후보생이 경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DTS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와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영적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린 시절 받은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내면에 남아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서 건강한 내면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또한 생터성경사역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강사스쿨을 이수(履修)함으로서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 신학적 지식과 목회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사 의식을 습득 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또한 독서 훈련을 통한 통전적 사고 훈련,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강한 인간 관계의 핵심 요소들, 무엇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게 될 목회 시스템(목양의 그릇)에 대한 요소와 중요성 등을 살펴 보았다.

2. 제언

현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은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한다. 현 신학교의 교육 과정으로는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목회자가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급한 주제를 목회 현장에서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울 실정이다. 필자는 위의 대안들을 종합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훈련할 2 년 과정의 MA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아마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목회자를 훈련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여 시도하지 못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고민과 제언이 목회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개인 영성과 현장 영성을 함께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기폭제로 쓰임 받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도서 목록(BIBLIOGRAPHY)

<한글 서적>

강경민, *왜 다윗인가?*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3.

강신권, *21 세기를 향한 리더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강준민, *영적거장의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4

김경섭, *모세 지도력의 비밀*, 서울: 프리셉트 선교회, 2008.

김광건, *"출애굽에 나타난 모세의 리더십의 특성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 김차생 이사장 고희 및 이사장 은퇴기념 논총. 용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7.

김상복,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_____,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2 판).

_____, *지도자에게 배우라,*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김서택, *하나님의 큰 구원,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3.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명경사, 1998.

김성욱, *개혁주의 선교신학,* 서울:이머징북스, 2013.

김성회, *CEO 의 습관*, 서울: 도서출판 페이퍼로드, 2006.

김영진, *그랜드종합주석* 7,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김영한, *창조의 리더십 2.0,* 서울:위즈덤 하우스, 2007.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에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김형곤, *나를 깨우는 위대한 여행,*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6.

명성훈, *(성경속의) 리더십 마스터키,* 서울: 국민일보, 2000.

모신희, *느헤미야서 강해*, 김홍규 엮음.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90.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3.

민경진, *선구자들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차준희, *예레미야서 다시보기*, 서울: 프레칭 아카데미, 2008.

박응천, *세계를 향한 복음*, 서울: 두란노, 1997.

박정기,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리더십 이야기,* 서울: 을지서적,1997(2 판).

박정현, *뷰티 마케팅 인문학으로 하라,* 서울:고려원북스, 2013.

박철현, "*황금송아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한 것인가?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2003.

박형렬, *탁월한 목회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치유, 1994.

신상언, *내가 왜 그런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2005.

신완선, *최고 경영자 23 인의 리더십을 배우자*, 경기도: 창현출판사, 1997.

박형순, *변혁적 서번트리더십*, 서울: 쿰란출판사, 2004.

양창삼, *조직 행위론*, 서울:대영사, 1988.

_____, *톨스토이 얼굴이 빨개진 이유*,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_____, *예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4.

_____, *크리스챤 리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2004.

오상철, *이민신학: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조명한다* , 서울: 쿰란출판사, 2008.

_____, *이민신학논단 창간호*, Fullerton, CA: 이민신학연구소, 2009.

_____, *이민신학논단 제 2 호*, Fullerton, CA: 이민신학연구소, 2010.

오정현, *신동행기*, 서울: 두란노, 2007.

옥한흠, 최홍준, 이성희, 고직한, *리더십 쉬프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이동원, *역사의 새벽을 가져 온 사람 느헤미야*, 서울: 나침판출판사, 1995.

_____, *모세 : 주께서 친히 아신 사람*, 서울: 나침반사, 1988.

_____,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사람 – 느헤미야*, 서울: 나침반사, 1997(18 판).

이만수, 책만 읽는 바보, 서울: 이담 Books, 2012.

이만용, *참 지도력 느헤미야에게서 배운다*,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 2006.

이상오, *리더십 역사와 전망,*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이상운, *목회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이승장,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 서울: 좋은 씨앗, 2001.

이애실, 성경방 워크북-구약편, 서울: 도서출판 성경방, 2014.

_____, 성경방 워크북-신약편, 서울: 도서출판 성경방, 2014.

이원설, 문영식, *21 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이재영, *세상의 모든 법칙*, 서울:이른아침, 2009.

이정현,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지민, 2007.

이종영, *영적 지도력*, 서울: 새한기획출판부, 1994.

이한검, *경영학원론*, 대구:형설출판사, 1994.

이한영, 모세의 리더십, 서울:한국기독교학회, 2008.

장일선. 구약여행, 서울: 생명나무, 2003.

전병욱,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서울: 나침반, 1997(13 판).

정규남, *구약개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0.

정수진, 조직행동론, 서울: 삼우사, 1998.

정우일, 리더와 리더십, 서울:박영사, 2010.

정우일, 박선경, 양승범, *리더와 리더십*(제 2 판), 서울:박영사, 2010.

제정관, *리더십 포커스*, 서울:교보문고, 2006.

조광연,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서적 지도자입니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조성종, *목회자 리더십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8.

조영탁, 행복한 경영, 서울:김영사, 2013.

조용기, *리더십 개발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주서택, 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적 치유의 24 가지 실제적 사례*, 서울: 순출판사, 1997 년.

최광식, *다윗 대통령*, 서울: 베드로서원, 2005.

최병권, *미래기업의 인재코드*, 서울:새로운 제안, 2010.

최연구, 미래를 예측하는 힘, 서울:살림, 2009.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_____,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_____, *앞으로 5 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최효찬, *세계명문가의독서교육*, 서울: 예담, 2017.

한동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1.

한동구, *신명기 해석*, 서울:도서출판 B&A, 2004.

_____,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나타난 지혜사항 (삼상 25 장)" 바른신학과 교회갱신-길송 이종윤목사 고희 기념 논문집, 서울: 필그림출판사, 2010.

한홍,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서울: 두란노, 2005.

_____, *세상 중심에 서다*, 서울: 두란노, 2007.

홍사중, *리더와 보스*, 서울: 사계절 출판사, 1997.

황위섭, *크리스챤 리더쉽: 지도자 대망론*,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6 판)

황의영,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번역서적 및 영어서적>

Albertz, L., *이스라엘 종교사*, 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Anderson, A.A., *2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1*,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5.

Anderson, Neil T.,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Victory over the Darkness)*, 서울: 조이선교회, 2018.

Avery, J. Stuart.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참 지도자론(Nehemiah: An Effective Leader)*, 김태복·권태헌 역 ,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5.

Barna, George, *Turning Vision into Action*, Ventura, CA: Regal Books, 1996.

_____,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Leaders on Leadership),*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1997.

_____, *물 밖의 물고기 (A Fish Out of Water : 9 Strategies Effective Leaders Use to Help You Get Back Into the Flow)* 김주성 역, 서울: 도서출판국제자훈련원,
2006.

Bennis, Warren, *워렌 비니스의 리더십 원칙*, 양영철 역, 서울: 좋은 책 만들기, 2003.

Blanchard, Ken; Bill Hybels; Rick Warren etc, *멘토링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 (Lead like Jesus),* 서울: 두란노, 2000.

Blackaby, Henry, *영적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Boice, James Montgomery. *느헤미야의 지도력 연구(Nehemiah: Learning to Lead)* 이건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Bork, J & Robort D. & Towns E., *리더와 리더십,* 서울: 디모데, 2007.

Bright, J & William. P. Brown, *이스라엘 역사(History of Israel)*, 엄성옥 역, 서울: 은성사, 2015.

Bruegemann, W., *지혜전승연구*, 장일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_____, *지혜전승(구약연구시리즈 20),* 문희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_____, *사무엘상하(I & II Samuel),*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Burns, James MacGregor, Transforming Leadership, *역사를 바꾸는 리더*, 조중빈 역, 서울: 지식의 날개, 2004.

Cleland, Thom., *모세: 하나님의 리더훈련 프로그램(Moses: the Making of a Leader),* 김병국 역, 인천: 예향, 2000.

Clinton, J. Robert. *영적 지도자 만들기(The Making of a Leader: Recogniting the Lessons and Stages of Leadership Development),*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_____, *지도자 평생개발론(Leadership Emergence Theory),*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 2012.

Coats, George W., *모세:영웅적 인간(Moses : Heroic Man, Man of God),* 박호용 역, 서울: 성지, 2000.

Crosby, P, *완전무결한 리더십(Absolute Leadership),* 황영철 역, 서울: 미래지식, 2006.

Debo, R., *구약시대의 생활풍습,*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_____, *구약시대 사회풍습,* 이양구 역, 서울: 기독정문사, 1992.

Eims, LeRoy.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Be the Leader You were Meant to Be)* 네비게이토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4.

Edelman, Diana Vikander.,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JSOT Supplement 12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Engle, Paul E., *당신의 지도력은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The Governor Drove Us up the Wall: A Guide to Nehemiah),* 황성수 역.. 서울: 나침반사, 1993.

Engstrom, Ted W. *크리스챤 지도자가 되는 길(The Making of a Christian Leader*),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0.

Gilliland, Dean S., ed. *The Worl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Dallas: Word Publishing, 1989.

Halley, H. H., *최신성서핸드북,* 서울: 기독교문사, 2000.

Hans, Finzel.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 가지 실수 (The Top Ten Mistakes Leaders Make),* 조기현 역, 서울:프리셉트, 2012.

Hertzberg, H.W., *I & II Samuel. A Commentary (Tr. J.S.Bowden),* London: SCM Press Ltd., 1964.

Hunter, J.C,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김광수 역, 서울: 시대의 창, 2006.

Hybels, B, *리더십(Leadership),* 서울: 두란노, 2006.

Jackson, Gordon S., *짧은 막대기로는 호랑이를 긁어주지 않는다 (Never scratch a tiger with a short stick),* 서진희 역, 서울: (주)베이스캠프 미디어, 2004.

Karl, Albrecht, *똑똑한 사람들 멍청한 회사,멍청한 사람들 똑똑한 회사(The Power of Minds at Work),* 심재관 역, 서울:한스컨텐츠, 2006.

Keil, C. F. & Delitzsch, F. *카일 델리취 구약주석 2, 출애굽기(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v. 2)),* 김득중 역, 서울:기독교문화출판사, 1984.

Klein, Ralph W.,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0*,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MacGregor Burns J.,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서울: 지식의 날개, 2008.

Malphurs, Aubrey. *리더가 된다는 것은(Being Leaders).* 안정임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8.

Maxwell, John, C.,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를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_____,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채천석 역, 경기도 고양: 도서출판 청우, 2001.

_____, *리더가 알아야 할 7 가지 키워드(The Right to Lead),* 이상준 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2.

_____, *모든 팀이 원하는 팀플레이어 (The 17 Essential Qualities of a Team Player),* 전형철 역, 경기도 고양시: 청우, 2003.

_____, *성경에서 배운 21 분 리더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_____, *리더십 불변의 법칙(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홍성화 역, 서울:비즈니스북스, 2010.

_____, *리더십의 법칙 2.0 (Laws of Leadership 2.0),* 정성묵 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9.

Meyer, F. B. *모세: 하나님의 종(Moses : the Servant of God)* 서보섭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Miller, J. Keith, *내면 세계의 비밀(The Secret Life of the Soul),*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Miller J. Maxwell, J.H. Hayce,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Neely, Alan, *Christian Missions: A Case Study Approach*, New York: Orbis Books,
1995.

Neill, Stephan, *기독교 선교사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오만규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3.

Packer, J. I., *신앙의 열정: 느헤미야의 지혜(A Passion for Faithfulness - Wisdom from the Book of Nehemiah),* 강철성 역, 서울: 기독 교문서선교회, 1997.

Petern Ferdinand, Drucker, *21 세기 리더의 선택(Leader to Leader),* 한근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1999.

Pink, Arthur Walkington, *출애굽기 상하(Gleanings in Exodus),* 지상우 역, 서울: 엠마오, 1986.

Rush, Myron, *새로운 지도자상(The New Leader)*, 조성훈 역, 서울: 나침반출판사, 1994(4 판).

Sailhamer, John H.,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the) Pentateuch as Narrative :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정충하 및 김동진 공역, 서울: 새순 출판사, 1994.

Sanders, J. Oswald, *영적지도력(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요단출판사, 1996(2 판).

Robert Schreiter, *신학의 토착화(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황애경 옮김, 서울:
카톨릭출판사, 1991.

Schwab, Klaus, *세계 석학 103 명이 제시한 21 세기 예측*, 서울: 매일 경제 신문사, 1995.

Shorter, Aylward , *Toward a Theology of Inculturation,* New York: Orbis Books, 1988.

Stanley, Andy, *비저니어링: 느헤미야와 함께 하는 비전이루기(God's Blueprint for Deveoloping and Maintaining Vision),* 서울: 디모데, 2013.

Stephen Richards, Covey.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The 7 Habits of Highly*

Efective People), 김경섭 역, 서울:김영사, 2012.

Stonley, A. *비저니어링(Visioneering),* 서울: 디모데, 2006.

Stott, John. *기독교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A Call to Christian Leadership)*, 김현수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Swindoll, Charles R. *함께 하는 지도자(Hand Me Another*),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Swindoll, Charles R.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사람 모세(Moses : A Man of Selfless Dedication)*, 곽철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1.

Swindoll, Charles R. 이종록 외 역.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II(찰스 성경연구 11),*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Thomson, Bruce and Barbara Thomson, *내 마음의 벽(Walls of my Heart),* 정소영 역, 경기도 고양시: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7 년.

Tom, Peterson, Jack Welch, Jim Collins, *성공하는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Leadership Excellence)*, 유승용 역, 홍익출판사., 2010.

Viola, Frank, *유기적 교회 세우기(Finding Organic Church),* 이남하 역,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3.

Warren, David, *모세의 경영전략(Moses on Management),* 이상헌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0.

White, John. *탁월한 지도력(Excellence in Leadership: Reaching Goals with Prayer, Courage & Determination),* 이석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6.

Wiersbe, Warren W., *견고하여라(Be Determined),* 정정숙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Wilkes, C. Gene,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Jesus on Leadership)*, 정인홍 역, 서울: 디모데, 2003.

Wolfgang, Hoover, *교회 (The Church),*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Wright, Walter C.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2.

Yandian, Bob, *다윗 섬김의 리더십(Leadership Secrets of David the King),* 강주헌 역, 서울:경영정신, 2001.

Young, Edward J. *선지자 연구(My Servants the Prophets),* 정충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마빈 토케이어, *탈무드*, 정진태 역, 서울: 범우사, 1991

<신문 및 정기간행물>

강준민, "목회 리더십은 세상 리더십과 다르다", 목회와 신학(1998 년 10 월호).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목회와 신학(1998 년 10 월호).

김지철, "두렴과 떨림의 지도력". 목회와 신학(1998 년 10 월호).

명성훈, "리더십의 중요성, 그 일곱 가지 이유", 월간목회(1999 년 12 월호).

_____,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월간목회(2000 년 1 월호).

_____, "리더십의 본질", 월간목회(2000 년 2 월호).

이희학, "구약성서의 법궤신학, 신학과 현장 제 9 집 (목원대학교 부설 신학연구소) 1999.

하용조, "교회의 영적 지도력", 목회와 신학(1998 년 10 월호).

한동구, "복음과 사회적 책임", 성경과 신학, 2003 제 33 권.

황성철, "21 세기 한국교회 목회 리더십의 방향", 신학지남 통권 281 호(2004 년 겨울호).

Hybels, Bill. "리더십의 열쇠, 비전", 목회와 신학(1998 년 10 월호).

Stowell III, Joseph M.,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1998 년)

S. 니디치, "히브리인의 성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초상화," 「한국여성신학」 41 호 (2000 년 봄, (장춘식 옮김), 106-107 쪽.

이종록, "그말씀", 서울: 두란노, 2005,

현창학, "그말씀", 서울: 두란노 2005.

Hous Paul, "그말씀", 서울: 두란노 2004.

미주 한국일보, 2003 년 4 월 16 일자

동아일보, 2008. 5. 24.

기독연합신문, 창간 20 주년 설문조사, (2008.02.13), 5.

오상철, 기독교타임즈 2020 년 3 월 8 일 인터넷 신문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61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org)의 홈페이지

성령사관 아카데미, http://soa2015.or.kr/

필립젠슨목사, https://phillipjensen.com/about/.

생터성경사역원, www.ahaja.org

예수전도단(YWAM), https://www.ywam.org

Grace Theological Seminary, www.seminary.grace.edu/.

MTS, https://mts.com.au/

NewsnNet 2019 년 4 월 8 일.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4

NewNM 2020 년 3 월 15 일자 인터넷 지선묵 목사 발제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61

St.Matthias Church, https://www.matthias.org.au/ministry-partners/mts-ministry-training-strategy.

https://sundayjournalusa.com/2005/08/18/밀착취재한인-타운내-w-교회-매각관련-심각한-분규/

Sunday Journal 2007 년 9 월 30 일 Vol. 611
https://sundayjournalusa.com/2007/09/30/미국-이민교회의-현실과-문제점-진단 2/

Sunday Journal 2007 년 10 월 7 일 Vol.612
https://sundayjournalusa.com/2007/10/07/미국-이민교회의-현실과-문제점-진단 3/

http://blog.daum.net/pjdon8/3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9646

http://www.ptsa.edu/2017/06/11/특집-한인-이민교회의-미래-풍향계/

Sunday Journal 2005 년 8 월 18 일 Vol. 516

http://m.goodnews1.com/news_view.asp?seq=16309

<국내 논문>

강광열, “느헤미야 LEADERSHIP 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졸업 논문, 고려신학교 신학원, 1993.

김희중, “느헤미야의 지도자성을 통해 본 크리스챤의 지도자성에 관한 고찰”, 미간행졸업논문(M. Div), 고려신학교 신학원, 1993.

엄미선, “자기 옹호(self-advocacy)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빈민의 임파워먼트 연구”, 철학박사학위, 카톨릭 대학교, 2003.

배언철,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산업대학교, 2013.

신숙희,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3.

김선우,“21 세기의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리더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장영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 편, 2006,

<사전>

느헤미야, 그랜드 종합주석 제 7 권 -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 더 .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느헤미야.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3 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5. 논문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008 년 4 월 12 일.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5. 에센스영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4.

조동진, 목회학 대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4.